



2-3

1982

문예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2. 2-3호

(루게 412~413)



◆◆◆◆◆◆◆◆◆◆

## 차 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	4
영원히 당을 따라 .....	6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탄생일에 열렬한 축하를 .....	7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빛나는 태양 .....	7
노래하자 <b>김정일</b> 동지 .....	8
이 강산에 진달래 필 때면 더욱 그리워 .....	8
당을 따라 빛나게 살리 .....	8
2월의 밤 .....	9
2월의 흰 눈송이 .....	10
력사의 첫 자취 .....	11
오직 한분 .....	14
살구꽃 핀 정원에서 .....	16
혁명의 어머니 .....	26
혁명투쟁의 위대한 진리를 밝혀주는 불멸의 형상 .....	28
나는 어떻게 큰 《집》들을 짓게 되었는가? .....	32

2 월의 봄눈을 맞으며 .....	34
오산덕의 달 .....	35
한떨기 이름없는 꽃에도 .....	36
첫자옥 .....	38
젊은 당비서 .....	39
당의 령도밑에 우리 문학에서 주인공문제의 빛나는 해결.....	48
향도의 빛발 찬란하여라 .....	54
주체의 혁명주권을 받들어 .....	55
땀흘린 땅에서(외 2 편).....	56
바다우의 꽃 .....	57
사랑의 길 .....	57
빛나라 해와 별 .....	58
영광의 한표를 바치러 가며 .....	59
위원회가 끝난후에 .....	60
띠창을 두고 .....	66
개교일 .....	67
현실속의 작가들을 찾아서 .....	74
충성의 별을 우러를수록 깊어지는 생각 .....	78
영원히 어머니로 부르며 .....	7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김정일** 동지는 항일의 피어린 투쟁의 나날 백두밀영에서 탄생하여 혁명의 준엄한 시련을 체험하며 성장하였으며 일찌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수행할 큰 뜻을 품고 혁명활동을 시작하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렸다.

**김정일** 동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발전풍부화시키기 위한 사상리론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려 당건설을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심오한 해답을 줌으로써 주체사상과 주체의 혁명리론발전에 빛나는 공헌을 하였다.

**김정일** 동지는 당안에 유일사상체제를 철저히 세우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당의 전투력을 비상이 높임으로써 우리 당을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였다.

**김정일** 동지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근로대중을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우리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옹바로 지도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김정일** 동지는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적극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끊임없는 양양으로 이끌었으며 대담한 혁명적전개력으로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은 일떠세우는데 탁월한 공헌을 하였다.

**김정일** 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한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제시하고 정력적으로 지도하여 문학예술분야에서 혁명적전환을 이룩하였으며 세계적명작들을 수많은 창조하여 문화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김정일** 동지는 당과 인민의 충직한 아들로서 모든것을 오로지 인민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위업에 바치며 전체 인민들이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로선을 구현하기 위한 **김정일** 동지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오늘 우리 당의 권위는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당의 존엄과 영예는 더욱 빛나게 되었다.

**김정일** 동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능숙하게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탁월한 지도자이다.

**김정일** 동지는 우리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혁명위업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이룩한 특출한 공적으로 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의 무한한 존경을 받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정력적인 활동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 동지에게 그이의 생일 마흔뉘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함과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제1급을 수여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1982년 2월 15일

# 영원히 당을 따라

리광근

밝은 해빛을 받으며  
가로수 푸르른 아침길을 걸을 때면  
문득 떠오르는 생각,  
용접의 불꽃이 날리는  
철의 구내길에 사람들이 물결칠 때면  
가슴에 차오르는 불같은 생각

당이어  
사람마다 하루의 첫 발걸음  
제집 문턱에서 떼건만  
어찌하여 생각은 이렇듯  
하나의 숨결로 고통치는 것인가  
어찌하여 천만의 발걸음  
하나의 뜻으로 이어지는 것인가

그 어디에 있어도  
따뜻이 이끌어주고  
따뜻이 안아주는 그 손길  
불빛 환한 집안에 들어설 때면  
옷자락에 매여달리는  
어린것들의 맑은 눈빛에도 어려있고

때로 집 떠나 먼곳에 가있어도  
언제나 동지란 말속에  
심장을 높뛰게 해주는  
그 숭고한 부름  
그 다정한 대오에 또한 있더라

언제 어느때까지인지  
알수 없어라  
봄빛처럼 따사로이 스며있는  
당의 그 사랑  
태어나 어머니 품에 안긴 때부터이더냐  
한생이 다하는 그때까지이더냐

사람마다 생의 첫걸음  
고향집 그 품에 두었건만  
그대는 천만의 그 발걸음을  
태양을 따르는 첫자욱으로  
영원히 한길에  
함께 떼여준 어머니

은혜로워라, 당이어

그대의 손길은  
요람속에 포근히 담요를 덮어주는  
그 따사로움  
귀여운 아기들의 꿈을 지켜주는  
그 다심함  
들에 언덕에 새싹을 틔워주는  
그 봄빛

그러하더라  
그대의 사랑은  
천만중의 한 전사를 잃으면  
바다에 떠다니는 얼음장우에서도  
기어이 찾아내는 어머니의 그 눈빛

그 손길 잡으면  
슬픔도 기쁨의 눈물로 솟구치고  
생사의 갈림길도  
영생의 한길로 이어지더라

천리 새땅을 바라보아도  
그대 헤친 새벽이슬길우에  
젖어드는 우리의 눈시울,  
불밝은 락원의 창가에  
한송이 꽃을 보아도  
그대 기울인 그 사랑속에  
뿌리를 내린 우리의 행복

안기면 크나큰 행복을 주고  
따르면 희망찬 앞날에로 부르는  
당이어, 그대의 손길에  
하늘땅 가득히 주체의 빛발은 퍼져  
위대한 수령님 뜻으로  
사람들은 저마다 젊음에 넘치고  
강산은 봄향기로 차흐르나니

아, 우리 받아안은 삶이  
하나이듯이  
우리 가야 할 길도  
오직 하나  
해를 따라  
별을 따라  
영원히 당을 따라!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탄생일에 열렬한 축하를

후다 삼아트

눈부시여라 2월의 태양  
기쁨에 넘치여라 2월의 명절  
저 웃음담은 눈동자들은  
얼마나 빛나는것이나

환히 웃는 얼굴들, 아름다운 노래소리  
오늘은 영광의 명절, 행복한 기념일  
강산도 기쁨에 겨워 웃고  
사람들 얼굴마다에도 흠모와 긍지의 빛 어리였네

꽃들은 망울지고  
별들은 빛을 뿌리는  
여기가 바로 광명의 세계, 주체의 나라  
오늘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일

저 멀리 지평선에도 령통한 빛발 가득하여라

친애하는 위대한 지도자이시여  
인민이 존경하고 우러러모시는분  
**김일성** 주주의 혁명위업 빛나게 이으신분  
머나먼 대륙건너  
지구의 수억만 사람들이 우러러모시는분  
인민들 절절한 마음담아 삼가 드리노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만수무강 축원의 인사를!  
수백만 근로대중은 소리높이 부르나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를!

(필자는 **김일성** 주의연구레바논  
녀성소조 책임자임)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빛나는 태양

유세프 아브 알 하싼

새봄이 움트는 푸른 들에  
찬란한 빛발 비끼는 2월의 명절  
내 마음 깊은 생각에 잠겨  
뜨겁게 가슴설레여  
붓을 들었네

바로 그 소중한것은  
자애로운,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광의 탄생  
일에

나의 심장깊이에 흘러든  
열화같은 흠모와 충성의 정

삼가 이 송가를 드리노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비상한 정력과 불굴의 의지로  
인민을 위해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을 두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는 시대의 향도성이여라  
온 세상 땅은 농민의것이 되고  
대지에 오탁이 파도칠 때  
로동자들 주인된 공장에  
기계바다 설레일 때  
조선의 통일이 이룩될 때  
제국주의는 영원히  
멸망의 나락에서 구원되지 못하리

모든 투사들과 혁명가들  
그이의 손길따라 투쟁에 일떠섰나니  
20세기의 령마루에 서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빛나는 태양  
그이의 탁월한 사상은 창공에 나뭇기는  
승리의 기치여라

(필자는 레바논 **김일성** 주의연구  
위원회 위원장임)

# 노래하자 김정일동지

라꾸뚜 말랄라 조세프 도리스

김정일 동지

그이는 천재적지략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  
그이앞에서는 바위도 산산조각나리

김정일 동지

그이는 조선을 이끄시는  
위대한 항도의 별  
충성으로 태양을 옹위하시는분

영원한 청춘

강철의 의지를 지니신분

노래하자 김정일 동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그이의 위대한 업적

기념비로 높이 세우고

그이를 노래하자 김정일 동지

(필자는 말가슈 시인임)

가사2편

## 이 강산에 진달래 필 때면 더욱 그리워

최준경

신갈과 진달래야 네가 곱게 피어나면  
너전사 모시였던 그날이 간절구나  
장군님 해빛을 안고오신 그 봄날에  
너도 반겨 천만송이 꽃주단 펼치었지  
  
항일의 너전사를 남먼저 맞이하여  
이 강산 첫기슭에 향기를 풍기던 꽃

혁명의 씨앗을 가슴마다 심어주신  
너전사의 그 미소가 네 꽃에 어렸구나  
  
신갈과 맑은 물은 세월을 싣고가도  
그날의 그 영상은 꽃속에 영원해라  
너전사 이야기 향기속에 전해주며  
락원의 이 강산에 더 붉게 만발하라

## 당을 따라 빛나게 살리

림호권

혁명의 길우에 나를 세우고  
강철의 의지를 버려주었네  
아, 당을 따라 가는 앞길을  
누구도 어떤 힘도 막지 못하리  
  
투쟁의 한길에 청춘을 바쳐  
비바람 눈보라 뚫고 나가네

아, 당을 따라 가는 이 길에  
끓는 피 식으랴 두렵있으랴  
  
주체의 위업을 받드는 길에  
당원의 끝없는 영예가 있네  
아, 당을 따라 한생을 바쳐  
빛나게 살리라 싸워가리라



## 2월의 밤

오피천

밤은 깊어  
2월의 밤은 깊어만가도  
설레는 마음 잠들수 없어라

등잔불 낮추 드리워놓고  
백두산 장수별 이야기로  
지새던 그 밤의 전설이  
오늘 다시 펼쳐진듯

행복의 불빛흐르는  
락원의 창가  
향도의 별에 대한 이야기로  
밤가는줄 몰라라

보통강기슭  
잠들줄 모르는 창가  
하늘가에 유난히 큰 별이 반짝이더니  
창광거리 새 도시가 솟아났다는  
전설같은 그 이야기

홍성이는  
광부도시의 한밤  
수천척 지하막장에  
한줄기 별빛이 흘러들더니  
장거리대형콘베아가 일어섰다는  
기적같은 그 이야기

하늘가에 내리는  
송이송이 눈송이도  
속삭이며 창가에 울려가는  
이 밤의 전설을 엮어가는듯

조선혁명의 려명기우에 빛나는  
한별을 우러러  
두볼을 적시던 뜨거운 눈물은  
오늘 다시 적시는  
로투사의 이야기  
이 밤이 깊도록 그칠줄 모르고

타향만리 이영작은 초막집에서  
조선에 대통운이 텃다고

백두산 전설을 펼쳐가던  
그 밤의 감격을 다시 터치는  
로장의 울먹이는 목소리  
강선의 노을비낀 하늘가로 울려가고...

아, 이 땅 어디를 가나  
감격에 목메이고  
기쁨에 눈물지며  
깊어가는 2월의 밤이여

백두산 전설로 시작된  
조선혁명이  
2월의 전설을 수놓으며  
가닿을 그 끝은 어디인가

이 밤의 이야기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요람속에 잠든 아기의 두볼엔  
밝은 미소가 어리고  
먼 개밭지로 떠나가는  
청춘의 가슴엔 새 희망이 불타라

대를 이어 빛나는  
혁명의 향도성이  
누리를 밝히는 이 땅에  
창조의 새세계가 전설처럼 엮어지고  
전설같은 이야기속에  
인류의 새 사회가  
장엄한 해돋이처럼 펴리며 일어서라

위대한 수령님 모시여  
행복이 꽃핀 락원의 강산에  
영명한 당을 받들어  
인민이 받아안은 세기의 영광이여

아, 백두산 장수별 이야기로  
깊어가던 그 밤에  
광복의 새날은 밝아왔고  
향도의 별에 대한 이야기로  
깊어가는 이 밤에  
공산주의 새 아침은 밝아오고있어라

## 2월의 흰 눈송이

홍현양

조선의 하늘에 내리는  
2월의 흰 눈송이  
바라보면 봄빛에 싸여  
백두의 만병초를 피워주는  
2월의 흰 눈송이

그 누가 눈속에  
꽃이 없다 하였던가  
내리면 밀림에 서리꽃을 피우고  
밀영의 처마끝 고드름에 맺혀  
봄날의 달디단 물방울로 싹을 틔우는  
아, 2월의 흰 눈송이

이 강산  
얼어붙고 빛이 없고  
삶이 피눈물에 멎을 때  
2월이 봄임을  
조선의 해돋이였음을  
제일 먼저 알려준  
너는 꽃송이

그래서 차디찬 겨울날을 모르는  
조선의 봄날  
너는 그 웃음이더라  
4월을 눈속에서도 받들어 가꾸어주는  
그 순결함  
너는 그 빛이더라

불밝은 락원의 창가에  
내리고 쌓이며  
준엄한 밀림의 우등불가  
그 사향가를 불러주는  
너는 그날에 그려보던  
오늘의 조국  
조국와 미래

아, 한가슴에 안아보면

젖어드는 불같은 뜨거움이여  
물동가에 피어난 진달래 꽃향기에  
흐느껴 목이 메여  
조선아, 조선아  
간절히 부르고 찾던  
너전사의 그 축복속에  
너는 영원히 이 땅우에 내려친  
우리 당의 그 숨결이 이어나

그래서 바라보면  
우러르게 되고  
그래서 이 강산에 내리면  
위대한 수령님 모시고  
우리 당이 걸어온 길이  
네우에 그토록 력력하구나

혈전만리 불길속에선  
너는 회오리치는 불사조의 나래  
아찔한 건설장의 철탑우에선  
너는 청춘들의 랑만  
어깨우에 꽃보라

네가 있기에  
흰 눈송이  
이것은 조국이란 말  
네가 있기에  
흰 눈송이  
이것은 차거움을 모르는  
오늘의 밝은 웃음

아, 그 누가  
눈속에 꽃이 없다 하였던가  
2월의 흰 눈송이여  
너는 우리의 모든것  
우리의 삶이 움터오른  
조선의 꽃송이!

## 력사의 첫 자취

최봉무

해가 솟는다.  
수평선너머 하늘가에 담황색노을을 펼친다. 동해의 푸른 물결위에 억만구슬을 뿌린다.

두둥실 떠오르는 붉은해! 누리에 은혜로운 빛발을 뿌리여라.

아, 해돋이 해돋이, 2월의 해돋이!

그 빛발아래 조국의 모습 찬란히 솟아올라라.  
장엄한 그 위용, 거센 그 숨결, 아름다운 그 모습... 만물에 생을 주고 지혜와 힘을 주는 해빛...  
그 빛발 당의 따사로운 손길인가.

### 영광의 기슭에서

나는 지금 바다가의 로대우에서 동해를 바라본다.

설레이는 진주물결, 펼쳐진 백사장...

이 가슴 왜서 이리도 설레이는가. 무엇이 가슴에 이리도 사무치게 젖어들기에, 무엇이 이리도 못견디게 흘러간 추억을 불러내기에.

몇번째 찾아온 걸음이어서 모든 사연을 알고 있지만 올 때마다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의 까닭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있다.

이토록 몸둘바를 모르고 흥분의 화신이 되어 불타고있음을 왜서 모르랴...

그것은 우리모두가 이곳 력사의 지점에 찬란한 향도의 첫자욱이 찍혀있음을 알기때문이다.

나의 눈앞에는 어언듯 세월의 흐름을 거슬러 37년전 바다기슭이 펼쳐졌다.

그때 조선은 저 물결위에 미래의 태양을 받들어 울리며 얼마나 감격에 목메여 흐느꼈던가.

11월 26일 아침.

새 조국 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영광의 그날, 오랜 세월 조국광복을 위해 싸워오신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아드님과 함께 바로 이 백사장을 걸으시였다.

《어린이 만나신곳》

충성의 마음과 마음들이 가슴을 적시는 뜨거움을 머금고 화강석에 한자한자 금문자로 새겨넣은 표식비! 말없는 비둘은 력사의 증언자로 죄다 말해주고 있구나.

이날 설레이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시여 아드님의 손목을 꼭 잡으시고 이 기슭을 거니시던 어머님께서서는 몇몇 학생들이 씩씩하게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손저어 부르시였다.

아이들은 넘어질듯 달려와 어머님과 아드님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였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아버지 **김일성** 장군님을 모신 애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함뿍 어려있었다. 그것은 장군님을 모시고 이날을 위해 갖은 풍상고초를 다 겪어오신 어머님의 기쁨이었으며 조선의 기쁨이었다.

어머님께서서는 애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나이는 몇살인가, 언제부터 학교에 다니는가, 공책과 연필은 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며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좀 보자고 하시였다.

한 학생이 책가방을 어머님 앞에 조심히 풀어 드리였다.

어머님께서서는 사랑이 어린 부드러운 손길로 학습장을 한장한장 번지시였다.

거기에는 연필로 또박또박 박아쓴 우리 나라 글이 적혀있었다.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 영웅 **김일성** 장군.》

《삼천리 금수강산. 백두산. 금강산.》

빛나는 눈길로 한동안 글자를 읽으시던 아드님께서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주위는 숭고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 진정 아드님께서서는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과 새 조국 건설에 대하여, 나라의 창창한 앞날과 자라나는 역군들에 대하여 사색하지는것이 아닌가.

아드님의 얼굴은 비범한 예지로 빛나시였다.

잠시후... 어머님께서서는 학생들의 옷차림새를 바로 잡아주시며

《너희들은 **김일성** 장군님을 높이 받들고 공부를 잘하여 삼천리 금수강산, 내 나라를 더욱 빛내여갈 훌륭한 역군이 되어야 한다.》라고 차근차근 말씀하시였다.

아드님께서서는 아이들에게 꼭 어머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학습장에 쓴 글을 신념에 찬 음성으로 다시한번 읽어주시였다.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 영웅 **김일성** 장군.》

피로한 행군끝에 가랑잎을 깔고 굳잠에 들었을 때도 잊은적 없는 조국과 미래, 그것을 위해 피흘리며 싸워온 전우들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리였다.

꿈에도 잊은적 없는 소원이 아니었던가. 해풍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현지지도의 첫 기슭을 거니시는 어머님과 아드님의 위대한 영상을 모시는 것이 전우들의 아니 조선의 념원이 아니었던가!

이 력사적 순간 수평선에서는 붉은 해가 솟아

불타고있었다. 하늘, 땅, 바다가 주홍빛으로 물졌었다.

걱정의 파도가 기슭을 치고 갈매기도 목메어 노래하며 감돌고 인민들의 환호성이 송진산을 뒤흔들었다.

몇해가 흘렀기에 상기도 찬란한 해돋이를 맞던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의 영광 이 가슴을 이다지도 흔드느냐.

나는 로대의 은빛 쇠란간을 짊어잡는다. 가슴이 끝없이 설레인다.

그때와 다름없이 동해의 장엄한 해돋이가 시작된다.

아침 바다가에서 이 시각을 맞는 나의 기쁨 무엇에 비기랴. 인민의 긍지 무엇에 비기랴. 조국의 영광 무엇에 견주랴.

## 선언

하늘에 닿았는가 높이 솟았구나.

서리꽃 하얗게 핀 은행나무밑을 에돌아 포석을 밟는 나의 걸음이 언덕에 멎었다. 여기 유서깊은 중현언덕의 표식비앞에.

더더욱 마음의 발걸음 못뻔은 자그마한 대리석에 금문자로 새겨진 위대한 선언이 빛나고있기때문이라.

누구든 뜨거움에 눈시울을 적시며 오르고 우리와 번개를 품고 내리는 언덕이다.

나는 몸을 돌려 한눈에 안겨오는 시내를 굽어본다. 상현마을, 중현마을, 하현마을... 당의 은혜로운 해빛아래 꽃피는 선봉(당시 웅기)시가의 전경이 그림처럼 아름답다.

내가 선 여기가 바로 김정숙어머님과 아드님께서 서시였던곳이다. 그리 높지 않은 언덕이건만 생각할수록 더 높이 솟아만나는곳이기에 가슴은 이리도 높뛰고 사색은 바닥없이 깊어가는것이어라.

그날 어머니는 해방된 조국의 모습, 그림던 산천을 바라보시기 위하여 아드님과 함께 이 중현언덕에 오르시었다.

아드님께서서는 빛나는 안광으로 망망한 푸른 바다와 어촌마을, 초라하나 활기찼 생활이 분주히 흐르는 골목들을 말없이 일별하시었다. 해방된 이 나라 인민들의 창조의 숨결을 가늠하시며...

뒤따라 올라온 전우들이 어머니와 아드님을 우러러 조용히 다가섰다.

집들이 빼곡이 들어앉은 선봉시가를 오래도록 바라보시던 어머니께서는 부두가로 시선을 옮기시고 포구를 감도는 갈매기를 가리키며 전우들에게 나직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저 갈매기들이 바다를 떠나서 살수 없듯이 우리는 조국을 떠나서 살수 없어요.》

《웁은 말씀이에요.》

뒤에서 바다가에 고향을 둔 한 전우의 목메인 음성이 울리자 어머님께서는 해방된 조국땅을 밟을수록 모든것이 정답고 다정해보이며 사람마다 친아버지, 친어머니 같고 친형제들처럼 느껴진다고 못내 감격을 금치못하시었다.

아드님과 더불어 전우들은 가슴에 차넘치는 흥분을 이기지 못하여 어머니의 군복자락이며 팔소매를 꼭 잡으시었다.

잠시후 어머니께서는 멀리 백두산쪽 하늘가를 바라보시며 젖은 음성으로 《우리는 이렇게 조국땅을 밟으며 기뻐하지만 이날을 보지 못한채 백두밀림의 이름모를 나무밑에 묻힌 동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져요.》라고 곡절 많았던 항일의 긴 세월을 회고하시었다.

어머니의 눈가에서 승고한 조국에 대한 사랑과 혁명전우들에 대한 뜨거운 의리로 하여 맑은 이슬이 보이는듯싶었다.

벌써 해살은 아드님께서 서계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듯 평화로운 선봉시가우에 쏟아져 내렸다.

한동안 침묵속에서 시가에 눈길을 주고계시던 아드님께서서는 한 2층양옥집을 가리키시며 저 집이 무슨 집인가고, 저 집에서 누가 사는가고 물으시었다.

《저렇게 큰 집에서는 왜놈들이 살았단다.》

어머니의 말씀을 생각깊이 듣고계시던 아드님께서서는 중주먹을 부르짖시었다.

《왜놈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왜놈들이 있으면 내가 모조리 까부시겠어요.》라고 엄숙하게 말씀하시었다.

그이의 이 말씀은 혁명의 퇴성인양 슬기로운 맹세로 제국주의 멸망의 선언으로 어머니와 전우들의 가슴을 팡팡 울려주었다.

그렇다. 그날의 그 말씀은 의로운 인류에 재난을 안기는 제국주의 종말에 대한 준엄한 선언이였다.

그 음성 제야의 종소리인양 삼천리강산에 울려퍼리. 그 음성 대양과 대륙을 넘어 먼먼 미래에도 끝없이 울려갔으리라.

아, 위대한 선언!-

나는 설레이는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되뇌인다.

그 선언 나의 가슴에 지혜와 용맹의 큰 칼을 안겨주나니 내 어이 마음의 그 칼을 들어 원수의 정수리를 치지 않고 견딜수 있겠는가. 그이의 혁명전사가 된 본분을 다하지 않으랴.

때문에 오르는 사람마다 그이의 혁명위업을 받들어 그날의 선언을 안고 끝없이 충성의 길을 걸어가고있는것이다. 영원히 영원히...

## 지구의 정점우에!

해방동! 해방동!

조국해방을 축원하여 해방동인가, 인류해방을  
념원하여 해방동인가.

신봉땅에서 수백리... 나는 행군의 피로도 잊고  
처마났은 수수한 집앞에서 경건히 옷깃 여민다.  
여기가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 건설방침을  
받드시고 김정숙어머님과 아드님께서 청진에서  
여러 부문사업을 지도하시는 기간에 계신 뜻깊은  
집이다. 이 시각이 동해의 물결우에 솟은 해가  
백두산천지우에 떠오른 정오이다.

얼마나 소중한 집인가. 얼마나 위대한 시각인  
가!

오늘에 서서 그날에로 나래쳐가는 나의 추억,  
아름다운 사색의 심연을 헤치는 나의 행복 사적  
지의 키낮은 수수꽃다리울타리에도 하얀 눈꽃으  
로 피었구나.

사무치는 수많은 사연들이 있건만 내 다시한번  
은 세상에 웨치고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어머님께서 이 집에 류숙하시며 새 민  
주조선 건설을 지도하시던 분망하신 나날에 있는  
일이다.

어느날 어머님께서 아드님과 함께 그리 멀지  
않은곳에 있는 자그마한 학교를 찾으시였다.

우리 말, 우리 글을 가르치게 된 기쁨을 안고  
홍분되어있던 교원들은 어머님과 아드님을 사무  
실에 모시였다.

어머님께서 후대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아드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의깊게 듣고  
계시다가 책상우에 놓여있는 지구의를 유심히 들  
여다보시였다.

잠시후 조선이 어딘가고 물으시였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지구의를 천천히 돌리시였다. 교원들  
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머님께서 돌리시는 지  
구의를 의아히 쳐다보았다.

《여기가 우리 조국 조선이란다.》

《.....》

하지만 아드님께서는 아무 말없이 어머님의 손  
길을 눈여겨보시다가 여기는 어딘가고 재차 물으  
시였다.

한 교원이 일본이라고 말씀드리자 아드님께서  
는 《일본제국주의는 우리의 원수인데 왜서 조선  
과 색깔이 같은가요?》라고 엄한 표정을 지으시였  
다.

순간 교원들은 너무 뜻밖의 일에 당황하여 어  
쩔바를 몰라했다. 해방된 감격에 도취하여 거기  
에는 누구도 미처 생각을 돌리지 못한것이 아니  
였던가. 그랬었다. 실로 거기에는 그 누구도 주의  
를 돌리지 못하고있었다.

그 모든것을 헤아리신듯 아드님께서는 송구해  
서 몸둘바를 몰라하는 교원들을 위로하시는 어머  
님을 쳐다보시며 백두산이 어딘가고 물으시였다.  
어머님께서 여기라고 백두산을 가리키시자 아드  
님께서는 얼굴에 밝은 빛을 담으시며 백두산에  
손을 짚으시고 지구의를 천천히 돌리시는것이였  
다.

마치 백두산이 지구의 정점인듯 5대양 6대주가  
따라 움직이였다.

그 순간 아드님께서는 불타는 열정과 예지가  
빛발치는 비범한 눈길로 지구의를 굽어보시며  
《세계가 조선을 따라옵니다!》라고 호방하게 웨치  
시였다.

진정 세계가 조선을 따라 돌았다. 그이께서 백  
두산을 지구의 정점으로 짚으셨기에 세계는 조선  
을 따라 돈다!

아, 그날에 벌써 조선이 미구에 꼭 그렇게 되  
리라는것은 예언이 아니라는것을 인류는 알고있  
었으리. 알고있었으리라, 인류해방의 구성을...

언제나 기준점은 향도의 중심이다. 벌써 해돋  
이 시작과 더불어 공산주의로 가는 그 미래는 이  
렇게 확증되었거니 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하늘가를 바다본다. 2월의 해빛 찬란한 지구의  
정점우에...

모든것이 현실로 되고있는 오늘 나의 눈앞에는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벗들의  
모습이 어린다. 나의 귀전에 우리 조국을 칭송  
하는 세계 인민들의 정의의 목소리가 울린다...

인간의 존엄을 두고 생각한다. 자주성과 창조  
성의 완전한 실현을 두고 생각한다. 그런 세계를  
두고, 주체의 해빛 찬란한 그런 앞날을 두고 생  
각한다.

해방동! 해방동!

조국해방을 축원하여 해방동인가, 인류해방을  
념원하여 해방동인가.

×

해빛이 쏟아진다.

지구우에 금빛해살을 뿌린다. 무한대한 우주공  
간에 붉은 노을이 비긴다.

백두산천지우에 높이 떠오른 해! 누리에 자유  
의 빛발을 뿌리여라.

아, 해돋이 해돋이, 향도의 해돋이!

그 빛발아래 공산주의 꽃대문이 솟아오르리라.  
장엄한 그 위용, 거센 그 숨결, 아름다운 그 모  
습... 만물에 생을 주고 지혜와 힘을 주는 해빛...  
그 빛발이 위대한 당의 영명한 손길이다!

(1982년 2월)

## 오직 한분

최희숙

무엇을 《가꾼다》거나 《키운다》는 말은 《어머니》라는 단어와 아주 친숙하게 어울린다. 그것은 자라는 모든것에게는 어머니의 사려깊은 눈길과 부드러운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삼스럽게…) 하고 생각은 하면서도 내가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느끼는 이런 말을 곱씹는것은 오늘에 와서 그것을 또 한번 뜨겁게 느끼게 되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으며 우리 당의 정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결음도 전진시킬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광명한 미래도 바랄수 없습니다.》**

어느날 학생들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2 월의 명절을 앞두고 학급 이름으로 된 이름다운 생화꽃바구니를 마련하자고 제기하였다. 나 역시 이미 구상하고있던것이였다.

그것을 마련하자면 우선 학생들에게 꽃키우는 방법을 알려주어야겠기에 나는 시간을 내어 학생들을 데리고 온실에 들렀었다.

두툼한 외투에 폭신하게 둘러감을 목도리… 온실은 이런 옷차림을 한 겨울 손님들을 삼시에 어리둥절하게 만들어버리는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밖은 사나운 눈보라가 몸부림치는 겨울날이지만 온실안은 해빛이 파사로운 꽃피는 봄이였다.

별세상처럼 황홀하고 눈부셨다.

**김일성** 화, 목란, 만수국, 제라니움, 장미, 다리아…

《아이유. 이 많은걸 영철이 아버지가 가꾸셨군요!》

저쪽에서 꽃모를 정성껏 옮겨심고있는 사람이 내가 담임한 학생의 학부형이였다.

인사말보다 못내 감탄하는 목소리가 먼저 튀어나오는것이였다.

《아니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원예사는 흙몬은 손을 툭툭 털며 일어섰다.

내가 찾아온 사유를 이야기하자 원예사도 감동되어 날자를 계산하여 꽃피우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했다.

흙과 거름은 얼마만큼 둔다음에 꽃모를 옮겨야 하며 물은 어느 때 어느만큼씩 주어야 하며 해빛이 비치는쪽에 화분을 어떻게 두어야 하며…

듣고보니 꽃기르는것도 수월한 일이 아니였다.

나는 원예사의 수고를 헤아리며 그의 땀방울이 방울방울 스며들 온실안을 살펴보았다.

《꽃 하나 가꾸는것도 이렇게 품이 드는데 저 많은걸 다 키우시자니… 나야 말이 원예사지요. 진짜 원예사는 선생님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요…》.

나는 밖을 나섰다. 겨울이란 맹정한것이여서 봄속에 묻혔던 나를 일시에 랭한속에 휘몰아넣었다. 그러나 마음은 하냥 뜨거웠다.

《원예사는 선생님》이라던 그 원예사의 말이 얼마나 나의 가슴을 후덥혀주었던지 나는 줄곧 추위를 느끼지 못하였다.

역시 보람은 평범한 순간에 행복으로 찾아드는가보다.

(이젠 나도 다 컸구나.)

문득 눈앞에 두장의 사진이 나타나는바람에 나는 빙그레 웃었다.

어머니는 첫 사진을 백날사진이라고 불렀는데 망울진 꽃송이를 입에 대고 해물해물 웃고있는 애기가 나라고 했다.

대학졸업을 앞둔 어느날 동무들과 함께 식물원을 찾은적이 있었는데 사진기앞에 나선 나에게 동무들은 식물원기념이라며 아릿다운 백일홍 하나를 쥐여주었다.

망울진 꽃송이와 활짝 핀 꽃송이 이것은 나의 성장과정과 신기할만큼 우연한 일치를 이루어 자주 펼쳐들고 다 자란 자신을 돌이켜보게 만든다.

이젠 교단에 나섰으니 꽃이 피서 새 꽃을 가꾼다고 할만도 하지 않을까? 원예사처럼, 어머니처럼...

(그러니 너도 절도 피지는 않았겠지?)

자기에게 던져본 물음이 걸음을 천천히 움직이게 했다.

돌이켜보니 나도 절로 자란것은 아니다.

한없이 따뜻한 어머니의 눈길과 손길이 나를 안아키웠고 교원-혁명가로 자라왔다. 그 사랑은 내가 첫 울음을 터칠 그때 머리말에 무릎을 고이고 앉아 행복의 미소짓던 너의사가 부여준 정도 아니었다. 걸음마 배우던 나날에 넘어진 나를 아래목에 앉히고 그늘 비낀 얼굴로 내 무릎을 들여다보던 나의 어머니의 사랑도 아니었다. 최우등 성적증을 받아들고 대견함을 금치 못하던 아버지도, 중학시절의 잊지 못할 담임선생도 과학의 진리를 익혀주던 대학교수도 아니었다.

태어나자부터 나는 단순히 시골집의 맏딸이 아니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라 불리우는 위대한 품이 내가 첫 울음을 터칠 때부터 오늘까지 나를 고이 안아키우는것이다. 나는 애기적부터 나라의 《왕》으로 불리웠고 떠받들렸다. 썸새기, 우리 글도 배워주셨고 나의 목에 넥타이를, 나의 가슴에 영예로운 사로청원의 휘장을 달아주셨다.

그 품에서 나는 망울을 터치고 꽃으로 활짝 피어난것이다!

나는 나를 교원-혁명가로 키워주신 그분 바로 그분을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높은 연단에서 보았다. 경축대렬이 물결쳐 흐르던 바로 그날에 내 눈으로 직접 뵈었다.

나는 영광의 경축대렬에 서서 활짝 피어난 목란꽃다발을 높이 들었었다. 그것은 곧 나이기도 했다.

사방을 둘러보니 아, 그것은 나만이 아니었다. 아이들도 젊은이들도 중년, 로인들, 아니 우리모두였다. 온 평양시민들이었다. 온 조선사람들이었

다.

조선은 말그대로 하나의 크나큰 화원이었다. 겨울을 모르는 봄의 나라였다.

《최고이다!》

《이런 화원을 처음본다!》

세상곳곳에서 모여온 인사들이 탄성은 올리는 바로 그 순간에 주석단중심에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흘러가는 꽃물결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는분이 계셨다.

한송이도 열백송이도 아닌 몇천몇만 꽃들을 다 자라우신분! 그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동지, 우리 당이다!

(저 원예사는 나더러 원예사라고 했지.)

옳은 말이다. 내가 선 초소는 학생들을 참된 혁명가로 키워야 하는 영예롭고도 어려운 혁명초소 인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때로 놓이게 되는 난관도 어려운 고비도 그분께서 모두 헤쳐주시니 나는 지금도 위대한 손길에 받들려 살고있지 않는가.

내가 맡은 학생들도 모두 그분께서 안겨주신 사랑의 선물옷을 펼쳐입고 그이께서 세워준신 사랑의 학교에서 세상 부림없이 무럭무럭 자라고있는것이다.

그들도 나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품속에서 피어나고있다.

꽃을 피우고저 꽃삽을 들었으나 실지로 꽃을 피우는것은 내가 아니다. 저 원예사도 아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진정한 인류의 화원, 주체의 대화원을 마련하시는분은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바쳐오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영광스러운 당 오직 그 한분뿐이다!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돌아섰다. 나를 바래주러 나섰던 원예사가 온실로 들어서는 모습이 바라보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를 불러세우고 이렇게 말하였다.

《원예사는 저도 아니예요. 온 나라에 아니 온 세상에 꽃을 피우시는 그분이에요. 오직 그 한분이예요!》

## 살구꽃 핀 정원에서

김원종

동해선을 달리던 열차가 어느 한 공업도시의 역에 와닿은것은 늦은아침이었다.

문인숙은 갑자기 차칸이 봄비눈바람에 새벽잠에서 깨어났다. 새로 오른 려객들과 함께 밀려든 초가을의 선선한 공기가 정신을 가다듬게 했다. 북변땅 여러곳을 거쳐오느라 먼 려행길에 지친 그였다. 그러나 취재임무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을 이루고 평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마냥 설레었다.

해방된 이듬해 봄부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를 가까이 뵈옵고 그이의 각별한 사랑과 믿음속에서 새 조선의 녀류기자로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해온 그는 진정한 의리감으로부터 어머니의 친척 한분이라도 찾아드리려고 남모르게 애써왔다. 그는 어머니의 오랜 전우들도 만나고 여기저기 편지도 해보았다. 그리고 몇해째 취재의 기회를 리용하여 두만강일대도 돌아다녔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서는 도리상 어머니를 다시 찾아뵈울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며 번민해온 그였다. 한해 또 한해 안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러던중 드디어 이번에야 친척 한분의 행방을 알수 있는 매우 귀중한 단서를 잡게 되었다. 해방후 몇해가 지나도록 친척들의 소식조차 모르고 계시는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처음으로 어머니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가슴뿌듯해진 문인숙은 열차의 머무름시간이 한정없이 길게만 느껴졌다.

이것은 1949년 9월 하순의 어느날이었다.

열차는 새 손님들을 가득 싣고 서둘러 역을 떠났다.

로동복차림의 한 청년이 뒤늦게야 문인숙의 앞빈자리에 털썩 앉았다. 떠나는 열차를 간신히 잡아탄것처럼 숨가빠하는 그의 손에는 신문 한장이 쥐여져있었다. 가쁜숨을 몰아쉬며 신문을 거듭 들여다보던 청년의 어글어글한 눈귀에서 부지중 구슬알같은 사나이의 눈물이 주르륵 굴러떨어졌다.

문인숙은 놀란 눈으로 그 신문의 웃면을 넘겨다 보았다. 순간 심장이 푹 멎는듯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신문에는 존경하는 김정숙어머니께서 애석하게도 서거하시였다는 부고가 실려있었던것이다.

(어머니께서 서거하시다니! 이 무슨 청천벽력같은 일인가...)

차칸의 이 구석 저 구석에서 흐느낌소리가 들

려왔다. 너무도 강한 충격으로 하여 어쩔바를 모르며 두손으로 얼굴을 덮어버렸던 문인숙은 그만 창탁에 엎드려 흐느껴울기 시작했다. 비통함에 가슴이 미여지는듯하였다.

(아, 나는 존경하는 어머니앞에 문필가로서의 사명은 고사하고 인간의 도리조차 다하지 못했구나!...)

슬픔에 잠긴 마음들을 달래듯 바퀴소리 가락맛게 울리며 열차는 밤길을 달렸다.

문인숙의 눈앞에는 몇해전 어느 봄날 살구꽃 핀 아담한 정원에서 존경하는 어머니를 처음 만나뵈던 일이 가슴을 뒤흔들며 떠오르기 시작했다.

### 1

《평양민보》의 사회부기자 문인숙이 해방후 반년 남짓한 사이에 보도계의 중진으로 이름을 날리게 된것은 결코 그가 녀류기자라는것때문이 아니었다.

취재활동의 경험이나 글재주보다도 사회여론에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 생신한 열정이 해방의 감격으로 들끓던 대고의 호흡과 맞아떨어 진것이라고 할가. 아무튼 문인숙은 어디가나 창조와 변혁으로 뚫어번지는 격동적인 현실에 몸을 잠그고 취재활동에 정력을 기울여 수많은 인기기사들을 써서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어느덧 그의 문필생활에 확고한 자신심을 주었으며 편집국의 남다른 신임과 기대를 얻게 했다.

《토지개혁에 대한 전번 기사는 정말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일에 문인숙동무가 책임이라고 모두 인정했습니다. 요즘 편집국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니의 혁명활동에 대해서 소개해달라는 독자편지가 매일같이 들어오는 형편입니다...기대하는바가 큼니다.》

편집국의 이 청탁을 문인숙은 쾌히 접수했다. 그러지 않아도 그는 어머니께서 평양에 오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녀류기자인 가기가 남먼저 접견담을 발표하고싶은 욕망을 품었던것인데 그것이 오늘에야 실현되는 셈이었다.

그러나 흥분과 욕망이 앞서는데 비해서 준비가 너무도 부족했다. 원고의뢰를 받는 첫 순간 머리에 떠오른것은 고작해서 인민들속에 떠도는 자자한 소문뿐이었다.

어른아이 할것 없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는 김정숙어머니이야말로 세상을 놀



래울만한 전설적인 명사수라는것이였다. 때와 장소까지 명백히 밝혀서 말하는 자칭 《목격자》들의 말을 들어보아도 그 사격술은 경이적이라기보다는 신묘할 지경이였다.

어머님께서 지난날의 전우들과 더불어 대동강 물우에 성냥갑을 던져놓고 사격을 하시였는데 유독 단방에 명중하시였다거니, 어느날 만경대에서는 아득한 공중에 날아가는 새 매를 쏘아떨구시여 동네로인들로부터 파시 녀걸이라는 높은 찬사를 받으시였다거니, 어느 농촌 밭머리에서는 한방의 권총사격으로 세마리의 참새를 잡으시였다거니...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떠돌았다.

녀성의 몸으로 어쩌면 그렇듯 놀라운 사격술을 지니시였을가? 거기에는 어떤 사연과 비결이 깃들어있을가? 아니, 나아가서 조선이 낳은 출중한 녀걸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시며 **김일성**장군님의 가장 충직한 전사이신 어머님의 일상사에는 어떤 비범하고 특이한 면이 있을것인가?...

그리하여 문인숙에게는 어머님의 모습이 비범한 거인적표상으로 새겨졌으며 그리하신 어머님에 대하여 특별기사로 크게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되였다.

마침 일요일 오후, 문인숙이 자그마한 밤빛 녀자용 손가방에 사진기까지 곁메고 산뜻한 하늘빛 봄철양복차림으로 저택정문옆에 있는 경위대의 대기실에 들어섰을 때는 라디오에서 발갈이노래가 울려나오고있었다.

경쾌한 반주에 실린 녀성고음독창이 끝나자 남자방송원의 목소리가 봄발갈이에 펼쳐나선 각지 농촌들의 소식을 전해주기 시작했다.

보이는것, 들리는것이 모두 새봄의 환희로 가득 찼다. 봄은 연두빛 새싹이 움트는 아담한 저택의 정원과 여기 경위대의 직일관실에도 찾아왔다. 둥근상 주위로 몇개의 걸상이 놓인 대기실의 창문은 정원쪽으로 열려있었다. 그 창문으로 활짝 핀 살구꽃가지가 방긋이 웃으며 들여다본다. 다투어 핀 그 연분홍 꽃송이들은 어여쁜 아기의 입술같다. 달콤하고 생기발랄하고 한없이 순결한 꽃송이들, 거기서는 새생명의 약동하는 숨결소리와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나오기라도 하는듯... 벌들이 분주하게 이 꽃 저 꽃 넘나들며 꿀을 받다가 날씬한 제비 한마리가 창가를 휩 스치는 순간 깜짝 놀라 방안으로 날아들었다. 당황한 벌이 소란스레 뽕뽕 거리며 온 방안을 여러고래 돌아치다가 다시금 꽃을 따라 나가자 방안에는 코끝을 간지럽히는 짙은 꿀향기가 가득찼다. 잇달아 흰나비 한쌍이 또 날아들어왔다.

《어서 앉으십시오.》

대기중의 체격 좋은 경위대원이 빙그레 웃으며 침착하고 레절바르게 의자를 권한다.

방안에 들어서자마자 벌에게 쏘일것만 같아 어쩔줄 모르며 손을 희끗한 문인숙은 《봄맞이소동

이군요.》 하고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았다.

경위대원이 직일관실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신분증을 돌려주며 말했다.

《어제 어머님께서 말씀이 계셨답니다. 여기서 좀 기다려주시시오.》

《제시지 않는가요?》

문인숙이 조금하게 물었다.

《돌아오실 시간이 되였습니다.》

경위대원은 보던 책을 쥐고 다시 창가에 앉았다. 안방인 직일관실에서는 전화종이 자주 울리고 그때마다 직일관이 상대방에게 장군님께서 지금 농촌에 현지지도 나가셨다는것, 어머님께서도 댁에 안계신다는것을 미안한 어조로 설명해주곤 했다.

문인숙은 경위대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찌 보면 갓스물갈기도 하고 달리 보면 서툰말에 간 것 같기도 하다. 필경 나이는 어런데 걸쭉어보이는 그런 얼굴이다. 검시그르한 살갗에 입술이 두툼하고 손이 크며 어리무던한 농군의 표정을 한 그는 느릿한 황해도사투리를 썼다.

《동무는 고향이 황해도같은데요...》 문인숙이 말을 걸었다. 그에게는 이 여유시간을 한가롭게 보낸다는것이 허용될수 없는 일이었다.

대기병은 어쭙게 웃어보였다. 그리고는 황해도 태생이라고 대답하면서 젊은 녀류기자를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김정숙어머님께서 대단한 명사수라는 소문이 자자한데 어떻습니까? 사격하시는걸 본 일이 있습니까?》

문인숙의 물음에 경위대원은 입가에 느슨한 미소를 지었다. 잠시후 그는 신중해진 어조로 말했다.

《총을 쏘실 때 어머님의 눈에선 번개불같은것이 번쩍 합디다. 정말입니다. 사격하시는 장면을 직접 보신다면 기자선생두 아마 놀랄겁니다.》

《동문 직접 보셨겠지요?》

《그러문요... 하지만 우리 이머님은 또 얼마나 부드럽구 인자하신분인지 모릅니다.》

《동무가 부럽군요. 좋은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경위대원은 보던 책을 덮었다.

문인숙은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둥근상밑에서 가방을 열어 자그마한 취재수첩을 무릎우에 펼쳐놓았다.

...몇달전 허만덕은 중앙경위대에 입대하여 처음으로 실탄사격을 하게 되였다.

그날 어머님께서서는 바쁘신 일들을 뒤로 미루시고 몸소 사격장에 나오시였다.

《나도 총쏘기를 좋아하는데 함께 가자요.》

어머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탄사격하는 날은 명절기본인데 특무장은 특식도 마련하고 꽃송이도 준비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도 꽃송이들을 준비하시었다.

사격장에 나오신 어머니께서는 대원들의 사격 자세도 바로잡아주시고 조준동작을 손수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었다. 《우》를 맞은 대원들에게는 친히 꽃송이를 달아주시고 뜨겁게 손을 잡아주시었다.

어머니께서 신입대원이라고 각별히 보살펴주시고 고무해주시었으나 만덕이만은 이날 사격에서 실패치 못한 점수를 받았다.

사격장지휘관이 중대 《우》의 총평을 발표하자 대원들은 사기들이 올라서 환성을 지르며 아이들처럼 경충경충 뛰다가 어머니께로 모여들었다. 그리고는 약속이나 한듯이 유격대때의 사격습씨를 한번 보여달라고 간청드렸다.

어머니께서는 아이들처럼 조르는 대원들을 애정 어린 눈길로 이속도록 바라보시다가 다정히 웃으시며

《그럼 한번 쏘볼가요.》

하시고는 이왕이면 재미나게 쏘아보는게 어떻가고 하시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지휘관이 얼른 뛰어가 거의 50미터나 되는 거리에 빈병 세개를 가지런히 세워놓았다.

어머니께서는 선자리에서 침착하신 동작으로 권총을 겨누시더니 쉬임없이 세발을 쏘시었다.

그런데 빈병들은 웬일인지 모두 그대로 서있었다. 대원들은 숨을 죽였다.

《한번 가보세요.》

어머니께서 총을 넘겨주시며 만덕에게 이르시었다.

그제야 만덕은 달려나갔다. 그뒤로 대원들이 우르르 따라갔다. 목표앞에 다가선 대원들은 그만 놀라움을 금치 못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눈을 비비며 허리를 굽혀 자세히 살펴보기도 했다. 빈병들은 실패치도 죄다 모가지만 떨어져나갔던 것이다.

너무도 경탄한 대원들은 어머니께로 달려와 허물없이 둘러싸고 총쏘는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말썽올렸다.

어머니께서는 대원들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시고 그 림름한 얼굴들을 대견히 바라보시었다. 그러시다가 조용히 웃으시며 비결은 무슨 비결이었겠느냐고 하시면서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전에나 지금에나 저두 동무들과 마찬가지로 경위대원이예요. 장군님을 보위하는 우리에게 천 번중 단 한번이라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 아무때나 명중하지 못할수가 없을거예요. 그뿐이에요. 총쏘는데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 전 아직 모르겠어요.》

끝없이 감동된 대원들은 어머니께서 그 바쁘신 가운데도 친히 사격장에 나오신 까닭을 알게 되었으며 귀중한 그 말씀을 수첩에 적어넣기도 했

다.

오후에 만덕은 노래를 부르며 돌아가는 중대대렬에서 좀 떨어져 어머니를 모시고 언덕길을 걸었다.

어머니께서는 물으시었다.

《만덕동무, 절대로 락심하지 말아요. 첫술부터 어떻게 배가 부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동무의 눈이 좀 나쁜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만덕은 당황했다.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어떻게 아시었을가 하는것이 놀랍기도 했거니와 눈이 정말 나쁘다는것이 판명되면 군복을 벗게 되지 않을가 하는 걱정이 불쑥 솟았다.

《사격할 때 내가 특별히 지켜봤는데 동작에는 결함이 없었어요. 눈이 잘 안보이는게 사실이라면... 좀 섭섭하군요. 날더러 어머니라고 하면서 왜 그런걸 말하지 않았어요? 우린 한집안식구이고 장군님을 보위하는 같은 경위대원이 아니예요?》

자기를 개인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만덕동무, 젊은 나이에 왜 그렇게 눈이 나빠졌어요?》

《점점 나아지구있습니다.》

허만덕은 어쭙게 대답올렸다.

《무슨 약을 썼어요?》

《그런건 없지만... 지금은 잘먹구... 또...》

순간 어머니께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언제나 맑고 정다운 미소속에 빛나던 어머니의 눈에 갑자기 그늘이 비끼는것을 만덕은 보았다. 그것은 분명 상처입은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애절한 눈빛이었다. 어진 마음을 사로잡는 그 타는듯한 애정의 눈빛을 만덕은 피할수가 없었다.

《앞으로도 날 어머니라고 부르겠으면 숨기지 말고 다 말해요.》

어머니의 어조는 엄하시었다.

만덕은 고개를 숙이고 오래도록 망설이다가 간신히 말씀올렸다. 오누이가 지주집에서 머슴을 살다가 어느날 누이동생이 제사공장으로 팔려간 일, 바로 그날을 며칠 앞두고 만덕이가 방해를 놀가봐 지주놈이 억울한 루명을 씌워 그를 캄캄한 움속에 가두고 밥도 제대로 먹이지 않던 일...

반죽음이 되어 밖으로 끌려나왔을 때 만덕은 눈앞에 안개가 덮인듯 잘 보이지 않았으며 누이동생이 어디로 어떻게 팔려갔는지도 알수 없게 되었던것이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두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고생을 저혼자 했겠습니까. 인젠 장군님 은덕으루 제가 경위대원까지 되었지만 전... 전...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나무뿌리처럼 갈퀴진 그의 손을 잡으시고 한참이나 쓰다듬으시더니 조용하나 단호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만덕동무,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동무는 꼭 명사수가 될거예요. 그리고 동무같은 사람이 아

니면 누가 경위대원이 되겠어요. 지난날 우리 인민들은 모두 것처럼 쓰라린 열시와 천대를 받아왔어요. 다시는 그렇게 살수 없어요.》

크나큰 믿음과 용기를 안겨주시는 그 말씀에 목이 멘 만덕은 눈물겹던 지난날을 돌이켜보다가 어머니를 우러러보며 말씀을켰다.

《저... 어머니께서두 어린시절에 지주놈의 머슴살이를 하셨다는게 정말입니까?》

《그래요... 제땅에서 맘껏 농사를 지어보는것이 지난날 우리 농민들의 첫째가는 소원이었지요.

그래서 장군님께서서는 무엇보다도먼저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그 소원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어요.》

《정말 땅을 받은 우리 고향 황해도 농민들이 모두 논판에 었드려 흙을 움켜쥐고 울면서 장군님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왜 안그랬겠어요... 장군님의 이 은덕에 보답하자면 농민들은 농사를 잘 지어 소출을 더 많이 내야 하구 우리 경위대원들은 장군님의 신변을 더 잘 보위해야 할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만덕동문 그 눈을 꼭 고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이튿날 만덕은 의무소로 갔다. 군의는 어머니께서 특별히 분부가 계셨다고 하면서 각별히 관심을 돌려 치료해주었다.

허만덕의 눈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어갔다.

그러던 어느날 소대장이 그에게 정성스레 쓴 크지 않은 통을 주었다.

《이건 건사해두구 조금씩 먹으라구.》

소대장의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이게 뭘니까?》

《보약이요. 만덕동무가 눈이 나쁘다고 하시며 어머니께서...》

《어머님께서요?!》

《귀한 약재들을 손수 모으셨다오...》

이윽고 소대장은 눈을 습벅이며 돌아앉아버렸다.

(어머님!...)

허만덕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보약통을 꺼안고 눈물지었다. 그러면서 그는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대로 천번중 단 한번의 실수도 모르는 명사수가 되어 장군님을 목숨으로 보위하리라 굳게굳게 속다짐하였다...

산들바람이 불어들 때마다 짙은 살구꽃향기가 방안을 가득 채운다. 문인숙은 가슴 울렁이며 생각했다.

(이건 분명 어머니의 신묘한 사격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저인같은 너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아니다. 장군님께 것처럼 충직하시고 전사들을 것처럼 사랑하시는 어머니에 대하여 나는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온것이 아닌가?)

허만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허공 뜬 생각으로

부터 현실적인 느낌으로 돌아온 문인숙은 어머니께서 지니신 감동적인 인간면의 일단을 헤아려보게 된것 같았다. 분명 어머니께서는 허만덕의 군무생활을 두고 남달리 심려하시였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사격에서 《우》를 맞지 못하고 지어는 군복을 벗게 될것 같은 근심까지 했던 그다. 보초근무를 서면서도 거리를 지나가는 처녀들을 볼때면 그의 눈앞에는 행방을 알수 없는 누이동생의 얼굴이 떠오를것이다.

정녕 어머니께서는 수년에 찬 지난 세월에 한 전사가 겪어온 불행을 함께 아파하시며 그의 마음속에서 그들을 가시여주시려고 애쓰시는것이 아닐가.

문인숙은 어머니를 한시바삐 만나뵙고싶었다.

## 2

직일관실에서 전화종이 울렸다. 이어 전화받는 소리가 대기실에게까지 푹푹히 들렸다.

문인숙은 허만덕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처 적어두지 못했던것을 재빨리 수첩에 기록하면서 안방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저 정말 반가운 소식이구만요. 어머니께서야 요새두 그저 까만 무명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다니시지요. 그게 단벌 외출옷입니다. 예, 예... 아, 봄이 아닙니까! 해방된 새봄이지요. 하하!... 어찌다 우리 어머니께서 그런 부탁을 하셨다니 저희들이 다 마음이 풀립니다. 썩 좋지 못하다구요? 그게 외려 낫습니다. 너무 좋으면 어머니께서 반가와하시지 않으실겁니다. 빨리 오십시오. 아, 금순동지야 상점책임자이구 또 옛전우인데 어머니께서 뭘 탓하시겠습니까. 기자선생두 여기서 기다리고있습니다. 곧 오십시오.》

잠시후 중앙경위대상점 책임자인 박금순이 나타났다. 그는 이미 중년의 부인이였으나 활달한 성미였다. 그는 경위대원들과 전부터 친숙한 사이여서 흥허물이 없었다. 기자가 어머니를 방문하는데 대해서 금순은 대찬성이였다.

《참 잘 오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들 없겠소. 정숙동무야 유격대에서두 녀성들의 본보기였지요. 요즘 녀성들의 모임두 지도하구 농촌에도 다니느라 바쁘기야 하겠지만 비위를 쓰고라도 만나서 애길 들어보시우. 원래 기자들이야 사진기를 쳐들면 못가는데가 없구 나서지 못하는데가 없더군요.》

《호호호!... 우리 직업이 그런거랍니다.》

문인숙은 서글서글한 이 녀인이 마음에 들었다.

직일관이 나와서 박금순이 들고온 꽃무늬보자기에 손을 뻗치며 말했다.

《책임자동지, 좀 구경하면 안됩니다?》

박금순은 꾸짖는 표정을 지어보였다.

《이런 버르장머리 보게! 이건 아무데나 펼쳐

놓을게 못된다네. 밤새껏 창고를 서너축 뒤졌구만. 정숙동무한테서 이런 부탁을 받을줄이야…»

《어떤 천입니까?》

《글쎄 우리 창고에 너자옷감이 있는걸 보긴 했는데 어느 구석에 보관했던지 생각이 나야지. 오늘에야 내가 원풀이를 하게 됐구만.》

《원풀이를 하다니요?》

모두들 의아했다. 금순은 회상조로 말했다.

《우리 정숙동무 유격대에 입대한적에 여러군데 기운 잠잠무명치마에 흰 토목적삼을 입고왔라우. 오죽 고생을 하였으면 군복을 입은 다음에도 그 옷을 그냥 버리지 못했겠소. 인젠 해방이 되어 우리 상점에두 옷감이 있는데 정숙동무 아직 나라사정이 어렵다고 새옷 지어입을 생각을 안하는구만… 그런데 어제밤에 갑자기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겠소.》

《정말 잘됐습니다. 어머님께서 이 봄날에 새옷 한벌 지어입으시면 우리두 참 기쁘겠습니다.》

《내 그래서 <원풀이>를 하게 되었다지 않나.》

문인숙은 그냥 서성거렸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범상한듯 말하는 어머님의 일상사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에게는 단 한마디도 스쳐버릴수 없는 보석같이 귀중한것으로만 느껴졌다. 그 보석이 광채를 뽐낼 때 문인숙은 눈이 부시는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것은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무릇 사람이란 사회적처지가 변하는데 따라 자연히 생활적욕구도 달라지는것이라고 그는 생각해왔다. 때문에 그는 한가닥 의혹을 버리지 못한채 박금순의 이야기에 바짝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것이다. 일제때 평양에서 고향으로 간신히 중학공부를 하고 문필생활에 뜻을 두었던 그는 여러 계층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과 사귀어도보고 식민지문인의 설움도 겪어보았다. 그러는 가운데 은연중 그에게는 인간이란 그 누구를 물론하고 명예와 사리, 일신의 부귀와 안락을 크건작건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오히려 그것을 곁에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위선적이라는 제판의 확신까지 품었다. 이것은 낡은 사회가 그에게 가르쳐준 하나의 겹질긴 도덕관이기도 했다.

(《원풀이》를 하겠다는 저 너인의 말이 과연 사실일까? )

그의 이러한 의혹에는 아랑곳없이 박금순은 말을 이었다.

《해방된 조국땅에 와서 고향을 가까이 두고 그냥 지나온 사람이 누가 있겠소? 보통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우리가 함께 조국에 돌아온 초시기, 청진에서 고무산까지 일보러 갔다가 령 하나를 앞에 놓고 되돌아설 때 곁의 사람들이 다 눈물을 보였다우. 하지만 정숙동무는 오히려 우리를 설복하였지요.

<장군님께서 지금 새 조국 건설을 위해 끼니도

휴식도 잊으셨답니다. 제가 어떻게 장군님을 뵈기 전에 고향에 가서 친척부터 찾아보겠어요.>

이 말에 우리는 서로 겨안고 더 말을 못했지요. 산에서 싸울 때 우리 동무들은 조국이 해방되면 고향에 먼저 돌아가 그림던 부모형제부터 만나 보자고 임버릇처럼 외웠지요. 정숙동무라고 왜 친척들이 그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선 아직도 고향에 못가보셨나요?》

문가에 서서 듣고만 있던 허만덕이 불쑥 물었다.

《아직 헤어졌던 일가친척 한분도 찾아보지 못했지요. 일신상의 문제는 늘 뒤전으로 미루는 그 마음속을 나두 아직 다는 모른다우.》

이어 박금순은 어머님의 혁명활동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적지 않게 들려주었다. 문인숙은 바싹 다가앉아 그 모든것을 귀중한 보석처럼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수첩에 적고있었다.

가마니, 마대, 상자 등 후방물자를 가득 실은 화물자동차 한대가 정문밖 길가에 멎었다가 곧 가버렸다. 허만덕이 벌떡 일어나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몸가짐을 단정히 하였다. 그의 긴장된 거동을 보고 모두들 황황히 밖으로 나갔다.

김정숙어머님께서 경위대의 화물자동차편으로 들 일에서 돌아오시었다.

그리 크지 않은 키에 보통 너인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수수하신 옷차림, 별에 그을려 윤기도는 환하고 아름다운 얼굴모습, 다정하고 부드럽게 어루만지시는듯 바라보시는 영채도는 눈… 한 손에는 달래, 냉이를 싼 자그마한 남빛보자기를 드시고 다른 손에는 생생한 진달래꽃가지를 드시었다.

(아니, 어머님께서 화물차를 타고오시다니!)

제판의 의혹이 깨져나가는 순간 문인숙은 어리둥절해졌다. 실로 놀라지 않을수 없는 일이었다. 어머님의 그 평범하신 모습에서는 《전설의 거인》이나 《녀걸》의 엄엄한 풍채같은것은 티끌만큼도 찾아볼수가 없었다. 끝없이 소박하신 몸가짐이 오히려 범상치 않은 인품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이지었다.

박금순이 앞질러 달려가 작은 보통이를 받아들었다.

《정숙동무, 수고했어요. 일요일이여서 좀 쉬는줄 알았더니…》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흰 이가 곱게 드러나도록 환히 웃으시며 말씀하시었다.

《금순동무, 혼자 다녀와서 미안해요. 정말 안됐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사실은 아침에 같이 가자고 알리려다가 상점일이 바빠가봐 혼자 갔었어요.》

《아니 난 조금전에 왔어요. 정숙동무, 내 부탁을 꼭 들어줘요. 다음부턴 일요일에 꼭 휴식해야

해요. 오늘이야 좀 피로도 풀겸 손님도 만날겸 집에 있지 그랬어요.》

금순은 노여움 섞인 어조로 말하며 어머님의 정든 모습을 우러러보는 것이었다.

어머님께서서는 금순의 소매를 다정히 잡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전 피곤하지 않아요. 오늘은 날씨두 정말 좋았어요. 들관엔 아지랑이가 아물거리구 산기슭에서는 뻐꾹새가 종일 울구… 난생처음 제땅에 씨 뿌리는 농민들을 바라보니 우리가 혁명을 한 보람이 느껴지더군요. 얼마전 장군님께서서는 토지를 분여받은 농민들이 기뻐하는 얼굴을 보시니 밥맛이 달다고 말씀하시였어요.》

어머님께서서는 전에없이 즐거워하시였다. 박금순은 그 까닭을 잘 안다. 몸소 들일에 나가셨다가 돌아 오실 때에는 늘 그러하시였다. 농촌에 나가시면 어머님께서서는 농민들과 함께 호미 들고 일하시며 뜻깊은 말씀도 해주시고 실참에는 그들 속에 어울리시여 밭머리오락회에서 혁명가요도 불러주신다. 그것이 어머님에게는 더없이 즐거운 시간이였다.

문인숙이 다가가 인사를 드리자 어머님께서서는 그의 손을 따듯이 잡아주시였다.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는데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안됐어요. 어서 들어갑시다.》

《어머님께서 친히 농사일을 도우시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문인숙은 얼굴에 이렇게 말씀올렸다.

그러자 어머님께서서는 박금순을 돌아보시고 웃으시며 겹혀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어렸을 땐 저두 제땅에 농사를 실친 지어보았으면 하는게 소원이였답니다. 오늘두 농민들과 일찌기 헤어지는게 서운했어요. 참 전번에 기사 선생이 토지개혁에 대한 농민들의 반향을 쓴 기사를 정말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글을 참 잘 쓰셨더군요. 앞으로도 그런 좋은 글을 많이 써주세요.》

《고맙습니다…》

문인숙은 황송했다. 어머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그였다. 별로 크지도 않은 그 기사를 찾아읽으시고 과분한 치하의 말씀까지 해주시니 자기도 언제부터인지 어머님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속에 살고있었다는 행복감이 그를 흥분시켰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어머님을 몸가까이 뵈옵고 지내온듯한 친근감을 느끼면서 그지없이 소박하고 사려깊으신 어머님의 모습을 거듭 우러러보게 되였다.

### 3

아담한 저택의 정원에는 어머님의 근면하신 손길이 느껴지는 온갖 꽃들이 다투어 피어있었다.

울담밑에서는 노랑개나리가 연분홍진달래와 마주 웃고 빨갛빨갛한 복숭아꽃가지는 담장너머로 얼굴을 내밀었다. 집뒤로는 검푸른 상록수들이 군엄한 호위병처럼 드팀없이 둘러섰다. 마당가에 놓인 긴의자결에는 살구나무 한그루가 꽃구름처럼 피어나 부드러운 향기를 풍긴다. 기우는 별이 엇비스듬히 비낀 정원에는 온갖 색깔이 조화되어 밝고 투명한 빛으로 가득찼다.

긴의자에는 작은 손가방과 사진기를 든 문인숙이 조심스레 앉고 그결에 박금순이 보통이를 놓고 앉았다.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만발한 살구꽃을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잠시 서계시였다. 벌들이 극성스레 꽃에 매달렸다가 다시 날아돌며 얼굴을 스치군했으나 어머님께서서는 그것 또한 반가우신 듯 순환번 흔들지 않으시였다.

봄의 숨결, 새봄의 훈향이 마냥 흐뭇하신것인가?...

문인숙은 이런 때 어머님께서 생각하시는바를 아직은 짐작할수 없었다. 그러나 오랜 전우인 박금순에게는 이것이 무심히 지나칠수 없는 순간이였다. 하여 그의 얼굴에는 심란하기도 하고 애절하기도 한 표정이 어려있었다.

어쩌면 이 꽃들이 지금 어머님으로 하여금 오산덕기슭에도 만발했을 고향의 백살구꽃들을 그려보시게 하는것인지도 모른다. 회령강기슭에도 봄이 찾아와 백살구꽃은 구름처럼 피어났으리라. 그리운 고향의 강기슭과 언덕길을 조용히 거닐어 보시는 그런 심정은 아니실가. 혹은 정원에 살구꽃 핀 이 봄날에 헤어졌던 일가친척들의 소식이 라도 문득 날아왔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이 드셨는지도 모른다.

문인숙은 사색에 잠기신듯한 어머님을 우러르며 침묵을 깨뜨리지 못했다.

잠시후 박금순이 조급증을 누르지 못해 말씀드렸다.

《정숙동무, 여기 와서 이걸 좀 보지 않겠어요?》

벌써 긴의자우에는 연보라빛 비단치마감과 눈같이 흰 옥양목저고리감이 펼쳐있었다.

어머님께서서는 곧 다가오시여 옷감을 만져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야, 정말 훌륭하구만요. 어디서 이렇게 났어요? 전에 우린 이런걸 구경두 못했는데… 요즘 처녀들에게 모두 이런 옷을 해입혀서 모란봉으로 데리고 가면 얼마나 곱겠어요!》

그럴수록 박금순은 속이 조마조마한 눈치였다.

《머지않아 모두들 어련히 잘입고 잘살게 되지 않을까요.》

그의 말은 변명하듯 성급히 올렸다.

《아무튼 고마와요. 정말 마음에 드는군요.》

이제야 《원풀이》를 했다고 생각한 박금순은

웃감을 얼른 걷어 보자기에 다시 싸놓았다. 아마도 웃감이 화려하다고 거절하실가봐 지금까지 마음을 조이고있었던 모양이었다.

《자, 그럼 전 가보겠어요. 기자선생이 모처럼 찾아오셨는데… 이번엔 좋은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어머님께서는 방해될것이 없으니 그냥 앉아있으라고 만류하시였으나 박금순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원풀이》를 하고 정문으로 사라지는 그의 걸음세는 날듯이 가벼워보였다.

담뱃 미소지으신 얼굴로 이윽도록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시던 어머님께서는 문인숙에게로 고개를 돌리시였다.

《저 박금순동무가 정말 잘 싸웠답니다. 기사동무가 오겠다고 하기에 금순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

《…젓먹이어린애를 남의 집 울바자밑에 놓고 유격대를 찾아왔지요. 그때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것은 적들과 싸우다가 몸에 입은 상처의 아픔과는 비길수도 없는것입니다. 개울가에 몰래 나가서 불어난 젓을 짜버리는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금순동무는 눈물 한방울 보이지 않았지요. 장군님 모시고 혁명을 하겠다는 그 결심과 의지에서 우리는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문인숙은 감동되였다. 결코 흔치 않은 사실이다. 그러나 함께 싸워온 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면담을 승인하셨다는 어머님의 말씀은 더욱 그를 놀라게 하였다. 아니다. 그 이야기가 아무리 눈물겨운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은 잠시 뒤로 미루어야 한다.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말머리를 돌려 어머님께서 어느 전투에선가 적탄을 몸으로 막아 장군님의 신변을 보위하시였다는 이야기를 방금 금순동무에게서 들었는데 그에 대해 체면하신바를 자세히 말씀해주셨으면 한다고 간청드렸다.

어머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였다.

《경위대원들은 어느 전투에서나 모두 그런 정신으로 싸웠습니다. 금순동무만 보더라도 사령부의 작식을 보장하느라고 어떤 때는 눈속에서 풀뿌리도 캐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밖에도 어머님께서는 차근차근 많은 말씀을 해주시였다. 그 모든것은 전우들에 대한 회상이였다.

문인숙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 접견이 취재의 랑패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마음을 한껏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어머님에게서 자신의 업적을 들으려고 한것부터가 큰 오산이였다는것을 깨달았으나 그렇다고 물러설수는 없었다.

이때 그에게 한가닥 희망을 준것은 아까 박금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땀 떠올랐던 문제였다. 그 문제를 제기하면 취재는 분명 성공적으로 될 것이였다.

드디어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있게 기대를 가지고 정중히 말씀올렸다.

《어머님께서는 아직도 일가친척을 찾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헤어진 경위를 간단히나마 말씀해주시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사진과 함께 신문에 특별히 광고를 내고 싶습니다. 변변치 못한 성의입니다만 신문일군인 저희들이 어머님을 위해 친척을 꼭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깍지깍 두손을 무릎우에 놓으신채 잠시 고개를 수그리시고 생각에 잠기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분명 눈물겨운 어린시절의 일들을 회고하시거나 생리별당한 친척들의 그리운 모습들을 더듬으시는것 같기도 했다.

문인숙은 어머님의 그 애절하신 심중이 헤아려지는듯하여 까딱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다만 그의 손끝이 조심스레 사진기갑의 단추를 살짝 끌러놓았을뿐이였다. 그는 벌써 만발한 살구꽃나무를 배경으로 정원에 서신 어머님의 모습을 어떻게 촬영할것인가 하는 구도를 잡아보고있었다. 정원에 밝게 비쳐드는 오후의 해빛은 사진찍기에도 알맞춤하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고개를 드시고 돌아보시는 어머님의 얼굴에는 그늘이 비껴있었다. 어머님께서는 곧 눈길을 돌리시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저는 어려서 부모를 다 잃은 몸입니다.》

(아!…)

문인숙은 그만 한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굳어졌다. 제판에는 어머님을 위해 좋은 의견을 말씀드린다는것이 뜻밖에도 이런 경망스런 일을 저지르게 될줄이야! 어떻게 사죄의 말씀을 올려야 할지 눈앞이 캄캄할뿐이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준비없이 찾아뵈다보니 이렇게 괴로움을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몸둘바를 몰라하며 문인숙이 말씀올렸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곧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오시였다.

《그게 저 하나만 당한 슬픔이겠습니까. 왜놈들은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씻을수 없는 슬픔과 원한을 남겨놓았습니다. 그게 늘 가슴아프게 생각됩니다.》

어머님께서 허만덕이와 같은 사람들을 녀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피땀 들었지만 문인숙은 내친김에 자기 의견을 거듭 말씀드렸다.

《다른 친척분들은 없으십니까?》

《오라버님 한분이 계셨는데 생사여부를 알수 없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다. 사실 이것은 지난날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어오신 어머님께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리고싶은 해방된 우리 여성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의 어조에는 실로 간절함이 깃들어있었다.

그렇수록 어머님의 얼굴에는 차츰 더 피로움이 가까운 심려의 빛이 어리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문인숙은 의아해졌다.

《어머님께서 사양하시는 까닭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신문의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친척들을 찾지 않았습니까. 저의 생각에는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우리 편집국이 신문의 지면을 아낌없이 바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광고를 내고싶습니다!》

어머님께서서는 이미있는 미소를 보이시었다. 그러나 전과 달리 그 미소속에는 엄숙한 그 무엇이 있었다.

《물론 그것은 대중을 위해서 신문이 좋은 일인 한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지금 장군님께서서는 전체 인민들이 새 조국 건설에 떨쳐나설것을 바라고계십니다. 여기서 신문이 노는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합니까. 그런 신문의 지면을 단 한줄이라도 저의 사사로운 일에 리용한다는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

문인숙은 어머님의 심각한 모습을 우러르며 모아진 두손을 저도 모르게 가슴에 가져갔다. 그것은 정녕 상상밖의 말씀이시였다. 요지음도 신문지상에는 사람찾는 광고가 꼬리를 물고 나가고있다. 편집국에는 감사의 편지도 자주 온다. 해방된 인민의 기쁨이 거기서도 넘쳐나고있다. 누구나가 다 누리는데 이 기쁨마저 어머님께서서는 진정 마다하시는것인가...

문인숙은 부지중 거대한 산악을 안은듯한 가슴 벅찬 느낌속에서 맘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어머님께서서는 너무도 소박하시여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런 비범한 성품을 지니신분이다!)

격동된 그는 잠시후 마음을 진정하고 말씀올렸다.

《제가 어머님의 높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속으로 래일부러라도 당장 박금순과 같은 어머님의 지난날의 전우들을 찾아가서 투쟁이야기를 들으면 취재는 얼마든지 성공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마치 그러한 속생각을 꿰뚫어보시기라도 하신듯 어머님께서서는 문인숙의 손우에 자신의

손을 가볍게 얹으시며 간청하시듯 말씀하시는데 이였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기자선생들을 만나기가 좀 두려웠습니다. 별치 않은 일을 가지고 크게 떠들필요가 뭐 있습니까? 장군님을 목숨으로 보위하고 높이 받드는것은 조선사람의 응당한 도리이고 경위대원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저의 공적으로 되겠습니까. 저에 대해서는 단 한자도 신문에 내서는 안됩니다. 우리 신문은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새 조선 건설에 일떠선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더 많이 소개해주어야 합니다. 장군님께서 그것을 바라고계십니다.》

문인숙은 고개를 숙이고말았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머님께서 거들 당부하시였다.

더는 간청을 드릴수가 없게 되였지만 문인숙의 가슴속에는 숭엄한 감동의 소용돌이가 끓어올랐다. 《전설의 명사수》를 접견하러 왔다가 절세의 위인을 만나뵈게 된 이 감격, 이 영광!

정원에는 저녁빛이 짙어갔다.

문인숙은 어머님의 귀중한 시간을 너무 많이 침범하였다는 죄송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서는 오히려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즐거우신듯 조금도 피로하신 기색을 나타내지 않으시였다.

잠시후 문인숙이 일어나자 어머님께서 시계를 보시더니 오히려 량해를 구하시듯 말씀하시는데 이였다.

《시간이 더 있으면 기자선생과 함께 저녁식사라도 나누어야 하겠는데 안되었습니다. 곧 가보아야 할 일이 있어서...》

어머님의 어조에서 따뜻한 정을 느끼며 문인숙은 몸가짐을 바로하고 말씀올렸다.

《고맙습니다. 어머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이렇게 장시간 만나주신것만 해도 저로서는 더없이 황송합니다. 다만 어머님께 대하여 글을 쓰려고 왔던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것이 매우 아쉬울뿐입니다...》

어머님께서서는 번민에 잠긴듯한 문인숙의 어깨를 다정히 매만져주시며 환히 웃어보이시였다.

《우린 이제 가끔 만나게 될텐데 뭘 그러니까. 다른 훌륭한 기사들을 많이 써주십시오. 나는 기자동무를 보면서 해방된 우리 여성들이 새 조선의 당당한 주인으로 사회정치활동에 맘껏 참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장군님께선 머지않아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 감격적인 날에 우리 다시 만나서 해방된 조선의 여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깊이 의논해봅시다.》

문인숙은 몸가짐을 바로하며 어머니의 밝게 빛나는 얼굴을 다시금 우러러보았다. 자기를 한갓 직업상 문인으로만 생각해왔던 그에게 사회정치활동의 넓은 길을 밝혀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어머니의 은정깊은 손길을 느끼며 가슴이 부풀어오르는 것이었다.

#### 4

편집국의 류다른 기대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발표하지 못하게 된 문인숙의 고민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고결한 뜻을 거역하게 될가봐 광고도 내지 못하였다. 편집국성원들도 그가 겪는 남다른 고충을 이해하자 어머니의 고귀한 품모에 크게 감동되었으나 더는 어찌할바를 모르고있었다. 일부 사람들의 눈에는 취재에서 랑패를 모르던 문인숙이 글을 써내지 못하여 초조감에 사로잡힌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하나 그보다도 문인숙을 괴롭힌것은 성실한 량심의 총동이었다.

구역이나 산업별로 진행되는 녀성들의 모임에 참가해달라는 통지를 받을 때마다 그는 등뒤에서 자기를 내세워주시는 어머니의 믿음에 찬 손길을 뜨겁게 느끼곤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지난날 조선녀성의 량심만 지키고 살아왔을뿐 아무 한일도 없고 사회활동의 능력도 부족한 자기를 그처럼 믿어주시고 내세워주시는 어머니께 무엇으로든 보답해야 한다는 깊은 의리감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다. 흠모의 정은 마음속에 넘치건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길이 없었다.

(어머니께 단 한번만이라도 기쁨을 드릴수 있다면!...)

이런 번민끝에 그는 신문에 광고는 못내더라도 편지를 띄우든가 혹은 직접 현지로 가서 어머니의 친척분들을 찾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면 어머니의 어린시절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알아야만 했다.

그는 어머니의 오랜 전우이며 이미 구면인 박금순을 찾아갔다. 그도 어머니의 친척분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문인숙의 성의를 더없이 고맙게 여긴 그는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민을만한 연줄을 잡아주었다.

《정숙동무가 알면 당장 비판을 하겠지만 저도 계속 찾아보겠어요.》

박금순은 안타까움을 삼키며 말했다.

그러던 어느날 문인숙은 어머니께서 저녁때 한 공장에 나오시여 녀성들의 회합을 지도하시게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그는 무작정 회의장소로 달려갔다.

로동녀성들이 서두르며 밀려드는 불밝은 현관에서 문인숙은 뜻밖에도 경위대원 허만덕의 모습

을 발견하였다.

전과 달리 무척 의젓해진것 같은 허만덕은 사뭇 근엄한 거동으로 현관을 왔다갔다 하며 드나드는 사람들을 주위깊이 살피고있었다.

《만덕동무, 저를 모르겠어요?》

문인숙이 다가서며 이렇게 말하자 허만덕은 대뜸 두팔을 벌리며 반가워서 어쩔줄 몰라했다.

《기자선생이 아십니까? 야 정말 반갑습니다.

어떻게 여길 오셨습니까?》

《어머니께서 나오신다기에...》

《오셨습니다. ...아직두 글을 못쓰셨습니까?》

《일이 참 딱하게 되었어요...》

문인숙은 말그대로 딱한 표정을 짓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허만덕은 그의 소매를 꼬당겨 한 옆으로 데리고 가더니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하는 것이었다.

《기자선생이 그날 더 앉아계셨더라면...》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 애길 좀 들어보십시오.》

허만덕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또다시 허물없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날 문인숙이 저택을 나온 뒤였다. 허만덕은 직일관의 명령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차에 올랐다. 그때까지만 해도 만덕은 어머니를 호위하기 위하여 자기가 파견되는줄 알았다.

승용차는 해질무렵 사람들이 흥성이며 오가는 대통로를 따라 역전으로 달리고있었다. 어머니께서 좀처럼 타시지 않는 승용차였다.

허만덕은 고르로운 차의 동음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의 곁에 정중한 자세로 앉아있었다.

이윽고 김정숙어머니께서 만덕을 돌아보시며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만덕동무, 황해도에 전권대표로 나가있는 우리 동무에게 여러번 부탁을 했더니 어제저녁에야 연락이 왔어요. 그가 만덕동무의 누이동생을 찾았다누만요. 저녁차로 평양역에 도착한대요.》

《예?! 우리 영옥이가 말입니까?》

허만덕이 몸을 솟군채 굳어졌다.

《진정해요... 어제저녁에 그 연락을 받고 당장 만덕동무에게 알려주고싶었지만 너무 흥분해서 밤잠을 제대로 못잘가봐 참고있었어요. 달리 생각지는 말아요... 사리원 어느 공장에서 찾았대요. 몸두 건강해지구 일두 잘한답니다. 우리 경위대에 경사가 났어요!》

《어머님!...》

허만덕은 목맨소리로 부르며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나라 없고 부모 없던 지난날의 온갖 설움이 한꺼번에 가셔지듯 눈물이 마구 쏟아졌다.

어머니께서는 만덕의 갈퀴진 손을 쓰다듬으시



며 거듭 타이르시었다.

《울지 말아요… 오늘은 정말 기쁜날이에요. 이제 장군님께서 돌아오시면 누이동생과 함께 인사를 드리세요. 그러면 장군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머님!…》

나이지숙한 운전수도 흰 장갑 낀 손등으로 눈을 문댔다.

경위대원의 자격이 없다고까지 생각해온 만덕이었다. 보초를 설 때에도 훈련장에 나설 때에도 언제나 어머니의 보살핌속에 살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친척 한분 찾아뵙지 못하진 어머니께서 누이동생을 먼저 찾아주시길줄이야…

《어머님, 제가 뭐기에… 제가 뭐기에…》

만덕은 눈물에 목이 짝 메여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그날저녁 어머니의 방에서는 밤깊도록 불이 꺼지지 않고 고르로운 재봉기소리가 울려나왔다. 아침에 만덕은 어머니의 방에서 나온 누이동생을 보고 놀랐다. 영옥이는 어느덧 연보라빛 비단치마에 눈처럼 흰 옥양목저고리로 화려한 봄명절차림을 하고있었다.

허만덕은 누이동생을 와락 껴안고 눈물맺힌 그 얼굴에 불을 비비며 속삭였다.

《영옥아, 네가 어떻게 그 옷을 입었단말이나. 어머니께서도 일생두고 못입어보신것을… 영옥아!…》

…이야기를 듣고난 문인숙이 눈굽을 닦았다. 허만덕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다.

이제야 문인숙은 어머니의 심중을 깨달았다. 봄날의 아담한 그 정원! 만발한 살구꽃은 어머니를 회령의 고향길로 부르고있었던단 그전에 벌써 어머니의 마음은 눈물에 젖은 전사의 고향길로 영옥이를 찾아 끝없이 달리고있었던것이다. 자신의 친척을 찾는다는 단 한줄의 광고도 신문에 내는것을 거절하신 어머니, 자신께선 아직도 단별 옷으로 소박하게 입고계시는 어머니… 모든것을 동지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강그로 바치시는 어머니의 생애!

(아, 언제가면 어머니께서 지니신 이 고결하신 풍모를 세상사람들에게 소리높이 자랑할수 있을가!)

모름지기 어머니의 깨끗한 생애에서는 그런 일이 용납될것 같지 않았다.

허만덕은 걸그렁해진 목소리로 문인숙의 손목을 잡고 애원하듯 말하였다.

《기자선생님, 죄송한 부탁입니다만 저의 소원을 풀어주시길수 없습니까? 기자선생들은 여러고장으로 자주 다니신다는데 저를 대신해서 어머니의 고향에 한번 찾아가주시시오. 그곳에는 친척분

들의 소식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왜 만덕동무 개인의 부탁이겠어요… 꼭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기자선생님…》

허만덕은 순박한 얼굴에 진정을 담고 손을 꼭 잡았다.

문인숙은 이제 어머니께서 녀성들의 뜻깊은 회합을 지도하시게 될 장소로 엄숙히 걸어들어갔다. 사람들은 현관이 미여지게 모여들고있었다.

×

밤렬차는 목메인 기적소리를 울리며 달렸다. 어머니를 끝없이 호모하면서도 글 한편 써내지 못했고 친척 한분 찾아드리려던 소원마저 이루지 못한 문인숙은 뜻밖의 비보에 접하여 났을 잃은 듯하였다.

얼마나 위대한 인간이 우리결을 떠나가시었는가!…

문인숙은 차창에 기대여 솟구치는 비애를 이기지 못하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가슴아픈 후회가 그를 못견디게 괴롭히었다. 이제금 생각하니 어머니의 혁명투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도 그 모든 일상사와 간단한 면담의 내용만 가지고도 훌륭한 글을 쓸수 있지 않았겠는가고 느껴지는것이었다.

순간 문인숙의 뇌리에는 하나의 문장이 번개치듯 떠올랐다. 걱정에 휩싸인 그는 한밤중 달리는 렬차안에서 희미한 불빛도 아랑곳없이 원고지를 꺼냈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써내려갔다.

《…해방후 첫봄의 어느날, 살구꽃 핀 정원에서 나는 경모하는 어머니를 만나뵈었다.…》

잊지 못할 첫상봉의 그날을 더듬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흘러 창탁우에 놓인 원고지를 적시었다. 그러나 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열정을 기울여 쓰고 또 썼다.…”

렬차가 평양역에 도착한것은 새벽을 기다리는 어두운 시각이었다. 신문사엔 아직 사람들이 없을것이다. 당일호의 편집원도 이제는 쪽잠에 들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원고를 가슴에 품고 신문사를 향해 다우쳐갔다.

가로등도 묵상에 잠긴듯 엄숙히 빛나는 수도의 밤…

숨가빠 달리던 문인숙은 한순간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쳐들었다. 드넓은 하늘에서는 별들이 변함없이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맘속으로 부르짖었다.

(아, 글이나 말로써 어찌 다 표현할수 있으랴. 인민의 심장속에 아로새겨진 김정숙어머니의 고귀한 그 영상은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대를 두고 영원히 살아있으리라!)

## 혁명의 어머니

백 하

충성심-이 말의 뜻은 무한대하다.

아마도 이 말이 갖고있는 그 깊은 뜻과 폭과 열도를 한마디로 표현할 대명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곧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영상을 그려보게 된다.

그 이름은 곧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의 대명사와도 같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참으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하여 생각할 때이면 우리의 눈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그이께서 바쳐오신 가슴뜨거운 충성의 화폭들이 끝없이 펼쳐지며 우리들을 빛나는 위훈으로 고무한다.

나는 얼마전에 한 항일녀투사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 참말로 크나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

그것은 1941년 초봄 눈보라 우는 깊은 밤에 있는 이야기였다.

이 밤 온 밀영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떠나시게 될, 머나먼 원정의 길을 앞두고 크나큰 흥분으로 설레이고있었다.

잠들수 없는 이 깊은 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항일녀투사를 조용히 부르시여 가위를 내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어머니, 저의 머리숱을 좀 슈구어주세요.》

뜻밖의 말씀에 의문이 질린 녀투사는 항일의 눈비속에 그리도 아끼며 자래온 머리태를 슈구다니 그제 웬말이신가고 말씀올리였다.

사나운 눈보라는 잠시도 멎지 않고 밀영의 창문을 흔드는데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신채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이윽고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이제 사령관동지께서 멀리 원정의 길을 떠나시는데 삼엄한 적구에서 언제 신발을 말리우실 짚이 있으시겠어요.

신발바닥이 젖지 않도록 머리태를 잘라 사령관

동지의 신발에 깔아드리려고 해요.》

순간 녀투사는 가슴이 몽클하였다.

흥기하전투와 대사하치기, 황거우밀영에서 사령부로 쏘리는 적탄을 한몸으로 막으시여 사령관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해오신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소부대활동을 몸소 지휘하시기 위하여 출전하시는 사령관동지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머리태를 잘라 한가닥 추위나마 막아드리시려는것이였다.

순간 녀투사는 1936년 4월, 만강의 숲속, 개울가에서 있었던 일이 가슴뜨겁게 회상되였다.

그때 그는 김정숙동지와 함께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있었는데 대원들을 돌아보시려 나오신 사령관동지께서는 강반석어머님께서 남만원정의 길을 떠나시는 장군님의 발이 얼지 말라고 손수 신발에 달비를 깔아주신 감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녀투사의 눈앞에는 그날 장군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며 유난히 빛나시던 김정숙동지의 눈길이 생생히 떠올랐다.

일편단심 사령관동지를 반들어가시는 김정숙동지께서는 강반석어머님의 그 고결하신 뜻을 그대로 이으시려는것이였다.

한없이 숭고한 감정에 휩싸여 김정숙동지의 츠렁츠렁 윤기도는 머리태를 쥐고 가위를 든 녀투사는 그 고결한 충성심에 눈앞이 뻔야니 흐려왔다.

녀투사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끝없이 가위를 놀리였다.

눈보라도 목메여 숨죽여 흐르는 숭고한 밤이였다.

위대한 사랑과 충성이 승엄하게 이어지는 엄숙한 력사의 밤이였다.

《모두 잘라내고보니 머리태가 한줌이 벌었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머리태를 소중히 받아 천 위에 두텁게 고루 펴고 그 위에 다시 천을 놓더니 한뼘한뼘 누비기 시작했어요.

제가 누벼드리겠다고 몇번 말씀드리였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손수 혼자서 온밤 신발 깔개를 만드시였지요.

그래서 날뻗을무렵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의 머리태로 지으신 신발깔개를 출전하시는 사령관동지의 신발에 깔아드렸습니다.》

녀투사의 두눈엔 뜨거운 눈물이 피어있었다.

그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순간 나의 눈앞엔 1932년의 눈보라치는 동만의 토기점굴, 갈밭속의 나지막한 초가집 피창가에서 원정의 길을 떠나시는 장군님의 신발에 깔아드리시려고 손수 머리태를 자르시는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어머님의 숭고하신 영상이 뜨겁게 안겨왔다.

1930년대초에 강반석어머님께서 머리태를 자르시여 장군님의 신발에 깔아드리시더니 1940년대초에는 김정숙동지께서 머리태를 자르시여 사령관동지의 신발에 깔아드리시었다.

강반석어머님의 사랑어린 달비가 깔린 신발을 신으시고 항일무장투쟁의 혈로를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정숙동지의 충성의 머리태가 깔린 신발을 신으시고 조국해방의 진군로를 개척해나가시었다.

오직 한길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신 강반석어머님의 높은 뜻은 김정숙동지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지었다.

강반석어머님께서 등잔불을 돋우시며 장군님의 첫 군복을 지으신 뒤 항일무장투쟁의 긴긴세월 장군님의 군복은 언제나 김정숙동지께서 지으시었다.

장군님께서 친필하신 《새날》신문을 품에 안으시고 강반석어머님께서 넘고넘으신 혁명의 령길을 이어 장군님께서 친필하신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을 품에 안으시고 김정숙동지께서 넘고넘으신 령길은 그 얼마였던가.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강반석어머님께서 첫부녀회조직을 내오신 뒤 김정숙동지께서 무으신 부녀회조직과 녀맹조직은 또 그 얼마였던가.

강반석어머님께서 여름철이면 장군님께서 즐기시는 참나물김치를 늘 정히 담그어주셨다는 이야기를 장군님으로부터 들으신 다음에는 치렬한 전투와 간고한 행군의 그 어려운 정황속에서도 여름철이면 언제나 정히 참나물김치를 담그어 사령관동지께 드리였으니 강반석어머님의 뜻을 따르는 김정숙동지의 깊고깊은 마음을 그 무엇으로 다 헤아릴 수 있으랴.

《뿐만이 아닙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지요.

그것은 해방직후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해방산기슭에 계실 때였습니다.》

너투사는 깊은 감회에 잠기며 이야기하였다.

그가 어느날 점심시간에 해방산기슭의 저택으로 가니 김정숙동지께서 마당한끝에서 손수 장작을 패고계시었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모탕도 없이 장작을 땅우에 세우고 그우에 도끼를 대인채 땅에 내리쪼고계시었다.

한동안 이렇게 나무를 패시여 벌써 손엔 가시가 들고 물집이 생기시었다.

그래서 그는 얼른 굵은 모탕을 구해다놓고 도끼로 팡팡 찍어드리겠다고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용하라고 손짓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지금 장군님께서 책을 읽고계십니다. 장군님의 사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리가 나지 않게 장작을 패려고 그래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러시면서 가시가 든 손으로 도끼를 쥐시고 계속 땅우에 장작을 내리쪼으시었다. 도끼날은 차츰차츰 장작을 가르고 내리박히었다.

너투사는 뜨거운 감격에 젖어 서있었다...

그 말을 듣는 나의 눈앞엔 안도현 흥룡촌의 깊은 밤, 학교 부엌 아궁앞에 앉으시여 방안에서 책을 보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방해가 될가봐 소리가 나지 않게 나무를 치마퓌에 싸서 꺾으시며 불을 때주시는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어머님의 기록하신 영상이 눈시울 뜨거이 그려지었다.

아, 김정숙동지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은 어쩌면 그렇게도 강반석어머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은 그대로 련상시키는가.

나는 생각하였다. 그것은 바로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어머님께서와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어머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시는 그 마음이 그 누구도 미칠수 없는 가장 높은 최고의 절정에서 일치한것이라고.

그렇다,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는 정녕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어머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혁명의 어머니이시다.

오늘 이 강산엔 향도의 해발이 찬란히 빛발치고있다.

해와 별 빛나는 위대한 시대에 이 빛나는 계승, 이 력사적진리를 확인하고 노래하며 우리의 영원한 신념으로 길이 전해가는것은 얼마나 의의있는 일인가!

강반석어머님을 따라배우며, 김정숙어머님을 따라배우며 충성의 노래 높이 향도의 새시대를 빛내여가는것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긍지높은 일인가!

진정 김정숙동지께서는 강반석어머님의 생전의 뜻을 이어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고 충성의 한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드신 김정숙동지의 무한한 충성심은 오늘 우리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간직되어 영광의 투쟁으로 부르고있다.

우리는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어머님의 생전의 뜻을 이어,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동지의 생전의 뜻을 이어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기어이 끝까지 완성할것이다.

# 혁명투쟁의 위대한 진리를 밝혀주는 불멸의 형상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의 종자에 대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는 혁명의 위대한 진리를 밝혀주는 그 심오한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으로 하여 반세기의 오랜 세월이 흘러간 오늘도 오가자에서의 그날과 같이 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격동시키고있으며 그들을 혁명투쟁의 한길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는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성황당》 등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 문예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어있는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혁명투쟁에서 문학예술이 노는 거대한 인식교양적역할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불멸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한 혁명적문학예술의 고전적본보기를 마련하시여 우리 문학예술의 만년초석으로 되는 혁명적문예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몸소 마련하신 빛나는 혁명적문예전통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더없는 자랑이고 영광이며 끝없는 행복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몸소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예전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데것을 주체적인 문학예술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아가야 할 기본방침으로 내세우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에 옮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지도밑에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등이 영화와 가극, 소설로 옮겨지고 《성황당》과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각각 연극과 영화로 훌륭히 옮겨졌다.

우리 당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에 옮기는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몸소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예전통을 확고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였을 뿐 아니라 영화와 가극, 연극과 소설 등 문학예술전반에 걸쳐 일대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주체예술의 찬란한 대전성기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주체문학예술의 무궁한 번영과 더불어 인류문예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에 그대로 옮기는 사업은 매우 어렵고도 책임

적인 사업이다.

그것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전면적으로 빛나게 구현한 것으로 하여 사상성에 있어서나 예술성에 있어서 최상의 완벽성을 이루고있기때문이다.

우리 당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에 옮기는데서 원작에 무조건 충실할것을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원작의 종자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므로써 이 어렵고도 방대한 역사적 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에 심어진 무게있는 종자는 명작의 고상한 사상성뿐만 아니라 사상성과 예술성의 조화로운 통일을 조건지으며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주체시대가 새롭게 제기한 인간학의 근본문제인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문제도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인 자주적인 인간의 형상도 바로 원작의 심오한 종자에서 싹트고 꽃피어 열매를 맺고있으며 혁명적문학예술의 역사적뿌리도 바로 이 의의깊은 종자에서 시원되고있다.

이리하여 원작의 종자를 똑바로 찾아쥐는것은 원작의 심오한 형상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에 그대로 옮길수 있는 근본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역사상 처음으로 문학예술작품의 생명과도 같은 종자를 발견하고 독창적인 종자리론을 창시하였을뿐 아니라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의 종자를 뚜렷이 밝혀줌으로써 원작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사상예술적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손색없이 그대로 살려나갈수 있는 근본열쇠를 마련해주었다.

우리 당이 밝혀준바와 같이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의 종자는 나라잃고 가난한 인민에게 차례지는것은 고통과 슬픔뿐이며 투쟁만이 살길이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지집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것은 조국입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는 우리 인민의 머리에 당국의 비운이 드리웠던 1920년대말~1930년대초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이 시기는 우리 인민이 일제의 식민지노예로서 생사존망의 기로에서 헤매던 민족비운의 암담한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피바다에 잠긴 조국과 수난에 몸부림치는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진두에 거연히 나서시어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역사적인 카툰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과학적으로 규정하시고 주체적인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역사적인 카툰회의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소 카툰, 고유수, 오가자를 비롯한 넓은 지역에서 농촌을 혁명화하기 위한 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시기를 반영하고있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는 머슴군의 딸인 주인공 꽃분이와 그 일가의 비극적운명을 통하여 나라 잃고 가난한 인민에게 차례지는것은 고통과 슬픔뿐이며 오직 투쟁만이 살길이라는 혁명의 위대한 진리를 폭넓고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그리하여 작품은 계급해방, 민족해방을 위한 혁명의 필연성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항일무장투쟁로선의 정당성과 위대성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확증하고있다.

지금까지 역사의 대상으로만 되어온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자기 운명과 역사를 개척해나가는 역사의 새시대인 주체시대가 새롭게 제기한 인간문제, 민족적억속과 계급적억압을 반대하고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처음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심오하고도 완벽한 사상에술적해답을 준 바로 여기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의 위대성과 독창성, 그 불멸의 사상에술적가치가 있다.

참으로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의 종자를 나라 잃고 가난한 인민에게 차례지는것은 고통과 슬픔뿐이며 투쟁만이 살길이라고 밝혀준 우리 당의 방침은 명작의 형상적특성을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분석한데 기초하여 원작의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그대로 살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준 가장 과학적이며 탁월한 방침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의 종자에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은 무엇보다도 작품이 내세우고 해결한 주제와 사상에 의하여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는 그 어떤 정성이나 동정으로써도 결코 꽃분이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의 비극적운명을 구원할수 없다는 문제를 주제로 내세우고있다.

우리 당이 밝힌바와 같이 또한 이 작품에서는 당시 조선의 농촌이라면 어디에서나 볼수 있었던

한 머슴군가정이 겪는 불행과 고통을 주인공 꽃분이의 생활과 그의 인정심리세계를 통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그려냄으로써 혁명만이 살길이라는 심오한 사상을 밝혀내고있다.

작품이 내세우고 해결한 이러한 사상주체적내용에는 사람이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할수 없으며 민족이 자주권을 잃어버리면 민족의 존엄도 조국의 독립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가 심오하게 구현되어있다.

이로부터 작품은 꽃분이일가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의 근본화근도 바로 일제의 강점에 있으며 따라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찾고 인간의 자주성을 지키려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짓밟는 일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반제자주사상을 심오하게 밝히고있는것이다.

이처럼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는 작품의 심오한 종자를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전면에 뚜렷이 내세우고 그것을 의의깊게 밝혀낼수 있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의 종자에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은 또한 주인공 꽃분이와 그 일가의 비극적운명을 통하여 더욱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우리 당이 가르친바와 같이 종자는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밝혀진다.

종자를 직접 구현해나가는 기본인물은 주인공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의 주인공 꽃분이의 형상은 당시 조선인민이 당하고있던 민족수난과 계급적고통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는 전형적성격이며 생활속에서 투쟁만이 참된 삶의 길이라는것을 깨우친 자주적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빛나는 상징이다.

꽃분이는 일제에 의하여 당시 조선인민에게 들췌워진 온갖 불행과 고통을 한가슴에 안고사는 불쌍하고 가련한 처녀였다.

한평생 머슴을 살다가 악독한 지주놈의 등쌀에 생죽음을 당한 아버지, 머슴살이에 골병이 든 불쌍한 어머니와 눈마저 빼앗긴 가엾은 어린 동생, 빛아닌 빔때문에 대를 물려 머슴을 살다가 죄없는 죄인으로 일제경찰에게 끌리워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오빠-이것이 바로 일제와 지주놈이 판을 치는 악착스러운 당대사회에서 꽃분이에게 차례진 비극적운명이였다.

정녕 애어리고 연약한 처녀의 작은 가슴에 반아안기에는 너무도 가혹하고 잔인한 현실이였다.

그러나 꽃분이는 아직 자기 일가의 운명우에 들췌워진 이 무서운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에는 너무도 순진하고 천진란만 하였으며 이 설움을 강요하는 원썬놈들에게 항거한다는것은 더구나 상상조차 할수 없는 소박한

치너였다. 그는 꽃과 같이 아름답고 깨끗하였을 뿐이다.

그는 이 맑고 깨끗한 마음속에 애오라지 사랑하는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는 애절한 소원을 안고 방울방울 꽃잎마다 피눈물을 담아가며 슬픔의 꽃, 설움의 꽃, 효성의 꽃을 팔고 또 팔아간다.

그러나 지성이면 돌에도 꽃이 핀다 하였건만 악착스럽게 그지없는 현실은 연분홍빛 꽃잎처럼 가냘프고 연약한 애어린 처녀의 한가닥 이 소박한 소원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사람으로서는 차마 못당할 기막힌 천대와 멸시를 다 참고 이겨가며 한송이 또 한송이 꽃을 팔고 또 팔아 그 작은 손안에 한일두일 모은 돈으로 그렇게도 정성들여 약을 마련했건만 야속하게도 그 약 한첩 받아보지도 못한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말았다.

불행과 슬픔은 쌓이고 덧쳐 사랑하는 오빠와 동생마저 잃게 되었을 때 그처럼 순진하기만 하던 처녀의 가슴에도 원쑤에 대한 증오와 항거의 정신은 소리없이 짙고 무섭게 자라났다. 그리하여 처녀는 마침내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강요한 지주놈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맞서나선다.

가슴이 터지도록 원한은 사무치고 분노는 불타올라도 어떻게 해야 원쑤를 쳐엿앨수 있을지 알지 못했던 꽃분이는 마침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혁명군이 된 오빠 철용이의 사상적영향밑에 점차 혁명의 진리를 깨닫고 참된 삶의 길,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된다.

희망에 넘쳐 기쁨에 차서 붉은 꽃뭉치속에 《불세위크》, 《농우》 등 혁명적출판물들을 한가득 담아안고 사람들의 가슴속에 혁명의 꽃씨앗을 뿌려가는 꽃분이의 승고한 모습은 그 얼마나 뜨거운 혁명의 열정과 삶의 희열로 차넘치는것인가.

꽃분이는 참으로 몰라보게 달라졌다.

그의 가슴속에 맺히고 서렸던 눈물의 꽃, 원한의 꽃은 마침내 희망의 꽃, 혁명의 붉은 꽃으로 활짝 피어난것이다.

이처럼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피는 처녀》**는 주인공 꽃분이와 그 일가의 피눈물나는 생활을 통하여 나라 잃고 가난한 인민에게 차례지는것은 슬픔과 고통뿐이며 오직 투쟁만이 살길이라는 작품의 종자를 훌륭히 꽃피우고있다.

특히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옮긴 예술영화 **《꽃피는 처녀》**에서 **《꽃분아, 우리가 왜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하는지 너는 아직 다는 모를게다. 그것은 우리에게 나라가 없는 탓이다. 원쑤 왜놈들과 배지주같은 놈들이 우리 조선사람들을 못살게 굴기때문이다.**

꽃분아, 나라 없는 민족의 슬픔이 이렇다, 나라 없는 민족의 슬픔이...》라고 하는 철용이의 대사에서 주인공일가가 겪는 비극적운명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작품의 종자가 무엇인가 하는것이

뚜렷이 암시되어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피는 처녀》**의 종자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은 특히 인정심리극적인 작품의 독특한 양상에서 형상적으로 빛나게 실증되고있다.

작품의 양상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은 종자이며 또한 종자를 독특한 형상으로 꽃피우는데서 양상은 중요한 작용을 한다.

우리 당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피는 처녀》**를 영화로 옮기는 과정을 지도하면서 작품이 심리적이며 철학적이여야 한다고 밝혀주었다.

우리 당은 또한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피는 처녀》**를 가극으로 옮기는 과정을 지도하면서 노래가 관중을 울리지 못하면 작품에 제기된 사상주제적 과업을 옹계 해결할수 없다고 하면서 관중을 어머니의 죽음장면에서만 울리려고 할것이 아니라 가극전반에서 울려야 하며 처음부터 마감까지 심리적으로 파고들어가야 한다고 밝혀주었다.

이것은 원작의 종자로부터 필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작품의 인정심리극적이며 철학적인 양상적특성에 대한 가장 정확한 규정으로 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피는 처녀》**는 우선 주인공 꽃분이와 그 일가의 비극적인 생활과 함께 어머니와 자식들사이에 벌어지는 눈물겨운 생활과 아름다운 인정선을 깊이 파고들므로써 철학적 깊이가 있는 인정심리극적작품으로 되고있다.

애오라지 병든 어머니의 약을 구하려고 갖은 천대와 멸시를 참고 견디여가며 효성의 꽃을 팔아가는 꽃분이와 순희의 꽃보다도 고운 그 마음, 비록 자신은 골병이 들어 죽을지언정 딸자식에게만은 종살이를 시키지 않으려고 죽음과 싸워가며 머슴살이를 하는 불쌍한 어머니...

작품에는 천대와 억압속에 혈벗고 굶주리는가운데서도 주옥같이 빛을 뿌리고있는 주인공들의 고결한 정신도덕적풍모와 아름다운 인정세계가 참으로 기쁘지고 풍만한 예술적화폭으로 감명깊게 펼쳐지고있다.

그리하여 관중들은 그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동정해서만이 아니라 그 모진 고통속에서도 그처럼 웅심깊게 자식을 사랑하며 지성을 다해 어머니를 모셔가는 그 고결하고 가룩한 인정세계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게 되는것이며 그 아무리 참담한 비극적처지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만은 짓밟히지 않으려는 그들의 고매한 정신적지향에 고무되어 그들과 함께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되는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피는 처녀》**는 또한 주인공들의 비극적인 감정세계를 일관하게 파고들면서 감정조직을 기본으로 하여 극을 감명깊게 조직해나가고있는데서도 인정심리극적인 양상적특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인공들의 감정세계를 긴장과 완화,

축적과 폭발의 흐름으로 펼쳐보이면서 성격의 본질을 정서적으로 드러내는 감정조직을 기본으로 하여 극을 조직하고있다.

작품은 우선 전반부에서 꽃분이가 꽃을 팔지 않으면 안되는 기막힌 사연을 형상적으로 보여주면서 일관하게 비극적인 감정을 축적해나가고있다.

이렇게 축적된 비극적인 감정은 것처럼 사랑하는 동생 순희가 대추 한알, 산삼 한뿌리때문에 그 악착한 지주놈에게 눈을 빼앗기게 되는 장면과 어머니의 죽음장면에서 더욱 고조되면서 눈물없이 볼수 없는 극적대목을 이루고있다.

우리 당은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극적대목을 이루는 어머니의 죽음장면에서 강한 극적감정을 불러일으키자면 아이들이 우는것만으로는 안되며 생활과 감정을 계속 축적시켜 고조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었다.

여기서 순희가 거리에 나가서 꽃을 파는 장면, 꽃분이가 순희에게 《우리 암만 가난해두 거지가 아니야... 언니는 천대반구 엽심을 받으며 꽃을 팔지만 넌 그런짓을 해서는 안돼.》라고 말하는 장면, 특히 꽃분이와 순희가 약을 사가지고 오는 장면에서의 감정조직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당에서는 이 장면에서 감정축적을 잘 주려면 그들이 돌아오던중 비를 맞고 나무밑에서 오돌오돌 떨고있는 장면을 주어 불쌍하고 가련한 어린것들의 운명만을 보여줄것이 아니라 순진하고 천진관만한 그들의 량만적세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혀주었다.

그리하여 영화에서는 어머니를 살릴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으로 하여 꽃분이와 순희가 꽃도 꺾고 웃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그들만이 주고받을수 있는 량만적인 꿈을 활짝 펼쳐보여주었다.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또한 사랑하는 오빠를 찾아 700리길을 가는 꽃분이의 형상을 통하여서는 오빠가 반드시 살아있으리라는 기대를 주고 마을로 돌아오는 꽃분이의 형상을 통하여서는 사랑하는 동생 순희가 기다리고있으리라는 기대를 주고있다.

이러한 감정축적이 있음으로 하여 관중들은 꽃분이가 오빠가 죽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장면과 순희가 잃어진 장면을 보면서 저런 가슴을 안고 슬픔의 눈물, 동정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것이다.

이리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피는 처녀》는 주인공들의 비극적인 감정선을 섬세하게 깊이 파고들어 등장인물들의 행동선에서 감정조직을 잘함으로써 종자의 요구에 맞게 심리극적인 양상적특성을 살리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피는 처녀》의 종자에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은 또한 작품이 혁명적대작으로서의 사상에술적풍격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데서도 뚜렷이 볼수 있다.

혁명적대작의 특징은 작품의 규모나 형태적특성에 있는것이 아니라 사상적내용의 철학적심오성과 사상에술적완벽성에 있다.

우리 당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피는 처녀》를 혁명가극으로 옮기는 과정을 통하여 규모가 대작을 규정하는것이 아니라 내용이 대작을 규정한다는 독창적사상의 정당성을 힘있게 확증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피는 처녀》는 방대한 력사적사건을 줄거리로 하는 큰 생활내용을 담고 있는것이 아니라 한 머슴군 일가가 겪는 불행과 고통, 한 평범한 인간의 성장과정을 통하여 착취받고 압박받는 근로인민대중은 혁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대한 사상을 심오하게 밝히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피는 처녀》가 이처럼 규모는 크지 않으나 내용에서 대작으로, 사상에술적으로 완벽한 혁명적대작의 본보기로 된것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줄수 있는 종자, 철학성을 띤, 심오한 사상을 밝혀낼수 있는 종자를 심고있기때문이다.

참으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형태들에 옮기는 거창한 력사적위업의 성과적수행과정은 원작의 심오한 종자를 뚜렷이 밝혀주고 그것을 그대로 살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준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과 위대성을 빛나게 확증해준다.

우리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와 불분불휴의 정력적활동에 의하여 우리 문학예술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예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해결되었으며 백두성산에서 뿌리내려진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은 마침내 오늘 찬란한 대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우리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문학예술의 앞길에는 끝없는 번영과 더욱 빛나는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혁명적자부심을 안고 우리 당이 주체문예사에 높이 쌓아올린 영생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고수하고 빛내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리론분과

## 나는 어떻게 큰 《집》들을 짓게 되었는가?

최학수

지난날 억눌리고 짓밟히며 천대받던 무권리한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 운명과 나라의 주인으로 사회를 변혁하고 자연을 변모시키는 력사의 지배자, 시대의 거인으로 되고있는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는 우리 인민의 생활실태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제날 토성랑의 거지소년들이 웅장화려한 궁전을 짓는 건축가로, 력사의 한 순간에 락원의 도시를 일떠세우는 기적의 창조자로 되는것쯤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북반은 우리 세상에서는 개개인의 운명에서 일어난 그러한 기적적인 변화를 흔히 볼수 있는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는 이러한 운명적변화를 나는 단편소설 《해빛 밝은 나라》와 장편소설 《평양시간》에 반영하고자 했고 또 그렇게 하였다. 두말할것도 없이 물론 이 크고 작은 두편의 소설은 다 집짓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흔히 문학사자들이나 문학연구자들은 작품의 주인공이자 곧 작가이기도 하다는 말들을 하군한다. 이것은 물론 조건적인 이야기지만 무근거한 얼토당토않은 말 같지 않다. 작품의 주인공들의 형상에는 그것을 창조한 작가자신의 생활체험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끼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나의 지나온 생활은 물론 《해빛 밝은 나라》나 《평양시간》의 주인공들과 많은 점에서 다르지만 또한 생활처지와 운명에서 기적적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많은 류사성을 가지고있다.

나는 그들과 같은 토성랑태생도 아니고 그들만큼 비참한 유년시절과 소년시절을 흘려보내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도 두간오막살이집에서 태여났고 나도 고향집의 앞내에 풀잎배를 띄우며 떠다니는 배집을 몽상해보았는가 하면 허기진 배를 수수깡부기나 오막살이처마끝에 달린 누런 고드름으로 달래도 보았고 달속의 계수나무를 옥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지어볼 꿈도 꾸어보았었다. 그러면서도 현대의 문명세계와는 암매한 벽촌에서 책과 글, 전기불 현란한 집들과 궁전들, 웅장화려한 도시와 유원지따위는 이 세상에 있다는것조차 모르고 살며 자라났다.

그러나 건축가 리정환이나 문화린, 평양건설자상철이나 오월이한테서와 같은 운명의 기적적인

변화가 생겨 나도 지금은 그들처럼 나의 부모들은 꿈꾸어보지도 못했고 또 꿈꾸어볼수도 없었던 큰 《집》을 짓는 사람으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우수한 작가, 예술인들을 더 많이 키워야 합니다.》**

나는 지금 작가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있다.

《작가》라고 하는 이 명사의 두 글자를 글자뜻 그대로 고스란히 옮겨 풀이한다면 그것은 《집을 짓는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호칭이다.

건축가들처럼 작가들도 《집》을 짓는것임에 틀림없다. 건축가들이 짓는 집과 작가들이 짓는 《집》이 다른 점은 그것이 벽돌이나 볼로크로 짓는것이 아니라 언어라고 하는 비물질적건축재료로써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형상적인 집을 짓는다는데 있을것이다. 즉 작가는 움직이지 않는 물질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살아움직이는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건축물-특수한 미학정서적인 건축물을 창조하여낸다는것이다.

세상에 이처럼 특수한 《집》을 짓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것은 고사하고 도대체 두간오막살이집에서 나서 우리 글도 모르고 자란 까막눈의 내가 어떻게 오늘날 아무나 함부로 손쉽게 지어낼수 없는 그런 큰 《집》들을 지어낼수 있게 되었는가?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베풀어진,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운 혜택이 나에게도 생활에 대한 온갖 근심걱정을 모르고 맘껏 배우고 맘껏 자기의 희망을 꽃피울수 있게 해주었다는데 대하여서는 새삼스럽게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있으리라 생각한다.

나의 주인공들처럼 나도 그리고 나와 같은 세대의 우리 나라 사람들모두가 례외없이 누구나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복된 삶을 축복받았기때문이다. 지난날 나자신이 쓴 몇몇 수기들과 거의 모든 크고작은 소설들은 사실상 그에 대하여 말해온셈이다.

하지만 나에게에는 누구한테나 베풀어진 그런 크나큰 어버이수령님의 혜택외에도 남달리 유별히 받아안은 당의 혜택이 따로 겹쳐져있었다.

나에게 작가적소질이 있다는것을 헤아려보고



작가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교육을 시켜주고 작가들과 항시적으로 접촉하며 창작적능력을 키울수있는 조건을 마련하여준 어머니당!

소설을 창작해본 경험이 아직 많지 못했던 내가 거대한 산악같은 장편창작에 접어들었다가 그 산악의 가파로운 비탈길을 절반도 올라 못보고 뒤돌아서려 했을 때 그 봉우리에 기어이 올라서도록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고 떠밀어주고 앞길을 헤쳐준 영광스러운 당중앙!

실로 예지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지도와 따사로온 보살핌이 없었더라면 처녀작 장편이나 다름없었던 《평양시간》의 완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었을것이다.

평양건설에서 이룩된 천리마적인 비약을 예술적인 대화폭속에 재현할만한 능력도 의지도 자신심도 없었던 보잘것없는 풋내기작가였던 내가 그 장편의 창작을 중도반단하다싶이하고 락심천만해서 포기하려는 나약한 생각을 품고있던 1972년 9월,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우리 전국의 작가들을 한자리에 불러주고 거기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해방후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세대의 작가들이 이제는 당당히 자기 위치를 차지할 때가 되었다는 매우 고무적인 귀중한 가르침을 주었다.

그것이 장편의 산악앞에서 기가 질려 뒤걸음치려던 나에게 어떠한 신념과 용기를 주었던가를 회고할 때 지금도 가슴이 후터워진다. 나는 구급차에 실려 지방도시의 병원침대에 가서 누워있는 순간에도 그 고무적인 가르침을 되새기고는 약봉지여백에 채 쓰지 못한 장편의 글줄들을 써나갔다.

그렇게 쓴 글이 이번에는 나의 소심성과 미숙성 때문에 현실생활의 갈등을 대담하게 독창적으로 취급하고있지 못하는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광휘로운 예지의 빛발로 나의 눈과 지혜를 튀워주고 나의 심장에 대담성을 심어주었다.

1974년 12월 6일 당중앙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예술적으로 더 훌륭한 문학작품을 많이 창작해내기 위하여서는 생활을 미화분식할것이 아니라 대담성을 발휘하여 진실하게 반영하며 독창적으로 개성적으로 형상할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었다. 이것은 우리 문학에서 고질

적으로 습성화되어왔던 묵은 때를 벗기고 작가들의 창작생활을 혁명문학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일신하는데서 거대한 전환점으로 되었다.

그 현명한 가르침을 통하여 자기가 처음이다싶이 짓고있는 커다란 《집》이 어디가 부실하고 어째서 변변치 못한가를 날날이 깨닫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야 비로소 그것이 좀 서투르게나마 자기 모양새를 갖춘 《집》다운 큰 《집》으로 완성될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비단 그 한 작품의 창작행정에만 머무르는것이 아니다. 그 작품에 이어 보다 더 어려운 장편소설을 맡아 완성하게 되기까지의 기간에는 작품의 종자와 구성, 개별적인 인물형상에 대해서는 더 말할것도 없고 구체적인 세부에 대해서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었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나의 작가적능력을 더 한층 높이 키워주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이와 같은 현명하고도 세심한 지도와 따뜻한 보살핌은 지금 완성의 마지막 고비에 들어선 작품창작의 전과정에도 시종일관 깃들여있다.

지난날 두간오막살이집에서 태어난 까막눈의 가난한 농부의 자식이 오늘날 웅장화려한 건물은 아니라 해도 그것대로 자기나름의 특수한 사용가치와 심미감을 주는 커다란 《집》들을 변변치 못하게나마 능히 지을수 있게 된것은 어디까지나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창조의 지혜를 주고 힘과 용기를 주면서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고 떠밀어주고 보살펴주었기때문이다.

그리고 그 미숙한 《건축물》들이 적으나마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올리고 근로인민대중에게 가치있는 정신적재부로 될수 있었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가르쳐준대로 붓을 들고 형상의 꽃을 활짝 피웠기때문이다.

아직까지 세상이 거의나 알고있지 못하는 그 많은 가슴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 짧은 글에 다 옮길수 있겠는가.

아마 그 이야기들만으로도 장편소설의 부피를 넘을 그런 글을 쓰게 될것이다.

변변치 못한 나의 건강을 넘려하여 귀중한 장생불사의 보약을 포함한 대를 두고 길이길이 전해도 잊지 못할 가지가지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준데 대한 이야기들까지 합친다면 몇권의 장편부피될 글을 쓰게 될지 알수 없다. 나는 그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들을 쓰는것을 가장 신성한 필생의 과업으로 삼고있다.

## 2월의 봄눈을 맞으며

리종렬

2월의 봄눈... 축복의 꽃보라인듯 온 조국강산을 하얗게 뒤덮으며 흩날려내리는 첫 봄눈!

올해 봄눈은 레년에 없이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깊은 감회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인가 창광거리와 산원앞거리, 인민대학습당앞 광장, 창광원과 빙상관이 웅장화려하게 솟아있는 보통강유보도들에서 명절차림을 한 사람들의 물결이 흥성거리며 굽이치고있다. 얼굴얼굴마다 봄눈을 한껏 맞으며... 행복에 넘친 어린이들의 얼굴, 명상에 잠긴 지식인들의 얼굴, 패기와 정열에 넘친 로동청년들의 얼굴들에서 흘러내리는 이슬은 눈식임물만이 아니다. 뜨거운 감사의 눈물인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기간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올바른 지도와 두려운 배려 밑에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당중앙의 향도 따라 우리 조국은 얼마나 영광찬란한 승리의 길을 걸어왔는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은 오늘 얼마나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는가! 또한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은 얼마나 높은 상상봉으로 치달아올랐는가. 어느 누구나 지나날을 돌이켜보고 오늘의 행복을 생각하면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사랑의 품속에서 자기 운명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자신이 얼마나 성장하여 보람찬 삶을 누리게 되였는가를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는것이다. 나 역시 그렇다.

십여년전 제대군관의 배낭을 메고 문학창작이라는 막연한 공상을 품고 작가동맹으로 찾아왔을 때 나는 몇편의 단편소설밖에 발표하지 못한 애송이 문학지망자였다. 그때 나에게 있는 밑천이란 문학창작에 대한 정제되지 못한 열정뿐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자기의 단편소설집과 중편소설, 장편소설들을 가진 작가로서 문학대오의 전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힘차게 걸어나가게 되었다. 려행길에 올라 급행렬차의 옆자리에 앉은 광부가 자기 소설책을 펼쳐든것을 보았을 때 평양 지하철도에서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대학생처녀가 어느 소설책을 읽고있는것을 열거에 보았을

때 나 역시 우리의 문학동료들처럼 《저자의 불안》과 함께 문득 북받쳐오르는 당중앙에 대한 감사의 정에 목이 메이군한다.

참으로 우리 주체문학의 획기적인 발견, 우리 매개 작가들의 성장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우리 문학을 공산주의적 인간학의 높이에 끌어올렸으며 문학발전의 독창적인 방침들을 제시하였을뿐아니라 작가들의 창작과 생활의 구석구석을 보살펴주었다. 선발된 몇몇 작가들만이 아니라 모든 작가들이 당중앙의 은혜로운 해발을 끌고루 받으며 자라왔다. 뛰어난데가 없는 문학대오의 보통병사인 나의 경우도 같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나에게도 더 바랄것이 없는 훌륭한 창작조건을 마련하여주었으며 가정생활도 문화적으로 할수 있도록 온갖 육친적인 배려를 다 돌려주었다. 나의 단편집과 중편소설, 장편소설들도 당중앙의 세심한 지도와 관심속에서 출판되였다. 우리 작품들의 모든 글줄들에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얼마나 크나큰 로고가 깃들어있는가를 사람들은 다는 모를것이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우리 작가들모두가 《졸장부》가 되지 말고 인류사적의의가 있는 주제도 마음대로 다룰수 있는 큰 작가, 세계적인 작가가 되라고 소심한 심장들에 대담성을 불려넣어주며 세기의 대공을 날수 있는 비약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세계고전과 세계의 현대문학예술을 파악할수 있는 특별한 가능성을 마련하여주었으며 공화국의 모든 부문들에 내려가서 취재활동과 현지체험을 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을 마련하여주었다. 그리고는 우리가 써온 작품들이 난관이 없이, 파오가 없이 출판되도록 자애로운 스승의 심정으로 세심하게 보살피며 예지가 번쩍이는 조언과 지도를 아낌없이 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지도로 하여 죽었던 작품들이 살아나서 형상의 꽃을 활짝 피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 작가들은 패기만만한 청춘의 활력으로 문학운동의 장엄한 진군속에서 보무당당히 걸어나가게 되었다.

그뿐아니라 당중앙은 작품이 창작과정에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을 때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까지 받는 특혜까지 우리들에게 베풀어준다.

우리 지구상의 어느 좌표에서 《영원한 수공업》으로 알려진 작가들의 창작로동이 이렇듯 국가적인 중대사로 떠받들리우는 경우가 있겠는가!

이 모든것은 우리 문학운동이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진행되고있는 행운을 지녔기때문이다.

때문에 우리 작가들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우러러 우리 주체문학의 위대하고 자애로운 스승이라고 꾸밈없이 말하는것이다.

축복의 봄눈이 조국강산에 하얗게 흘날려내리는 이날 나는 자신이 쓴 몇권의 책들의 무게를

마음속으로 가늠해보며 뼈아픈 가책에 몸부림치게 된다. 말로써는 다 표현할수 없는 당중앙의 사랑과 배려에 비할 때 나는 얼마나 무책임하게 그리고 경솔하게 쓰고있는가!

나의 심장은 얼마나 작게 뛰고 나의 사색과 정서는 얼마나 저조한것인가.

나는 사람들의 물결이 굽이치는 거리로 나간다.

그리고 희디흰 축복의 봄눈을 얼굴에 한껏 맞으며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침착하게 쓰리라. 한자 한자에 충성을 담아 작품의 글줄들을 써나가리라 맹세다지며 위대한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우러른다.

## 오산덕의 달

리종덕

한결을 한결을 오르는 내 마음속에  
너도 마중해 미끄러져오는가  
구름처럼 피어난 백살구꽃밭우에서  
끝없는 생각의 바다를 가는  
아, 오산덕의 달이여

호박꽃 따서 꽃초롱 만들던  
동요시절이 깃들 사이도 없이  
어머님 고향 떠나 오산덕을 내리시던 밤  
너만은 차마 못두고  
걸음걸음 안고가시였던가

설음 많던 부암마을에도 걸려있었지  
어머님과 함께 매돌을 돌고돌며  
울분속에 구름발을 헤매이던 달  
야학길에 나서시면  
기다린듯 앞서 걷고  
돌아오실 때에도 길동무하더니  
혁명의 첫걸음을 걸으시던 그 밤부터  
마음속까지 환히 밝히며  
어머님 걸음걸음 따라서던 달이여

아, 천만년 밤을 밝힌 달이라더만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던 그 밤처럼야  
밝아온적 있었으랴  
밀림처럼 설레이던 크나큰 감격으로  
온 밤 잠 못드시던 어머님 마음처럼  
이갈숲 우듬지에 밝고밝던 달이여

그 밤부터 사향가 부르시며

그리운 만경대로 마음 실던 둥근달  
혁명의 수만리 길 눈비는 사나왔어도  
어머님 마음속엔 그 언제나 밝았어라

단 하루 마음속에 지워본적 없으시리  
장군님 모시고계실 때에는  
사령부 천막가에 걸어놓으시고  
장군님 품을 떠나계실 때에도  
장군님 우러러 띄우셨어라

광복의 수만리 길 걸으시여  
조국땅에 돌아오신 그날에는  
어머님 달도 안고오시였어라  
해방연의 축등처럼  
해방산언덕에 휘영청 밝던 달이여!

아, 어버이수령님 백두산의 길을 이으시며  
밤이 없이 새조국땅을 걸으실 때  
어머님 띄우시였던 달은 또 얼마이라  
그래서 이 산천엔 그 어데서나  
기쁨의 바다를 헤엄치는 행복의 달  
그래서 이 강산엔 밤이 와도  
밝고밝은 락원의 달

아, 어머님은 천만년 흐르던 달도  
위대한 수령님 우러르는  
충성의 달로 높이 띄우시였어라  
해와 별이 빛나는 락원의 하늘가에  
어머님 생각의 바다를 가고가는  
오산덕의 달이여!

## 한떨기 이름없는 꽃에도

백현우

향기롭고 빛갈 고운 꽃은 드물다. 향기로운 꽃에는 빛갈이 부족하고 빛갈 고운 꽃은 대체로 향기가 신통하지 못하다. 향기롭고 빛갈 고운 꽃을 실로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몇떨기의 그 꽃만 가지고서는 드넓은 대지와 이 땅의 사시장철을 장식할수 없다. 개개 꽃송이의 아름다움은 만발한 화원의 아름다움을 당할수 없으며 이 세상의 모든 꽃은 따사로운 햇빛과 자양분을 주는 어머니대지가 있어 피어나는것이다.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손길아래 주체문학예술이 대화원으로 활짝 꽃피어났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인류문화의 새로운 부흥을 위하여 주체문학예술의 대화원을 가꾸어온 과정은 평범한 노동자, 농민, 병사, 사무원들과 그 자식들을 재능있는 창작가, 연주가, 이름있는 배우들로 키우며 친어버이사랑을 베풀어준 감격의 나날이기도 한것이었다.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이 지금까지 인류문예사가 알지 못하는 눈부신 성과와 발전을 나날이 이룩하고있는것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와 따사로운 손길아래 사람마다 마음껏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피우고 있기때문이다. 향기도 없고 빛갈도 없는 이름 없는 내가 오늘 주체문학예술의 작가라는 영예를 지니고 서있을수 있게 된것도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자애로운 손길이 있었기때문이었다.

× ×

나의 아버지가 작가라는것을 알고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의 영향으로 문학공부를 하게 되었을것이라고 말할 한다. 내가 아버지한테서 문학적영향을 받은것은 사실이었으나 나의 부모들은 나더러 자연과학자가 되라고 하였었다.

글을 쓰느라고 자주 밤을 밝히군하는 아버지의 건강때문에 늘 걱정인 어머니는 철부지 어린 시절 언젠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었다.

《넌 이다음에 아버지처럼 글을 쓰느라고 그러지 말고 다른 일을 하려무나.》

철 들어가며 내가 문학책만을 읽기 시작하자 부모들은 소설책을 보는것도 좋지만 기억력이 좋은 때 수학공식 하나라도 더 많이 외워두라고 권고했다.

상급학교 진학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아버지는 밤깊어 나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다.

…박사가 되기를 원해 의학을 공부하던 사람은 평범한 의사가 되어도 조국과 인민을 위해 복무

할수 있다. 의사도 못되고 준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는 준의로서 사회를 위해 얼마든지 유익한 일을 할수 있다. 하지만 작가공부는 그렇지 못하다. 글쓰는 재간을 배우려다 작가가 못되면 애써 배운 모든것이 아무 쓸모 없어지고만다. 무엇을 배우든지 저만 재간있으면 얼마든지 글을 쓸수 있으니 자연과학부터 공부하라. 이것이 너의 발전을 위해서도 유리하고 혁명에도 더 잘 복무하는 길이라고...

그러나 친부모들도 못미더워하며 하찮게 여긴 문학에 대한 나의 꿈을 소중히 여겨주고 키워준 것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손길이였다.

나는 어려서부터 당중앙의 따뜻한 가르침과 은정깊은 사랑을 받아안은 남다른 영광과 행복을 지니였다.

철부지 인민학교시절 언젠가 교원은 국어시간에 우리들더러 동요나, 동시, 작문중에서 아무것이나 마음에 드는것을 쓰라고 했다. 나는 이때 일생 처음으로 동요를 써보기 시작했다. 글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나는 동요를 쓰다 말고 동시를 쓰기 시작했다. 동시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난생 처음으로 동요와 동시를 써보다가 어느 하나도 제대로 끝맺지 못했던 이날 나는 너무나 분에 넘친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았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서툰 글씨로 쓰다 만 나의 동시와 동요를 보아주는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었다. 영광스러운 당에서는 내가 어느 하나도 제대로 끝맺지 못한채 얼버무려놓은 원고를 보고 글이란 생각나는대로 써서는 안되며 잘 쓰자면 무엇을 말하겠는가 하는 알맹이부터 잡아야 한다는것을 하나하나 따듯이 깨우쳐주었다. 글이라고 하기보다 글자 쓰는 법을 갓 배우기 시작한 인민학교 철부지의 습작마저 친히 보아주는 당중앙, 혁명의 후대들을 귀중히 여기어 사람들의 재능을 아껴주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사랑과 배려에는 끝이 없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급중학교에 들어가던 때 나는 남모르게 《민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보았었다.

아버지가 쓰다 만 원고지뒤등에 생각나는대로 적어놓은, 문맥마저 제대로 통하지 않는 유치한 이글은 내가 난생 처음으로 써보는 단편소설이였다. 아버지가 작가였지만 나는 내 일생의 첫 습작품을 아버지한테서 지도받지 못했다. 같은 또래의 문학소년들에게도 보이기 창피스러운 이 첫 습작품을 보아준것도 영광스러운 당중앙이였다.

당중양에서는 유치하기 그지없는 나의 첫 습작품을 보아주고 《꼬마문학가》라는 분에 넘친 칭찬을 하였고 이다음에 꼭 훌륭한 작가가 되라고 나의 장래를 축원해주었다.

영광스러운 당중양의 이 고무와 격려에 우리 시대 사람들의 희망과 소원, 재능을 활짝 꽃피워 주어 조국의 미래를 가꾸려는 커다란 뜻이 담겨져있었다는것을 깨달을수 있는것은 세월이 켜 흘러서였다.

× ×

수업시간에 교원의 지시를 받고 의무감에 의해서 인민학교시절의 망칙한 습자와 글이 무엇인지 동서남북조차 모르면서 막연한 욕망에 극적거리였던 고중시절의 유치한 습작품마저 당중양의 지도를 받는 남다른 영광과 행복을 지니었던 나였건만 나의 창작재능은 너무도 따라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욕망 하나만으로는 어쩔수 없는 창작의 길이었다.

배움의 최고전당에서 전문창작교육까지 받았으나 나는 창작기량이 어런 탓에 작가대렬에 인차 들어서지 못했다. 작가적인 기량과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못하고 내가 글을 못쓰는것이 전문창작기관에 있지 못하기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어리석게도 나는 작가대렬에만 서면 남만큼 글을 쓸수 있다고 믿었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창작기관에 가려고 애를 썼다.

영광스러운 당중양에서는 어머니마냥 나의 이 응석마저 헤아리고 가까이 불러주었다.

이날 영광스러운 당중양에서는 전문창작을 하고 싶어하는 나의 소원을 풀어주면서 글을 쓰되 좋은 글을 써야 한다고 고무격려해주었다.

당중양의 은정깊은 사랑과 배려를 받아안은 나는 온 하늘을 얻은듯한 심정이었다. 실로 바다보다 큰것은 하늘이라지만 하늘보다 큰것은 영광스러운 당의 품이었다.

이때부터 나는 소원대로 전문창작가의 대렬에서 마음껏 글을 쓸수 있게 되었다. 바라던 모든것이 뜻대로 되었던만 창작만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나는 밤을 밝히며 글을 썼으나 써놓은 글들은 내자신이 보고도 얼굴을 붉힐 정도로 불품없고 설익은것들이었다. 나는 이때에야 창작의 진통이 어떤것인가를 비로소 처음으로 체험하기 시작하였다고 할수 있다.

내가 피롭게 모대기던 1972년 9월이었다.

영광스러운 당중양에서는 우리 문예총산하 창작가들을 불러주었고 우리들의 창작과 생활에서 걸린 고리를 하나하나 깨우쳐주면서 우리 문학의 양양을 위한 현명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었다.

영광스러운 당중양의 가르침을 가슴뜨겁게 받아안던 이때에야 나는 내가 창작에서 걸린 고리

가 무엇인가를 뼈아프게 깨달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가지고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을 깊이 탐구하며 창작예술적기량을 높여 혁명적인 문학 예술작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당중양에서 그때 우리 창작가들에게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라고 깨우쳐준 귀중한 가르침은 내가 창작부진에서 벗어날수 있게 하는 열쇠였을뿐아니라 일생동안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할 강령적지침이었으며 문학의 귀중한 좌우명이였다.

나는 지금까지 주무르던 낡은 원고몽테기를 내버린채 이천-세포사이의 새 철길건설장으로 달려갔고 청년돌격대원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 덕에 나는 첫 중편소설을 쓸수 있었다.

이 중편소설이 발표되었을 때 나는 첫 자식이 태어나던 때보다 더 기뻐다. 하지만 그 기쁨은 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병신자식을 받아안은 부모의 심정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중편소설에는 내가 나라의 동서부를 새롭게 연결하는 《청년이천선》철길건설장에서 받아안았던 감격과 흥분이 너무도 적게밖에 반영되어있지 않았다. 나의 첫 중편에서는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키던 청년돌격대원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이 가슴뜨겁게 느껴지지 못했으며 고미탄계곡에 흘러넘치던 그들의 혁명적량만과 풍부한 정서가 생동히 안겨오지 못했다. 메마른 장작개비같은 첫 작품을 내놓은 나는 부끄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나는 나의 첫 작품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양에 기쁨을 드리지 못한 기본원인이 작가로서의 생활부족에 있다는것을 괴롭게 자책하지 않을수 없었다. 나는 첫 작품을 출판에 넘기면서 창작의 새로운 양양을 위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정든 평양을 떠나 황철의 로동계급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가족들을 데리고 철의 도시로 이사했다.

영광스러운 당중양에서는 나의 중편소설이 발표되었을 때 작가자신마저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책을 보아주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또다시 베풀어주었다.

1977년말이었다. 평양에 출장왔던 나는 당조직에서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조직에서는 나에게 큼직큼직한 활자로 찍힌 하나의 타자문 사본을 내주면서 너무도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영광스러운 당중양에서는 중편소설 《젊음을 자랑하라》가 출판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소설의 내용을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드리는 크나큰 영광을 베풀어준것이였다.

나는 분에 넘친 영광을 받아안고 꿈을 꾸는게

아닌가싶어 슬며시 내 손을 마주비었다. 내 손에서는 땀에 축축히 젖어 흥분으로 떨리는 손의 촉감이 느껴졌다. 분명 꿈이 아니었다.

나는 너무도 벅찬 감격과 흥분으로 가슴이 터질듯 높뛰었다.

그로부터 얼마후였다. 1978년 새해를 맞으며 나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선물과 함께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소설에 대한 강령적가르침을 주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또다시 접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나의 증편소설이 발표되었다는것이 보고되던 그 시기로 말하면 년말을 앞두고 바쁜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한해 사업을 결속지어야 하는 그 바쁜 때였건만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이름없는 시인이 쓴 미숙한 작품을 보아주고 귀중한 가르침을 주는 은정깊은 사랑을 또다시 베풀어주었이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소설과 관련하여 작품의 사상적내용은 좋으나 생활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었다. 생활을 깊이있게 그럴데 대한 가르침은 나의 창작의 새로운 리정표였을뿐아니라 문학에서 생활철학의 깊이를 보장하며 우리 문학예술을 보다 높은 양양으로 이끌어주는 강령적지침이기도 하였다.

×

나는 너무나 행운아였다. 해놓은것은 하나도 없이 사랑과 배려만을 받아안았다.

문학에 대한 나의 꿈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품속에서 움터났고 연약하고 애어린 그 싹은 당중앙의 자애로운 손길아래 자라 꽃피었다. 아무런 재능도 없는 내가 작가로 될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고마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자애로운 품이 있었기때문이었다.

나를 작가로 낳아키워준 문학의 어머니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이었으며 문학일생의 매 걸음걸음을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는 자애로운 품도 위대한 당이었다.

사람들의 정신적인 성장과 재능을 꽃피워주는 사랑보다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다. 모든 사람들의 희망과 꿈을 귀중히 여겨 미미한 재능마저 활짝 꽃피워주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당중앙.

이름없는 노동자, 농민, 사무원들과 그 자녀들이 박사, 작가, 명배우들로 자기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는 우리 나라.

정녕 우리 나라의 모든 기적적인 발전들과 문학예술의 대화원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자애로운 은덕속에서만 만발하는것이다.

## 첫자옥

김정철

우리는 왔다  
길없는 수림속에 길을 열며  
아슬한 산벼랑 깊은 골짜기에  
우리는 찍는다  
새 발전소건설장의 첫자옥

어서 정들자 낯설은 산천아  
먼길을 가자면  
이해의 첫자옥부터 깊이 찍어야지  
성미 급한 계곡의 강물우에  
그 누군가의 손풍금소리

굴착기는 벼랑을 툴아올라  
강철의 긴팔을 휘젓는다  
천년암반에  
착정기는 무쇠의 발굽을 짚고  
하늘 멀리 새들을 날리며  
산발을 뒤흔든다 첫 발파소리

아 수령님 구상이 펼쳐지는곳이면  
당중앙이 불러주는 그곳이면  
어디나 먼저 가는 청춘의 첫자옥

강줄기를 돌리며  
우리의 의지는 강철로 억세지고  
언제를 쌓으며  
우리의 담력은 산악처럼 넓어져라

꿈도 많아 우리는 청춘  
노래도 많아 우리는 청춘  
조국의 대자연을 길들이는  
우리는 수령님의 근위대  
당중앙의 돌격대

그 영예 그 자랑으로  
당이 부르는곳이면  
남먼저 찍어간  
청춘의 첫자옥

세월은 흐르고  
청춘시절은 끝나도  
이해의 첫자옥은  
시대의 대기념비로 솟아 영원하리라  
어머니조국과 함께  
행복한 후손과 함께

# 젊은 당비서

## 1

나무잎들이 바람에 설렁대는 소리가 그 무슨 속삭임처럼 간간이 들려왔다. 밤이 깊어 공장구내의 온갖 소음이 잦아든 이런 때면 그 음향은 더 똑똑히 때로는 너무도 선률적이어서 신비롭게까지 들린다.

주형진은 서류들을 정리하다 말고 어린 아들한테서 온 편지를 꺼내들었다. 달포전에 받아본 것이었으나 래일 아침차로 출발을 앞둔 지금 어쩐지 아들을 보고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이었다. 그는 편지를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읽어 나갔다.

.....

아버지, 어머니는 내게 또 말했어요. 당비서는 자기보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구. 그래 난 걱정이 돼요. 아버지가 당비서루 있는동안은 아버지하구 고기잡이를 영 못할게 아니예요.

형진은 저도모르게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아버지, 그곳엔 연두모치들이 없지요?... 등이 가뭇하구 배에 연두빛줄이 간것말이에요. 난 개울에서 고기를 잡아 말렸었어요. 이사가면 아버지한테 구워드릴려구요. 보쌈에 연두모치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난 보쌈을 농구 개울가의 풀밭에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 기다리다가 그만 까딱 졸았었어요. 갑자기 목덜미에서 설그적거리는바람에 기겁스레 털어보니 사마귀가 아니겠어요. 그놈이 풀잎사귀에서 내 잔등으로 바라올라 혹시 나한테 정말 사마귀가 없나 하고 찾아보던것 같어요...

난 연두모치들이 오글대는 보쌈을 집에 가지구 갔어요. 뒤집 철호에게 절반 주고 나머지는 어머니보구 말리자구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웃으며 두부에 맛있게 볶아주겠다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생각을 영 안해요. 그래 난 사다리를 타구 지붕에 올라가서 고기를 펴놓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내가 학교에 갔다가 저녁에 집으루 오니까 우리 집 주위에서 까치들이 분주히 날아들지 않겠어요. 온 마을의 까치들이 다 모인것 같어요. 철호네 할머닌 늘 까치는 반가운 손님을 알려준대서 난 아버지가 왔나 하구 기뻐했어요. 하지만 집마당에 들어서니 아버지 안왔구 까치들이 지붕에서 연두모치를 물어가느라고 야단이겠지요.

## 백남룡

내가 아무리 주먹을 휘두르고 소릴 쳐도 그것들은 꿈쩍도 안해요. 바구니를 가지구 지붕에 올라가보니 몇마리밖에 안남기군 다 물어갔어요. 아버지, 그렇지만 일없어요. 내가 또 보쌈을 놓겠어요...

편지는 학습장을 뜯어낸 종이에 연필로 지워지길라도 할가보아선지 꼭꼭 박아쥔다. 글자마다에 한껏 정성을 기울였으나 서투른 솜씨는 어찌는 수 없다. 이마를 맞대고 엎어지려는것들이 있는가 하면 뒤로 금시 자빠지는 글자들이 있고 또 어떤것은 갑갑한듯 우로 빼어져달아나려고 한다.

모양도 성질도 다른 그것들은 렬차의 바곤들처럼 달라붙어있어 문맥을 가늠하기가 수월치 않다.

그러나 주형진은 어떤 재능있는 화가의 그림이라도 감상하는것처럼 편지를 오래동안 세심히 들여다본다. 아들은 자기 생활의 취미와 단순한 심정을 그렸으나 주형진의 애정과 상상력은 보다 많은것을 읽고있었다. 그의 앞에는 멀리 산간도시에 두고온 가정이라는 아늑한 화폭이 떠오르고 집안의 산뜻한 향취마저 느껴지는 것이었다.

여러장으로 된 편지를 접던 그는 맨 뒤장밀에서 안해의 활달한 필체를 보았다.

전, 우리가 인차 이사를 하게 된다는 소식을 당신이 써보내지 않은것이 몹시 서운하군요. 당신은 어찌면... 영구가 늘 아버지소리를 하는데... 편지야 할수 있잖아요.

언제나 다소곳하고 말이 적은 안해의 소박한 불만이였다.

형진은 자기가 분망한 사업으로 하여 두달이 어느새 흘러갔는지 몰랐건만 안해와 아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것을 서둘러 깨달았다.

(몹시 기다렸겠지... 그런데 이젠 회답두 필요 없게 됐군.)

형진은 아들의 편지를 양복안주머니에 넣었다. 집에 가서 이사짐을 꾸리는 틈시간에라도 아들에게 철자법과 띄어쓰기를 가르쳐주고싶은 것이었다.

(그런데 누가 집에 편지했을까?... 참, 사람들 두...)

형진은 두달동안 주위사람들의 신뢰와 믿음과

기대 속에서 사업해온 나날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회고해보았다. 비록 그의 거처는 사무실과 합숙방이었지만 수백명노동자들의 기쁨과 희망, 미래가 있는 공장은 그에게 뻔해야 뻔수 없는 하나의 살뜰한 가정으로 느껴졌다. 그래서인지 당분간 떠나게 되는데도 어린 자식을 혼자 남겨두는것 같은 걱정스러움을 덜수 없었다.

형진은 허전해지는 마음을 달래기라도 하려한 듯 담배를 피워물고서 창가에 다가섰다.

밤의 서늘한 대기속에서 구내의 나무들이 줄고 있었다. 검푸른 공원술너머로는 공장의 보이라굴뚝이 우뚝 솟아서 별들이 총총한 밤하늘을 흰 연기로 수놓고있었다.

숨털갈기도 하고 엷은 명주천갈기도 한 저열탄 연기는 형진에게 가슴뿌듯한 긍지감을 안겨주었다. 고열탄대신 이고장에서 캐는 저열탄을 보이라에 때도록 한것은 형진이가 모나게 해놓은 일종의 하나였다.

문득 형진은 저녁에 구내공원의 풀밭길을 걸어 오던 열관리공청년이 생각났다. 그는 구겨진 작업복을 입고 얼굴을 수군한채 동무들 뒤에 멀찍이 떨어져서 오고있었다. 청년은 마주오는 당비서를 보자 슬그머니 길을 바꾸어 공무직장쪽으로 가더니 거기엔 들어가지 않고 에돌아서 보이라쪽으로 가는것이였다.

(왜 그랬을까?... 출근할 땐 늘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다녔는데... 참 그 동무의 이름이 뭐더라?...)

알듯말듯 하면서도 생각나지 않는다. 한두달 사이에 공장의 그 많은 노동자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수는 없는것이지만 형진은 화가 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공장에서 제일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동무의 이름을 모르다니...)

창밖에서 승용차가 잠투정질이나 하듯 부르릉 거리는바람에 형진의 사색은 깨여졌다. 발동소리는 그 누구를 깨울가봐 근심되는지 숨소리처럼 가늘게 울리더니 곧 꺼졌다. 운전사가 승용차를 미리 마당에 세운 모양이다.

(이 동무가 아직 퇴근하지 않았나?... 고집이 여간 아닌데.)

책들과 서류들을 마저 거두어서 철함에 넣고난 그는 간소하고 규모있게 정돈 된 방안을 주인다운 눈으로 다시한번 살피고나서야 밖으로 나섰다.

달빛이 짙은 그림자를 던진 굵은 방울나무옆에는 《갱생》 승용차가 정문쪽으로 앞머리를 돌린채 서있었다.

여느때같으면 키가 크고 인상좋은 운전사가 승

용차결에서 서성거리며 그를 기다렸을것이였으나 지금은 어쩐지 조용했다. 어둡시근한 운전칸에 앉은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운전사도 피곤한 모양이다.

형진이가 가까이 가자 차문이 기다렸다는듯 소리없이 열리였다. 형진은 한손으로 차문을 부여잡은채 컴컴한 운전칸에 대고 툭툭한 어조로 말했다.

《동문 왜 집에 가지 않았소? 응!...몇번 말해야 알겠소?》

《.....》

《몸이 편찮은 년로한 어머니가 동물 얼마나 기다리겠소. 내야 일때문에 늦는건데... 합숙이 그리 먼것도 아니잖소.》

형진의 말에서는 진정한 노여움이 쌀쌀한 바람처럼 풍기였다.

《허허, 비서동무, 운전사동무가 오늘은 <잘못>을 시정했습니다.》

《?!...》

뜻밖에도 운전칸에 모자를 쓰고 꿈쩍 않고 앉아 있던 사람은 지배인이였다.

두사람은 마주보며 한참 웃었다.

눈물이 찔끔 나도록 실컷 웃고난 지배인은 운전사의 모자를 벗고 풍채좋은 몸을 움직거리며 차에서 내리였다. 그의 흰머리는 달빛그늘속에서도 은회색으로 광채를 띠였다.

《비서동무, 내 오늘은 단단히 버리고 왔습니다. 혹시 래일아침차로 떠난다는걸 잊은거나 아십니까?》

《그렇리야 있습니까.》

《노여워하진 마시우. 난 사실 비서동무가 이번까지 집을 양보하구 안가면 공장당위원회에서 정식안건으로 문제를 제기할려구 했뎡습니다.》

《거참, 어마어마한데요. 당비서가 공장에 발을 붙이기도전에 개인생활문제로 취급당하다니...》

형진은 짐짓 놀란빛을 지으며 웃었다.

《내가 운전사를 시켜 집에 편지까지 했는데 가지 않으면 안되지요.》

《!...》

형진은 고마운 눈길로 지배인을 건너다 보았다. 지배인은 형진을 당일군이라기에서보다 십오년이나 이 공장에서 토배기일군으로 일해오는 주인으로서 도리상 경리과의 누구보다도 젊은 당비서의 생활은 자기가 응당 관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것이였다. 그러나 형진은 지배인이 자기 손으로 배당해놓은 집의 입사증을 량부모를 모시고있는 자재공급원에게 주었다. 그 다음, 다층주택의 2층집은 결혼한지 며칠밖에 안된 공무직장의 선반공청년을 들게 하였다.



그리하여 지배인은 당장 어찌는수 없이 합숙에 독방을 꾸리라고 경리과장에게 과업을 주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직접 합숙에 나가 온돌을 짚어 보고 이불두터이도 만져보았다. 취사원한테는 당비서가 식사시간에 제때에 오지 못하면 밥을 사무실에 날라오던가, 아무튼 따끈한걸로 차려놓으라고 재삼 당부했고, 그러는사이에 새 주택이 완공되었던것이다...

지배인이 승용차발동을 걸려는것을 형진은 한사코 막았다.

《지배인동무의 운전기술은 내가 잘 압니다... 달도 밝은데 함께 걸어갑시다.》

지배인은 하는수없이 당비서를 따라섰다. 그는 이렇게 걸어가는것이 공장에서 그닥 멀지 않은 자기 집으로 가장 빨리 가게 된다는것을 미처 생각지 못했다.

두사람은 엿물처럼 누르스름한 달빛속으로 길다란 그림자를 끌며 공장정문을 지나 행길쪽으로 걸어갔다. 그들이 주고받는 두런두런 말소리는 밤의 고즈넉한 대기속으로 퍼져간다.

화제의 주인은 지배인이었다. 그는 출장갔던 자재과장의 활동력있는 숨씨를 말하더니 며칠전에 본 소설이야기를 했다.

형진은 생각에 잠겨 듣기만 하였다. 공장과 멀어질수록 그의 발걸음은 무거워지었다. 풀밭길로 오다가 그를 피하던 열관리공청년의 그늘진 얼굴이 떠나지 않고 마음을 괴롭히는것이였다.

언뜻 형진은 언젠가 그 열관리공청년을 만났던 일이 떠올랐다.

...형진이가 공장에 온지 며칠 안되는 어느날 아침이였다. 비구름을 실은 바람이 세차게 불어치고있었다.

공장에 들어서던 형진은 그만 놀라서 걸음을 멈추었다. 수리개도 동지를 틀었다가 날아가버린 아찔하니 높은 보이라굴뚝꼭대기에 웬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있는것이였다. 바람에 사정없이 날리는 옷자락은 당장이라도 그를 공중에서 떨어버릴것만 같았다. 형진은 손나팔을 하고 힘껏 소리쳤다.

《동무!- 썩 내려오지 못하겠소?!》

굴뚝꼭대기의 사람은 한참만에야 밑에서 애타게 소리치는 사람이 새로 온 당비서인줄 알아보았는지 굴뚝에 박힌 쇠사다리를 잡고 엉금엉금 내려왔다. 한길쭈 높이에서 훌쩍 뛰어내린 그는 옷에 먼지를 툭툭 털고 형진에게 다가왔다. 보이라 화실앞에서 만난적이 있는 열관리공청년이였다.

《이름을 어떻게 부르오?!》

《마성남이라고 합니다.》

《이것 보오. 성남동무, 굴뚝이 뭐 중학교마당의 체육기체인줄 아오?》

《.....》

《그러다 탄내를 맡고 자칫 떨어지면 어쩔려구...》

《비서동지... 굴뚝으로 열이 나갑니다. 뜨거운 열기가...》

《?!...》

그제야 형진은 청년의 손에 쥔 하얀 온도계를 보았다. 가슴이 뭉클해났다.

《그것이 아까와 올라갔됐단말이요?...》

《비서동지, 보이라 내굴길안에 폐열잡는 <열기>를 하나 더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림군다운 생각이요.》

그날 형진은 미더운 청년의 발기를 공장속보관소에 내게 하였다. 그리하여 며칠만에는 굴뚝으로 나가는 열이 더는 없게 되였다...

형진은 지금 열관리공청년의 이름을 제때에 생각해내지 못한것이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데서 오는것임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비서동무, 무슨 생각을 그리 합니까?》

지배인이 화제를 돌리며 묻자 형진은 솔직히 말했다.

《마성남이란 열관리공을 생각했습니다.》

지배인은 걸음을 멈추더니 저으기 미안쩍은 표정으로 형진을 쳐다보았다.

《그녀석이 비서동무한테두 찾아왔겠습니까?》

《나를... 찾아오진 않았습시다...》

형진의 말에는 진정 서운한 어조가 풍기였다.

당비서의 이야기를 다 듣고난 지배인은 놀란빛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원, 옷차림과 얼굴을 보구 그렇게 알아맞추다니요... 옳습시다. 사실 성남이한테 일이 좀 생겼지요.》

《?》

《초저녁에 마성남이가 나한테 왔었습니다. 종이마리를 쥐고 쭈뼛거리며 들어서기에 무슨 일인가구 물었지요.》

《지배인동지, 보이라불판을 개조하고싶어서 왔습시다. 슬라크가 불판에 자꾸 엉켜붙어서...》

《불판을말이요?》

나는 의자가 아니라 뜨거운 불판을 깔구앉았들기라도 한것처럼 벌떡 일어섰습시다.

《성남동무, 오늘이 며칠인줄 아오?》

《23일입니다.》

《이달이 한주일밖에 없다는걸 알면서 그러누만. 밤낮 보이라를 뜯었다 맞췄다 하다나면 생산은 언제 하겠소?》

《.....》

<창안도 경우를 보아가면서 해나가야지... 글썽 내 동무 심정은 알만하오. 땀흘리기를 좋아할 사람이 어데 있겠소?...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쇠장대질을 하는걸 보람으로 생각할줄도 알아야지. 그런 힘든 모퉁이에 어깨를 들이미는게 청년들이 아니겠소.>

...그랬더니 모자를 꼭 눌러쓰고 돌아서 나가더군요. 심사가 개운치 않은게지요. 하지만 어찌겠습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구 봐야겠는데...》

지배인은 담배를 꺼내물었다. 어둠속에서 잘락하며 켜진 라이타불은 지배인의 주름많은 걱정스러운 얼굴을 불그스레 드러냈다.

《성남동무는 이 지방태생이 아니잖습니까?》

형진은 나직이 물었다.

《작년에 대건설지원이 있을 때 사리원에서 왔습니다. 일맛은 일본 청년이지요.》

《지배인동무, 아무래두 우리가 저열탄을 땀다고 너무 일찍 만세를 부른것 같습니다.》

《비서동무, 사실말해서 우리 공장 보이리가 남만 못한건 없습니다. 재처리와 급탄공정만 봐두 그만하면 종합적기계화는 됐다고 볼수 있지요.》

《.....》

형진은 더 말을 꺼내지 않았다.

두사람은 한동안 묵묵히 걷기만 하였다.

사택마울과 합숙쪽으로 갈라지는 길목에 이르자 형진은 걸음을 멈추었다.

《비서동무, 합숙이 아직두 먼데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참 지배인동무두... 자꾸 그러면 아예 잔소리 많은 늙은이로 인정하구말겠습니다.》

《그편이 옳지요. 비서동문 이제 겨우 열살잡이 아들이 있지만 난 벌써 손주가 있단말입니다.》

지배인은 껄껄 웃었다. 그러더니 정색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두 비서동무 나이때 보니까 안해는 내가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고스란히 밥상을 차려놓은채 기다렸습니다. 어떤 편 기다리기에 지쳐 책속에 얼굴을 묻고 자면서까지말입니다... 그런 살뜰한 심정을 지닌게 녀자들이지요. 그러니 남자들이란 가정을 멀리 떨어져선 안된단말입니다. 비서동문 내 말을 들으시우. 생활에서야 내가 선배니까...》

형진은 더는 아무말없이 지배인과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조금전에 지배인한테 룡말로라도 늙은이라고 한것을 진심으로 후회하였다.

형진은 어둠속에 묻힌 사택마울쪽으로 가는 지배인의 구부정한 뒤모습에서 미더운 시선을 떼지 못했다. 지배인이 아주 보이지 않을 때에야 형진

은 공장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하늘에서는 별들이 줄음을 이겨내려는듯 고요히 깜박거리었다.

## 2

불길은 보이라화실속에 간혀서 맹수처럼 날뛰었다. 그러다가 종내 빠져나갈수 없게 되자 신음소리를 지르며 빨간 불가루를 게우군한다. 화구턱을 넘어 흐른 불알갱이들은 차츰 쌓여서는 조그마한 재불담을 이룬다.

보이라운전공 마성남은 불담주위의 좀 식은지 오랜, 그래서 부드럽고 따스한 재를 철판의자에 펴고는 그우에 올라앉아 담배를 피워문다. 우울한 표정으로 애꿎은 담배연기와 씨름질을 하던 청년은 어느새 혼곤히 잠들었다.

그러자 저쪽 조종반앞에 앉은 어린 조작공처녀는 긴장하여 화실안에 떨어지는 탄가루와 급수장치들을 살피나가기에 여념이 없었다.

자기를 드다루던 손탁센 운전공청년이 잠든것을 알았는지 고열속에 몸부림치던 불길은 처녀를 위협이나 하듯 화구밖으로 긴 불혀를 내뿜치군하였다. 그래도 처녀는 눈섭조차 까딱하지 않는다. 사나운 불길도 처녀의 눈동자속에서 한쌍의 금나비처럼 반짝일뿐이다.

갑자기 처녀는 몸돌바를 몰라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황하고 웅색해서 얼굴이 불길보다 더 진한 홍조를 띠었다.

당비서가 옆에 서있는것을 미처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처녀는 황급히 잠든 마성남에게로 갔다.

그러나 뒤에서 당비서의 부드러운 음성이 그를 멈춰세웠다.

《깨우지 마오.》

《.....》

주형진은 조용히 다가가서 의자등받이에 목을 가우듬하고 자는 마성남의 얼굴에 몸을 기울이었다.

(곤한 모양이군...)

형진은 근심과 애정어린 다심한 눈길로 청년을 한참이나 지켜보았다.

이윽고 형진은 모자를 눈섭언저리까지 꼭 눌러쓰고는 긴 쇠장대를 틀어잡았다. 끝이 휘여든 쇠장대는 그의 팔힘을 시험이라도 하려는듯 무겁게 매달렸다. 형진은 몸을 뒤로 제치면서 쇠장대를 요령있게 쓸쩍 들어서 화실안에 밀어넣었다. 저열탄재가 슬라크되어 엉켜붙지 않도록 불층을 끌고루 들춰놓아야 한다는걸 그는 잘 안다... 어느덧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힌다. 눈썹리가 뜨겁고 쓰러났다.

그제야 깨어난 마성남은 당황해서 덤벼치며 당비서의 손에서 쇠장대를 뺏으려들었다. 하지만 쉽게 잡아내지는 못한다.

《비서동지!... 주십시오.》

청년은 안타까와 거의 울상이 되었다.

《어, 괜찮소... 조금만..... 다 된것 같소.》

형진은 한참이나 더 불충을 들쭉시키고 나서야 쇠장대를 넘겨주었다.

할일이 없게된 마성남은 닳아서 반짝거리는 쇠장대의 동그란 손잡이를 만지작거리기만 했다.

형진은 손수건으로 얼굴과 목덜미의 땀을 문대고 나서 담배팩을 꺼내어 마성남에게 내밀었다.

그러지 않아도 송구스러워난 청년은 한걸음 물러섰다.

《전, 담배를...》

《뭘 그러우. 손끝이 누렇게 물든걸 보구있는데...》

《이거 참...》

마성남은 게면쩍게 웃으며 손을 옷자락에 쓱쓱 문대고는 조심스레 한가치를 꺼냈다.

형진은 과일기열에 달린 증기압계를 올려다보고 나서 마성남의 어깨를 끌어당겼다.

《압이 올랐구만... 좀 쉬지 않겠소?》

철관의자에서 먼저 앉은 형진은 연신 사양하는 청년을 의자의 나머지 반쪽에 앉혔다.

화실의 불빛에 허물없이 붙어앉은 두사람의 엄청나게 큰 그림자가 맞은켄 벽에서 너울거렸다. 감빛, 검붉은 빛이 어린 그들의 얼굴과 온몸은 판화처럼 명암대조가 뚜렷했다.

송풍기의 단조로운 음향에 귀를 기울이던 형진은 조용히 물었다.

《성남동무한테 불판을 개조할 좋은 안이 있나지?...》

《뭘, 안이랄게 못됩니다. 결집에 생각나는대로 그려본것이 꽤나서...》

《왜, 무슨 화가 날 일이라도 있었소?》

《아버지한테 욕을 먹구나니 어디 해볼데가 있어야지요. 그래 종이장만 가지구 씨름질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언제 오셨소?》

《며칠되었습니다.》

《내가 왜 합숙에서 아버님을 못봤을까?》

《우리 아버진 성미가 피뻑합니다. 합숙에서 아이들 신세를 안진다는거지요.》

《그럼 어디 계시오?》

《<독로강려관>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차 아니면 저녁차로 떠났을겁니다.》

《아버님을 바래워드리지 않았소?》

《.....》

형진은 다시금 물었으나 마성남은 갑자기 자물쇠라도 채운듯 묵묵히 앉아있었다. 청년의 두눈에는 그 어떤 서글픔과 피로움이 뒤섞인 우울한 빛이 어렸다.

형진은 철관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는 가슴속에 차오른 말못할 안타까움을 누르며 화구앞을 천천히 거닐었다. 그의 음성은 몹시 갈렸다.

《성남동무, 말해보오. 무슨 일이 있었기에 먼길을 오신 아버님을 바래드리지 않는단말이요? 응!》

송풍기는 생각에 잠긴듯 고요히 웅웅거리었고 과일기에서 한껏 단 증기가 흐르는 쇠쇠 소리는 마치 누구를 떠들지 말라고 타이르는듯싶었다. 화실의 불길도 운전공의 심중에 깃든 이야기를 듣고싶은지 심술을 부리지 않고 공순히 타올랐다.

《...어제밤에는 아버지가 공장에 찾아왔었습니다. 전 그래 떡판이 된 불충을 들쭉시키고난 뒤여서 얼굴이 탄가루와 땀으로 얼룩진것을 미처 생각지 않구 정문에 나갔습니다.》

...로인은 미간에 주름을 모은채 잠자코 서서 아들의 땀에 젖은 얼굴과 탄먼지 오른 작업복이며 신발을 훑어보았다.

<넌 지난번 편지에서 애비를 속였구나...>

<.....>

<그런 물골로 자동선반을 한단말이지?...>

로인은 넋지시 비양조로 물었다.

<저, 사실은...>

아들은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말을 주춤거렸다.

<이녀석아, 보이라에서 불을 때면 땀지 어쨌다구 애비에미한테 바른소리 못해?! 엉!>

<.....>

<헌데 어째서 얼굴이구 옷이구 그 모양이냐?>

<탄을 때니까...>

<탄을 땀다구 얼굴이 거매져야 한다는 법이 있느냐?!>

<우리 보이란 아직...>

성남은 용기를 내어 말해보려 했으나 이내 말허리를 잘리웠다.

<무슨 변명이나. 이 한심한녀석아, 나라에서 자동화를 내놓은지가 언젠데... 공불 했다는녀석이 부끄러운것두 모르구...>

<.....>

<난 인젠 집에 가겠다. 더 있구싶지 않아... 시라소니를 키운것 같아서 어디 사람들의 낫을 보구 다니겠니.>

저만치 걸어가던 로인은 무슨 생각이 났는지 몸을 돌리고 다짐을 두었다.

<날 바래주려니 생각을랑 말구 일이나 잘해라.

제 앞치리를 푹푹스레 하란말이다.>

로인은 가버렸다.

성남이가 밤늦어 합숙에 들어가니 호실동무들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원탁우에는 사과와 당과류들이 무독히 쌓여있었다. 아버지가 두고간것이라고 했다. 마성남은 속에서 뜨거운것이 피어올라 우두커니 서있는데 문이 열리며 합숙관리원 어머니가 쟁반에 김이 문문나는것을 들고왔다.

<흰쌀가루 만두네. 닭고기를 넣었어.>

<?!...>

<식기전에 어서 먹으라구. 아버지가 성남이 좋아하는거라구 재삼 말하시더군요.>...

《...전 동무들 보기가 부끄러워서 그만 호실을 나오구말았습니다. 보이라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래 오늘낮에까지 불판을 개조할 도면을 대충 그려보았습니다.》

(그런 일이었구나!...)

형진은 손가락을 따갑게 하는 담배꽁초를 화실 안에 집어넣고나서 생각에 잠겼다. 저열탄보이라의 흰 연기 오르는 굴뚝을 바라보며 순간이나마 기뻐했던 자신을 뼈아프게 질책했다. 어찌하여 보이라의 증기와 탄에 대해서만 관심이 컸는가. 열관리공들이 먼지나는데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걸 그는 왜 보지 못했는가... 한시바삐 열관리공들이 청신한 공기가 흐르는 보이라실에서 흰 사쓰에 넥타이를 매고 앉아 흥겹게 일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리상도 아니고 먼 앞날의 일도 아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로 전환해야 할 절박한 과제이다. 마성남이와 그의 아버지가 소원하는것도 바로 이것이야닌가.

그러자 다심하고 인정깊은 지배인의 주름많은 얼굴이 떠올랐다.

《청년들이 쇠장대를 잡구 일하는걸 보람으로 생각해야지...》 지배인은 분명 이렇게 말했다. 아니 공장의 주인인 지배인이 그래선 안된다. 열관리공들을 친자식처럼 뜨겁게 사랑한다면 땀흘리며 일하는걸 보고 그렇게 뽕뽕히 말하진 않을것이다.

형진은 자기를 집에 보내는 문제를 두고 진정으로 마음을 쓰던 지배인을 생각하자 피로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저으기 갈린 음성으로 말했다.

《성남동무... 도면을 보지요.》

마성남은 주머니에서 네겹으로 접은 어지러워진 종이를 꺼내었다.

《내가 좀 두고봐두 되겠지?》

형진은 도면을 받아서 안주머니에 넣으며 말을 이었다.

《집에 인차 편지를 하오. 아버님이 노염을 풀

도록 잘 쓰오.》

형진은 불현듯 몇해전에 사망한 자기의 늙으신 아버지를 그려보았다. 무엇인가 꿰뚫어보는듯 엄격한 아버지의 눈초리가 생생히 되살아났다.

아마 형진이가 마성남의 나이쯤 됐을까... 어느 휴식일(그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에 있었으니까)이었다. 북방의 새 철길건설장에서 시련의 두해 겨울을 이겨낸 형진은 꽃수레처럼 장식된 첫 개통렬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배낭을 멘 형진이가 마당에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맨발로 달려나와 아들의 어깨를 쓸어보고 만져보고 하며 애정을 단번에 쏟아부었다 법석이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문지방에 걸터앉은채 어찌선지 뜨직한 눈초리로 아들을 건너다보았다.

형진은 아버지가 자기의 번번한 가슴을 쳐다본다는것을 알았다. 그는 말없이 아버지앞에 허리를 굽석 하고 인사를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주름잡힌 얼굴엔 한가닥 미소조차 비끼지 않았다. 근엄하고 뽕뽕한 음성만이 푸점없이 울렸다.

《훈장은 판데 건사했느냐?》

《아버님, 타지 못했습니다.》

《공로메달두?》

《네...》

《그러구두 애비앞에서 벗젓이 인사를 해?!》

추상같은 부르짖음에 그때까지 궁금해서 목을 가웃거리던 마당가의 닭들이 사방으로 짹 흩어졌다.

문지방에서 벌떡 몸을 일으킨 아버지는 주먹을 든 팔을 후들후들하며 아들한테로 다가왔다.

《어이구, 저 평감이...》

어머니의 찢막한 비명소리에 닭들은 아예 울바자째므로 멀리 도망쳐버렸다.

형진은 아득한 소년시절의 어느 한때처럼 침착히 선채 공손히 매를 기다렸다. 아버지는 그의 코앞에 마주섰으나 형진은 어찌선지 눈썹리가 확 타오르지도 않았고, 다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벌서 자기보다 높은 아들의 등근 어깨와 울바자우에 고주박처럼 울망줄망 열린 마을 조무래기들을 보았던것이다.

그날밤 형진이가 금방 잠에 들가말가한 때였다. 누구인가 그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뒤집는것이였다. 아버지는 쇠돌을 다루어온 자기의 손과 별반 다름없는 콩알같은 굳은살이 박이고 참나무판 자처럼 판판해진 아들의 손을 이윽도록 들어다보았다. 그길로 밖으로 나간 아버지는 형진의 공장 당위원회를 찾아갔다. 그제야 로인은 아들이 청년돌격대의 사로청위원장을 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비마다에서 두어깨를 들이밀었으나 차례지는 영예는 고스란히 동무들에게 밀었다는것을

알았다.

《음, 그렇다문사… 그건 응당한 일이지…》

아버지의 말은 여전히 근엄하고 푸접없이 울렸으나 그 음성의 밑굽으로는 아들에 대한 대견함과 은근한 자랑이 뜨겁게 흐르고있었다…

아버지들이란 그런 사람들이다.

형진의 눈앞에는 러관방에 앉아 담배를 풀썩풀썩 태우면서 그래도 혹시 아들이 찾아오지나 않을가 하고 기다리는 로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정말 오늘 저녁차로 떠났을까?…)

### 3

대기는 녹눅했다.

하늘은 낮추 흐려있어서 푸릿한 새벽어둠은 좀처럼 물러가지 않는다.

형진은 《독로강려관》의 처마밑에서 자신을 한껏 비난하며 서있었다.

마성남의 아버지는 아침차를 타려고 이미 역전에 나갔던것이다. 그러니 로인은 온밤 자기의 막내아들을 두고 삭이지 못한 노염과 미련과 짱그리 안겨주고 떠나지 못하는 애정으로 하여 크나큰 피로움속에 시달렸을것이 아닌가.

형진은 사무실에서 눈을 붙였던것을 뼈저리게 후회하였다.

길건너 다충주역의 모퉁이로부터 자기 키만한 비자루를 든 총각애가 하품을 하며 나오고, 이어 너닌들과 어른들이 거리를 쓸려고 나온다. 잠깐 도시의 첫생활이 시작된것이다.

형진은 빨간 나일론체육복의 목깃을 멋부려 일귀세운채 부지런히 비자루를 놀리는 총각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키도, 통통한 몸집도 어쩐지 아들 영구와 비슷했다… 집마당과 마을길 멀리까지 열심히 끌고는 어른처럼 한손으로 뒤집을 지고 허리를 퍼던 영구의 우습강스런 모습이 떠올랐다…

조금씩 떨어지던 비꽃은 제법 주룩주룩 소리를 듣는다. 포장길이 젖는다. 머리우에서 쪼르륵 하며 첫 락수물이 흘렀다.

형진은 편뜻 팔목시계를 보았다. 5시 20분이다. 열차는 5시 45분에 출발한다. 역전까지 가느라면 15분, 그러니 10분밖에 말할시간이 없다. 이 10분간에 로인의 복잡한 마음에 전환을 가져올 무슨 말을 할것인가. 너무나 짧은 시간이 아닌가…

아니다. 시간으로 사람들의 운명문제를 켈수는 없다. 마성남의 장래에 더 밝은 빛을 주고 로인의 여생에 안정을 주자면 바로 당일군인 형진의 불보다 뜨거운 심장만이 흐르는 시간도 멈출수 있을것이다. 활활 타오르는 그 심장은 강철을 군

건히 이어줄것이다.

형진은 역수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역전을 향해 걸었다.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반반한 포장길에는 비방울만이 뽀얗게 튀어올랐다. 삽시에 그의 양복은 폭 젖어 어깨와 잔등이 무겁게 달라붙었고 젖은 모자에서는 비물이 얼굴로 목으로 흘러내렸다…

세찬 비와 굵실거리는 물안개속에서 역사의 합각지붕과 폭넓은 유리창들이 차츰 가까와졌다.

얼마후 형진은 개찰구를 나섰다. 흠에는 손님들이 많았다. 형진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로인을 사람들속에서 찾기가 조련치 않으리라는것을 느꼈다. 손님들이 자기를 이상스레 쳐다보는것도 의식하지 못한채 형진은 다급히 사람들속을 다니었다.

산너머에서 금시 기적소리가 울릴것만 같았다.

다행히 환갑이 넘음직한 손님들은 적었다. 그가 어디서 온 손님인가고 물을 때마다 그들은 의아쩍어서 머리를 가로흔들었으나 형진은 실망하지 않았다.

역홈의 맨끝에는 중키에 아직 몸집이 퍼그나 긴장해보이는 로인이 훌쭉한 려행가방을 들고있었다.

형진은 모든 희망과 기대를 안고 그 마지막 손님에게 다가갔다.

《저 사리원에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

로인은 침울한 눈으로 낮선 사람의 비물이 흐르는 얼굴과 젖은 옷이며 진창이 달라붙은 구두를 훑어보았다. 그러더니 한마디 툭 던졌다.

《그렇수. 헌데 젊으신?…》

형진은 어쩐지 로인이 아버지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 구부정한 어깨에서 드리운 삼날같은 커다란 손과 탄력있는 잔주름이 패인 얼굴은 로동으로 늙어온 사람의 건실한 체취가 풍기는것이였다.

《추경진이라구 부릅니다. 마성남이와 한공장에 있지요.》

《보이라에서 일하우?》

《…예.》

형진은 자신없이 대답해으나 진실을 말하고싶은 용기는 더욱 없었다. 마성남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보다 당비서인 자신에게 있다는 자책감이 그를 뿔뿔히 못하게 하였다.

로인은 여전히 평정한 시선으로 그를 보더니 씩씩히 물었다.

《헌데 어쨌다는거우?》

《아버님을 모시려 왔습니다.》

《나를? 허… 우리 애가 시키던가요?》

《.....》

멀리 룬곽이 분명치 않은 야산에 가로막힌 철  
길의 끝, 연기빛 운무가 서린 거기서 불시에 기  
적소리가 울렸다.

《난 아무래두 그 공장에 갈 체면이 없수다.》

## 《가만...》

《이거 보시우. 정말 우리 애두 같이 저열탄보  
이라를 만들었수? 그제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닐텐  
데…》

《음...》

《아버님!...》

로인은 형진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렬차의 승강대를 내리고 오르는 손님들의 분주한 움직임도 뜨옴해졌다. 신호기발을 감아쥔 조역이 천천히 다가왔다.

《아니?... 비서동무, 어떻게 된 일입니까?!》

《?!》

《!...》

《합숙으로 가시오. 아버님을 내 방에 모시도록

하오. 관리원어머니한테 말해서 좀 늦더라도 직사를 푸짐히 차려올리라고 하시오. 아들집에 온 기분이 꼭 들게말이요.》

이윽고 승용차는 역구내길을 서서히 빠져나갔다.

당비서와 지배인은 승용차의 뒤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점도록 서있었다.

《우리가 보이라의 자동화를 잘해놓지 못해서 먼길을 오신 아버님의 기분을 흐려놓았습니다.》

주형진은 무거운 어조로 말을 떼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네첩으로 접은 도면을 꺼내었다.

《지배인동무… 마성남이가 그린 불판개조도면입니다. 난 보이라기술은 잘 모르겠지만 무척 애쓴 흔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어떻든 제 머리를 써서 최장대를 없애겠다는 그 정신이 얼마나 귀중한겁니까.》

《!…》

당비서이 진중한 음성은 지배인의 심장을 쿵쾅 뛰었다놓는것 같았다. 도면을 펼쳐든 그의 눈앞에는 어제저녁 자기 방에서 나가던 마성남의 침울한 얼굴이 못견디게 떠올랐다.

(그래서 비서동무가 못떠났단말인가?!… 난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잤는데 비서동무는 내가 거칠게 다룬 문제를 안고 온밤을 뛰어다녔구나!…)

지배인은 목직한 돌덩어리가 가슴속에 내려앉는것 같았다. 깊은 자책에 잠긴 그는 당비서쪽으로는 차마 시선을 돌리지 못한채 조용히 말했다.

《결국은… 내가… 비서동무를 집에 못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형진은 얼굴에 꾸밈없는 소박한 미소를 지었다.

《아무때 간들 일있습니까. 지배인동무와 나는 공장노동자들의 부모와 같은 사람인데… 자식들에게 별일 없어야 부모의 마음이 편한 법이지요.》

《!…》

두 사람은 공장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떼었다.

어둠은 공장구내에 소리없이 깃들었다. 나무잎들이 바람에 설렁대는 소리가 그 무슨 속삭임처럼 들려온다.

주형진은 편지를 쓰다 말고 생각에 잠겼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별들이 총총한 하늘이 바라보인다. 별들은 사랑하는 아들의 눈처럼 깜박거리는 듯 싶었다.

잔디풀이며 쭉새풀, 여우꼬랭이풀들이 무성한 고향도시의 강변오솔길이 떠오른다. 휴식일,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한점도 없다. 유리알같은 대기는 들꽃의 향기로 가득찼다. 채양넙은 밀짚모자를 쓴 그는 가재수염같은 낚시대를 어깨에 멘 어

린 아들을 앞세우고 강가로 간다. 발밑에서는 메뚜기며 풍덩이들이 놀라 날아나고 고추잠자리들이 낮추 떠다닌다. 벌써 여울물의 세찬 음향은 그 아름답고 독특한 선물로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유혹한다. 강가에서는 저고리소매를 걸어올리고 빨래를 행구던 안해가 행복이 넘치는 눈빛으로 아들과 남편을 바라본다…

한쪽의 그림처럼 그 모든것이 생생히 떠올랐다.

형진은 다시 종이에 머리를 숙이였다. 쓰고 지우고는 또다시 몇줄을 쓰고 읽어본다. 아들의 동심세계에 파고들 무한한 애정이 넘치는 글이 되야겠는데… 감정은 뜨겁고 앞서지만 손은 잘 써내지못한다.

아들이 어린 소년이 아니고 청년이라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 한가정만이 아니라 온 공장 사람들의 오늘과 래일의 행복을 당앞에 책임졌다는것을 아들은 리해할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얼굴에 한점의 그늘도 지지 않고 희망에 넘쳐살도록 돌보는것이 낚시질하는데 비할수 없이 크나큰 기쁨이라는것도 아들은 알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형진은 겨우 이렇게 마감을 맺었다.

………

영구야, 여기 독로강은 우리고장의 강보다 세배나 크다. 강은 물살이 빠른데두 있구, 푸른 물이 밤이구 낮이구 거품을 일구며 재미나게 뱅뱅도는 깊은 소두 있단다. 고기들두 많다. 나두 이름을 잘 모르는 물고기들이 욱실거린다. 래달엔 널 데리러 꼭 가겠으니 연두모치랑 잡지 말구 공부 잘해라. 아버지는 고기잡구푼것두 너하구 첫 낚시질을 하려고 참구 기다리고있다.

그럼 잘 있거라. 아버지로부터.

형진은 봉투에 큼직한 글씨로 주소를 쓰고는 풀을 바르기 시작했다.

전화종이 울렸다.

그는 한손으로 풀을 바른 봉투를 꺾꺾 누르며 한손으로는 송수화기를 들었다.

《형진입니다… 아 지배인동무니까… 협의회요?… 사람들이 모였대구요?… 아니, 기술과사무실에서 하지 않구 보이라 화실앞에서 하겠단말입니까… 거참 멋있는 생각입니다. 아마 다들 탄면지와 최장대질맛을 보면 묘책들이 나올겁니다… 아 내가 뭘 참가하겠습니까. 지배인동무가 있는데…》

방안에는 한껏 고요가 깃들었다.

창앞의 나무들은 무수한 잎새들로 다시금 신비로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 당의 령도밑에 우리 문학에서 주인공문제의 빛나는 해결

리봉진

오늘 우리의 혁명문학은 당의 령도밑에 철두철미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경지의 문학으로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다.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따사로운 당의 품속에서 우리 문학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길은 참으로 위대한 비약과 찬란한 성과로 빛나고있다.

우리 당중앙은 주체시대의 문학은 지난날의 문학과는 달리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반영하고있는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 새 인간학이라고 밝히고 그 근본요구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과 형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우리 시대 혁명문학발전의 영광스러운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문학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이 빛나게 구현되어나감으로써 우리 주체의 문학은 명실공히 주체사상이 요구하는 풍격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새형의 혁명문학으로 자기 발전의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 1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혁명문학을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 문학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주인공문제를 빛나게 해결한것이다.

사회적의식형태의 하나인 문학이 어떠한 인간을 시대의 전형으로 작품의 중심에 내세우며 그 인간의 형상을 통하여 무슨 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주려고 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주인공문제가 문학의 사회적 성격과 사명, 그 지위를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이며 원칙적인 근본문제의 하나로 되기때문인것이다.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은 자기의 성격과 사명으로 부터 출발하여 공산주의자의 전형창조문제를 제기하고 자기가 도달된 수준에서 일정하게 해결하여왔다.

이것은 그 시기 선진적인 시대사상의 반영이었으며 문학발전의 합법칙적로정이였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지난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력사의 새시대이다.

다시말하여 우리 시대는 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세계를 개조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인 위대한 주체시대이다.

이 새로운 격동적인 시대인 주체시대는 그에 상응한 새형의 문학을 요구하고있을뿐아니라 그 문학의 중심에 새로운 인간전형을 내세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우리 당중앙은 이러한 시대적요구와 혁명문학발전의 현실태를 과학적으로 통찰한데 기초하여 주체시대에 맞는 문학은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 되여야 하며 이 문학은 자주적 인간의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내세워야 한다는 탁월하고 독창적인 방침을 명철하게 밝힘으로써 우리 시대 혁명문학발전의 진로를 휘황히 밝혀주었다.

그리하여 인류가 이처럼 모색하고 갈망하여오던 참다운 의미에서의 인간을 형상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이 우리 시대에 와서 우리 당에 의하여 비로소 창조되게 되었으며 자주적인 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하는 인간학창조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주체시대에 맞는 문학건설의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였을뿐아니라 그 창조에서 나서는 제반원칙과 형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 창조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이처럼 어렵고 복잡한 력사적과제로 남아있던 우리 시대의 혁명문학의 주인공문제를 빛나게 해결할수 있었던것이다.

당은 무엇보다도 자주적인간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성격적특질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것을 창조하기 위한 형상방도들을 밝혀주었다.

당에서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성격적특질은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철석같은 신조로 삼아 오직 그 신념대로 사고하고 그 신조대로 행동하는 철저하게 주체의 사상체계가 선 새형의 공산주의자라는것을 천명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은 주체가 선 로동계급의 새로운 전형인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력사상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내세우게 되었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공산주의사회가 인류의 가장 높은 사회적리상이라면 주체형의 인간은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리상을 체현하고있는 인간의 본보기이다.

그리하여 인류가 오래동안 미학적리상으로만 그려오던 그 력사적념원이 우리 시대에 와서 우



리문학에서 빛나게 해결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준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위대한 업적이 있다.

당은 우리 문학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적인 간이 지니고있는 정치적생명문제를 내세우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혀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고 푸는것은 자주적인간의 전형을 창조하는데서 기본으로 된다.

사람의 사회적본성인 자주성은 생명물질일반의 자연적, 생물학적 속성의 발현완성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회적산물이며 사회적속성이다.

따라서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정치적생명은 육체적생명보다도 비할바없이 더 귀중한것이다.

인간문제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정치적생명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사회정치활동, 혁명투쟁에서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마련되고 수령의 보살피심에 의하여 보존되고 빛내여지는 생명이다.

사람을 사람으로 되게 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그것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정치적생명을 주고 보호해주며 빛내이게 해주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은 주체시대가 요구하는 긍정적주인공문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본보기성격을 본질적으로 깊이있게 전면적으로 그릴수 있게 되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공산주의혁명가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공산주의자의 제일생명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사람을 사람으로 되게 하는 자주의식의 최고표현으로 되기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공산주의적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으로 되며 사회주의조국과 공산주의적미래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와 충실성에 대한 최고표현으로 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의 혁명가적품모의 규정성으로 되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깊이있게 전형화하여야만 공산주의자의 본보기형상을 본질적측면에서 깊이 그려낼수 있다.

공산주의자의 제일생명으로 되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깊이 전형화하는것은 주체시대의 긍정적주인공의 본보기형상창조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그것을 그려야만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성격적품모를 관통하는 규정적인 진수를 밝혀 내게 한다는데 있다.

그것은 또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게 한 자주의식을 가장 높은 경지에서 그릴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피압박, 피착취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주체시대의 요구를 구현하려면 로동자, 농민, 지식인, 병사 등 평범한 근로인민을 문학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의 사상정신적위용을 열렬하게 긍정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주체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그리는데 방법이 바로 혁명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작품의 중심에 내세우고 그들의 자주의식을 그리는데 있다는것을 밝히었다.

그리하여 주체시대에 맞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으로 되려면 로동자, 농민, 지식인, 병사등 평범한 근로자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모습을 그리며 그것을 열렬하게 긍정하여야 한다.

근로하는 인간들을 혁명위업의 주인으로 력사의 링마루에 높이 올려세우고 영웅적위훈을 발휘하게 하는것은 바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된 자각, 높은 자주의식이다.

혁명의 주인된 자각, 높은 자주의식을 깊이 그려야만 평범한 근로자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추동한 내적요인을 본질적측면에서 깊이있게 밝혀낼수 있다.

평범한 근로자들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영웅적성격으로 그리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성격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로 된다.

때문에 그들의 혁명의 주인된 자각과 높은 자주의식을 깊이 그리는것은 평범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인간으로, 혁명가로 되게 하는 내적요인을 그리는것으로 되며 따라서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뚜렷이 하며 자기의 혁명적작용을 옹고 다하는것으로 된다.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혁명으로 추동하며 사회주의건설에 불려일으키며 사회주의조국과 그의 공산주의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닌 숭고한 애국자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가지고 위훈을 떨치게 하는 영웅으로, 로력혁신자로, 위대한 발명가로, 과학자로,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간미와 공산주의도덕의 높은 체현자로 되게 하는것이 다 평범한 근로자들이 지닌 혁명의 주인된 태도와 립장에서 흘러나오는것이다.

혁명의 주인된 립장과 태도, 높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깊이 그리는데는 이처럼 중요하다.

그런데 혁명의 주인된 자각, 높은 계급의식의 최고표현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그것은 로

동계급의 수령이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주며 그 구현을 위한 당을 창건하며 사람들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묶어세워 공산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주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그려야 평범한 근로자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공산주의혁명가로, 력사의 주체로,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 지배자로 높이 솟아오르게 한 근본요인을 깊이 밝혀낼수 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제일생명으로 되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으로 보아야 공산주의자의 다면적인 혁명가적품모도 옳게 그릴수 있다.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높은 혁명적동지에,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혁명적락관주의,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 숭고한 인간애와 집단주의정신, 공산주의도덕과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품성, 높은 지성과 문화성도 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의리로 제일생명으로 간직함으로써만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체득할수 있고 구현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혁명적동지에를 옳게 그리려고 해도 그 바탕으로 되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견지에서 깊이있게 밝혀냄으로써만 진실하게 형상할수 있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자주적인간의 전형인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투사들의 숭고한 혁명적품모와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유명, 무명의 영웅들 그리고 3대혁명의 전위들과 숨은 영웅들의 성격적품모를 관통하는 규정성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신념으로, 의리로 간직한데 있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그들은 것처럼 혁명가적품모를 풍부하고 높이 구현할수 있었으며 아름답고 숭고하고 영웅적인 인간으로 높이 솟아오를수 있었으며 혁명과 시대 앞에 것처럼 빛나는 위훈을 세울수 있었다.

그러하여 우리 문학은 우리 당이 가르친대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제일생명으로 되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으로 그리며 그와의 호상관계속에서 혁명가적품모를 개성적으로 깊이 그림으로써 주체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자주적인 인간의 본모기를 그리는 문제를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빛나게 해결할수 있었다.

영화문학 《열네번째 겨울》의 주인공 유설경의 성격형상이 주는 그렇듯 비상한 감화력과 높은 감동성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의리로 간직한 인간의 삶의 보람과 행복이 어데있는가 하는 문제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혀준데 있다.

가렬한 전쟁시기도 아니고 어려운 복구건설시기도 아닌 오늘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청춘을 다바쳐 아버지수령님께

서 것처럼 심려하시는 《갱생1호》연구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그 투철한 혁명적신념과 자주적지향은 오로지 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을 빛내여 나가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만이 지닐수 있는 가장 숭고한 정신의 발현이며 가장 아름다운 삶의 세계인것이다.

장편소설 《령마루》의 주인공 현우림의 형상은 3대혁명의 시대에 사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는 자기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아버지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어떻게 빛내어나가야 하는가하는 물음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는 훌륭한 성격형상이다.

주인공 현우림은 조국을 위해 영웅적위훈을 떨쳤거나 특출한 공로를 세운것도 아닌 우리 시대의 평범한 당원이었다.

그러한 그가 전쟁의 포화속에서 입은 상처의 후파로 하여 자기의 병이 이미 견잡을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이르고있으며 앞으로 석달밖에는 더는 생명을 유지할수 없다는 운명적인 선고앞에서 그가 택한 길은 과연 어떤 길이었던가.

그것은 아버지수령님께서 것처럼 심려하시는 이 광산의 종합적기제화를 실현하기 위한 영웅적인 투쟁의 길이였다.

그러하여 죽음에 대한 슬픔과 비애의 감정은 조금도 없이 병원을 뛰쳐나와 도착한 날부터 앞으로 3개월 마감날까지 붉은 연필로 동그라미를 표시해놓고 갱막장에서 침식을 해가면서 생전에 다하지 못한 그 모든 일을 불사신처럼 해나가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것은 육체적생명이 아니라 정치적생명이라는것을 투철한 신념으로 삼고있기에 그는 운명앞에서 죽음을 초월할수 있었으며 이처럼 땀땀하고 의젓하며 태연할수 있었던것이다.

주인공 현우림의 성격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귀중히 간직하고 일련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길에서는 죽음도 영생하는 삶의 길이라는 우리 시대의 참된 삶과 행복에 대한 진리를 투철하게 체현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의 가슴을 격동시키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참된 길을 가르쳐주고있다.

우리 문학이 창조한 수많은 주인공들의 성격적 매력과 비상한 감화력은 모두다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

참으로 육체적생명보다도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간직한 자주적인간의 본모기성격을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우리 문학은 세상에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인 인간과 그의 생활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보여줄수 있었으며 자주적인간에 관한 문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

는 문제에 올바른 해답을 줄수 있었던것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새 시대 인간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그것을 기성형태로 보여줄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성격으로 그릴데 대하여 밝혀줌으로써 자주적인간의 형상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 하는 전형화와 관련된 근본 문제에 완벽한 해명을 주었다.

여기에서 주인공의 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릴데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문학예술작품에서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 주인공을 그리는것은 결국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탄생과정을 그리는것이다.

이것은 결국 주인공의 전형화와 관련된 근본문제이면서 동시에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의 사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문학은 이 어렵고도 력사적인 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였다.

우리 당은 사람들의 세계관형성발전과정의 합법칙성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한데 기초하여 무엇보다먼저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을 세계관형성발전과정으로 즉 인간의 사상의식의 발전, 정신세계의 변화발전과정으로 규정하고 보통사람들이 혁명가로 자라나는 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릴데 대하여 시종일관 가르치고있다.

우리 문학의 주인공들은 그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며 타고난 혁명가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그 어디에 가나 흔히 찾아볼수 있는 소박하고 평범한 보통사람들이다.

바로 그들이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품속에서 꾸준한 사상교양과 혁명적실천투쟁을 거쳐서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 수령님과 당의 참된 혁명전사들이다.

우리 문학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들의 혁명적세계관이 서나가는 과정을 그리는것은 결국 자주적인인간인 주체형의 혁명가를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만큼 평범한 인간들이 혁명가로 자라나는 성격발전과정을 혁명적세계관의 형성발전과정으로,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으로 그리는것은 인간의 성격을 규정하는 사상의식과 세계관의 본질적내용에 대한 과학적통찰에 기초한 탁월한 방침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세계관형성은 하루이틀사이에만 단번에 되거나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순탄한 과정이 아니라 일정한 축적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우여곡절에 찬 과정으로 이루어지고있는것이 특징이다.

이것이 사람들의 세계관형성에 작용하는 객관적인 생활론이다.

우리의 혁명문학은 사람들의 세계관형성에 작용하는 점차성, 복잡성, 다양성과 같은 생활론리를 생활그대로의 진실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깊이 있게 그려야 할뿐아니라 그것을 성격론리와 밀착시켜 그려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 주인공들의 산 모습을 감명깊게 보여줄수 있으며 누구나 다 각오만 하면 혁명가로 될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안겨줄수 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문학은 주인공의 혁명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는 동기가 다르고 세계관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서로 다른 각이한 사람들의 성격발전과정,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의 묘사를 통하여 사상의식이 성격발전에서 노는 결정적역할과 그 거대한 의의를 깊이있게 밝힘으로써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품모를 빛나게 구현한 사상예술성이 높고 철학적으로 심오한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할수 있었다.

장편소설 《죽원》은 한 평범한 유가족어머니의 혁명화과정을 통하여 주체형의 혁명전사는 위대한 수령님을 어떻게 높이 우러러모시고 옹호보위하여야 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고 싸워야 하며 자신과 가정을 혁명화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철학적으로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농사일밖에 모르고 늙어온 이 평범하고 순박한 어머니도 자기의 계급적처지를 자각하고 혁명화과정을 다그치면 자기의 신념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줄 알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시비하는 그 어떤 계급적원수도 무자비하게 단죄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영원한 미소》의 주인공 오철규의 성격형상이나 장편소설 《평양시간》의 주인공 리상철 등 우리 문학이 창조한 수많은 주인공들의 성격적 매력과 감동성은 다 그들의 성격발전과정,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릴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빛나게 구현한데 있다.

참으로 사람들의 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릴데 대한 당의 독창적인 방침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혁명에 오래 참가한 로간부들로부터 젊은 일군들과 평범한 로동자, 농민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오로지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품속에서만 철저히 세울수 있었다는 엄연한 생활의 진리를 뚜렷이 확증한 바로 여기에 우리 문학이 이룩한 거대한 성과의 하나가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창조에서 또한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고 진실하게 그릴뿐아니라 비반복적인 개성으로 그릴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문학의 주인공들은 현실에서와 같이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생동한 인간형상으로 창조되어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며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주는 생활과 투쟁의 참된 길동무로 되고있다.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리는데는 성격의 외적표현이나 행동에서만이 아니라 그 내면의 사상정신세계, 풍부한 감정세계에까지 파고 들어가 성격의 전모를 드러낼수 있게 함으로써 성격의 일면성과 빈곤을 극복하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그러므로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생활 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는것은 인간학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요구로 된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인간은 사상과 감정에서, 의지와 행동에서 언제나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문학에 그려지는 인간은 현실에서 보는 산 인간처럼 구체적이며 생동한 인간으로 그려져야 한다.

그런데 혁명가를 그린다고 하여 그의 정치적인념과 강의한 의지만 일면적으로 보여주고 구체적인 생활정황에서 나타나는 풍부하고 다양한 사상 감정을 그려내지 않는다면 그 인간형상은 얼마나 메마르고 딱딱하게 되겠는가.

혁명가에게는 정치적인념과 강의한 의지만이 아니라 자기의 리상과 포부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체험하게 되는 복잡한 심리, 사상감정들이 있는것이다.

문학은 인간의 이러한 미묘한 심리, 감정세계에로 깊이 파고들어가지 않고서는 인간을 참답게 보여줄수 없다.

그러므로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고 진실하게 그릴데 대한 당의 방침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를 사상과 감정, 정서세계까지 보여주는 참다운 혁명가, 인간으로 그릴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실현방도를 밝혀준 탁월한 사상으로 된다.

우리 당은 주인공의 사상감정, 내면세계를 폭넓고 깊이있게 그리기 위하여서는 주인공의 사상의식의 발전과정에 주목을 돌려야 할뿐아니라 인간의 심리, 주정, 감정세계를 생활과 밀착시켜 그릴데 대한 문제, 주인공의 성격을 비반복적인 개성으로 생동하게 그릴데 대한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높은 사상정신적품모를 훌륭히 재현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은 자주적인간의 전형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를 높은 경지에서 전형화할수 있게 됨으로써 사상적가치와 예술적품격을 다같이 겸비한 문학으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에 참답게 이바지 할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토지혁명의 거창한 력사적사변을 반영

한 장편소설 《새봄》이 거둔 높은 사상예술적성과의 하나는 토지개혁당시 사회력사적현실과 농민들의 성격형상을 진실하고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폭넓고 깊이 있게 그려낸데 있다.

작품에서는 주인공 최명진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형상을 그들의 내면세계에까지 깊이 파고들어가 심리세계의 미묘한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고 그림으로써 그렇듯 생동하고 뚜렷한 개성으로 형상하였다.

주인공 명진이와 귀남이, 동석준이들은 다같이 토지혁명의 앞장에 선 농촌핵심들이지만 각기 다른 개성적얼굴을 가지고 저마다 사랑스럽게 안겨오는것은 그들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탐구하고 추구하였기때문이다.

영화문학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의 주인공 강연옥의 성격형상이 그렇듯 매력적이고 감동적이면서도 숭고한 감정으로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며 깊은 여운을 오래오래 남기게 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적후천리 먼 후방병원으로 환자들을 후송하는 그 준엄한 행군길에서 최고사령부를 그리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을 축수하는 소박한 인민군녀전사의 숭고한 내면세계를 투철하게 그려낸데있다.

당원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를 묻던 애어린 단발머리처녀가 가렬처절한 전쟁의 포화속에서 그것을 심장으로 체득하였기에 그 길에서 자기의 청춘을 바쳐 혁명전우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원증과 당비를 당중앙에 바칠수 있었다. 작품은 그러한 숭고하고 영웅적인 행동의 깊은 세계를 사실주의적화폭으로 진실하게 그리였기때문에 그처럼 숭엄하고 아름다운 인간세계를 격동적으로 담을수 있었다.

당에서는 이외에도 자주적인간의 성격을 시대와 사회제도, 민족특성에 맞게 그릴데 대한 문제, 원형에 기초하여 전형화할데 대한 문제, 실생활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그릴데 대한 문제 등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형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우리 문학에서 주인공문제가 이처럼 빛나게 해결될수 있는것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과 그를 구현하기 위한 형상방법론이 있었기때문이다.

우리 문학에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빛나게 창조할수 있었던 모든 요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참으로 우리 당에서 내놓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사상과 리론은 인류문학발전과 우리 나라 문학발전의 현실태를 주체적립장에서 분석총화한데 기초하여 밝힌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지도적지침이다.

그것은 또한 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위대한 주체시대의 새로운 역사적요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건설의 합법적적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는 완전히 독창적인 주체의 문학건설사상과 리론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주체적문예리론이 창시됨으로써 인류는 비로소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의 새로운 면모를 문학형상을 통하여 볼수 있게 되었으며 그것을 자주성을 위한 투쟁과 생활의 본보기로 거울로 삼을수 있게 되었다.

## 2

우리 당은 주체시대의 문학이 나아갈 진로를 개척해주었을뿐아니라 창작실천을 통하여 그것을 철저히 구현할수 있는 원칙과 방도들을 밝히고 세심하고 정력적인 지도와 한없는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혁명문학은 자주적인간인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사상예술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창조할수 있게 되었으며 그것을 통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당의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되었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새생활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되었다.

참으로 우리 문학이 창조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탄생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혁명문학건설에 대한 사랑의 결실일뿐 아니라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과 로고의 빛나는 결실이기도 한다.

우리 당은 주체 시대가 요구하는 자주적인 인간전형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본보기를 창조할데 대한 원칙적요구와 그를 구현할수 있는 제반방도를 밝혀주었을뿐아니라 그 구현을 위한 어렵고도 복잡한 탐구과정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책임무로 규정하고 우리 작가들을 그 위업수행의 초병으로 내세워주었다.

당은 우리 문학으로 하여금 주체시대의 주인공문제를 빛나게 해결하는 주체의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문학예술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도록 이끌어주었다.

우리 당에 의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혁명영화와 혁명가극, 혁명연극, 혁명소설로 옮기는 역사적위업이 수행된것은 우리 문학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해준것으로 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 《한 자위 단원의 운명》, 《꽃피는 처녀》의 주인공들의 형

상은 우리 문학이 따르고 본받아야 할 영원한 귀감이며 주체적문예사상의 위대성과 그 거대한 생활력을 실천적으로 따라배우게 하는 산 모범이다.

우리 당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빛나게 형상하도록 우리 작가들을 세심하게 이끌어줌으로써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본보기를 마련해주었을뿐아니라 공산주의 운동발전의 본질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낼수 있는 혁명소설을 빛나게 창작할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과 함께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서의 공격을 전면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우리 당은 이처럼 주체시대의 자주적인간전형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성격을 전면적으로 창조할수 있는 문학적인 기반을 튼튼히 마련해준데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품속에서 자주적인 인간전형으로 자라난 우리 시대의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를 빛나게 형상하도록 비범한 예지와 뜨거운 사랑과 비상한 창조적열정으로 우리 작가들의 창작과정을 세심하게 이끌어주고 보살펴주었다.

참으로 우리 문학이 창조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그 모든 빛나는 형상마다에는 우리 당의 뜨거운 손길과 사랑이 미치지 않은것이란 단 하나도 없다.

장편소설 《축원》과 《새봄》, 《생명수》 등이 그처럼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혁명적대작으로 창작되게 된것도 전적으로 당의 은혜로운 사랑의 뜨거운 손길이 이 소설들의 갈피갈피마다에 당에 있었기때문이다.

당에서는 이 소설들의 종자로부터 문학적인 줄거리, 주제, 갈등과 양상문제 등 어렵고 복잡한 모든 문제들을 창작실천에서 원만히 해결해나갈수 있도록 실천적방도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었을뿐아니라 창작과정을 세심하게 이끌어주었으며 작품이 다 되어 세상에 나왔을 때에는 그 출판과 배포에 이르기까지 크나큰 배려를 다 돌려주었다.

또한 당에서는 이 작품들을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광범히 읽을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주었으며 방송과 신문지상에 광범히 소개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었다.

당에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철학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하는 주인이며 그 담당자들인 작가자신들이 먼저 혁명화, 노동계급화되어야 한다는 탁월한 사상을 내놓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지도하였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작품창

작과정을 곧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으로 만들데 대한 방침이다.

작가의 창작과정은 당에서 준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혁명적실천과정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작가의 충성심은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 작품창작에서 표현된다.

그러므로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만듦으로써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수 있고 당조직생활과 사상정치생활에 성실하게 참가하여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자신을 부단히 개조해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적인 작가로 튼튼히 준비될수 있게 한다.

그러기에 당에서는 이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정력적으로 지도하였으며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었다.

당에서는 우리 작가들이 쓴 장편소설들과 영화문학, 가사와 시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을 보아주고 잘못된것은 바로잡아주고 창작과정에서 파오를 범하면 잘못을 따듯이 일깨워주고 자그마한 성과라도 거두면 분에 넘치는 평가를 주고 고무하면서 우리 작가들을 보람찬 혁명화의 한길로 손잡아 이끌어줌으로써 오늘 우리의 작가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작가로 튼튼히 준비되고있다.

당에서는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현실속에 깊이 침투하며 정치적식견과 안목을 높이며 창작적기량을 부단히 연마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보장해줌으로써 우리 작가들은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창작실천을 통하여 끊임없이 빛내어나갈수 있게 되었다.

당에서 돌려주는 이러한 크나큰 사랑과 믿음,

가사

## 향도의 빛발 찬란하여라

한관호

만수대언덕엔 은하수 비껴흐르고  
당중앙 창가엔 이 밤도 불빛밝아라  
장군별 빛나던 백두의 그 밤처럼  
향도의 불빛밝은 수도의 밤이여

따사론 그 사랑 쇠물에 붉게 어리고  
설레는 대지에 열매로 주렁지네

은정깊은 배려가 있었기에 우리 문학은 로동계급의 혁명문학건설에서 어려운 력사적과제로 제기되었던 우리 시대의 혁명적주인공문제를 빛나게 해결할수 있었던것이다.

유설경, 강연옥, 억만대장, 광록 등 영화문학의 주인공들과 함께 최명진, 박대성, 리상철, 현우림 등 수많은 소설문학의 주인공들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으로 빛나게 창조되어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깊은 충격과 교훈을 주며 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생활과 투쟁의 참된 교양자로, 친근한 길동무로 되고있다.

또한 우리 문학의 주인공들은 자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크나큰 고무적힘을 안겨주고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룩된 이 모든 자랑찬 성과들은 전적으로 우리 당이 내놓은 혁명문학건설에 대한 방침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극진한 사랑과 배려의 고귀한 결실이며 깊은 심려와 로고로 하여 이룩된 위대한 불멸의 업적이다.

우리 당에 의하여 우리 문학이 이룩한 이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고 빛나게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작가들앞에 나선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혁명파업이다.

오늘 우리 작가들은 당의 령도밑에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창조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이 혁명적전환의 력사를 자랑스럽게 더듬으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문학건설의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할 굳은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이 밤도 락원의 강산을 빛내는  
한없이 은혜로운 향도의 빛발이여

자애론 그 품에 행복은 꽃으로 피고  
그 불빛 찬란히 미래를 밝혀주네  
누리에 비껴가는 향도의 빛발아래  
공산주의 새아침은 이 땅에 밝아오네

# 주체의 혁명주권을 받들어

김봉운

아름다워라  
내가 사는 이 땅 이 하늘  
거리엔 흐르는 사람들의 물결  
그 어느 집 창가를 바라보아도  
해빛 향해 방긋 웃는 꽃송이들

생각에 잠겨  
버들숲 강변길을 걷다가도  
문득 가슴에 젖어드는것은  
태어난 첫날부터  
생활의 한끝까지  
걸음걸음 손잡아이어주는  
사랑의 그 해빛

어린날부터  
어머니라 부르며 따른 자욱  
저 산과 들에 어리어  
내 눈시울 이처럼 젖어드는것인가  
살아갈 한치의 땅마저 빼앗기고  
바람부는 동쪽길에 나서던 그 시절엔  
아린 눈물속에 서글프던 저 하늘

슬픔과 눈물을 가셔버린 이 땅우에  
솔문을 높이 세우던 민주선거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러  
내 바친 충성의 첫 한표가  
해빛 찬란한 저 하늘에 휘날리는  
공화국기치우에  
오각별로 빛나는것이 아닌가

어둡던 저 하늘에 타오른 그 붉은별  
내 삶이며 희망인

공화국기발을 우러르며  
밝고 사는 땅은 있어도  
그 빛발이 없이는  
삶이 꽃이 아님을 깨달았으니

창가에 피어나는 꽃송이도  
그 빛을 받아  
이 땅에 웃음을 주며 향기를 날리고  
마치를 친 손엔 공장이  
낮을 친 손엔 만풍년의 들판이  
가슴 벌게 안겨졌어라

아, 하늘도 땅도  
나를 낳은 어머니도 줄수 없었던  
그 모든 행복과 존엄을  
한가득 안겨준 참된 삶의 요람  
우리의 혁명주권이여

만경대의 해돋이에서 시작된  
광휘로운 빛발로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이 땅우에 꽃피워주는  
그 은혜로움을 어찌 잊으랴

내 열백번 다시 태어난대도  
그 사랑 그 품속에서  
태양을 따르는 한떨기 꽃으로 피고  
내 천만번 죽는다 해도  
주체의 조국  
주체의 혁명주권을 받들어  
영원히 지지 않는 별이 되리라!

## 땀흘린 땅에서 외 2 편

리일복

내 이 섬을 위해  
한방울의 땀도 흘리지 않았다면  
동쪽길을 걷는 이 마음  
이리도 뜨겁지 않으리라

가슴으로 동쪽을 안아올리며  
섬우에 펼쳐질 앞날을  
황홀하게 꿈꾸어보지 않았다면  
내 이토록 눈시울 뜨거이  
이 섬을 바라볼수 없으리라

이 모든것이 꿈으로만 있던 그때  
눈앞엔 오직 물과 감탕뿐  
모든것이 아득한 일로만 생각되던 때  
우리는 여기서 땀을 흘렸다

온몸에 감탕을 매닥질했어도  
우리의 눈빛은 밝게 빛났고  
어깨로 감탕덩이를 밀어올리며  
때로 온몸이 수렁 깊이 빠져들어도  
웃었다 노래를 불렀다  
꿈이 있었기에  
꿈을 믿었기에...

밀물지면  
생활선의 흔들리는 배우에서  
쪽잠에 깊이 빠져들다가도  
썰물지면  
깊은 밤중에도 소스라쳐 일어나  
감탕을 파올러 동쪽을 쌓으며  
흘리던 땀방울 누가 보았던가  
  
눈과 입으로 흘려드는 그것이

바다물인지 땀방울인지 가늠할수 없었어도  
우리는 청춘시절의 가장 뜨거운 인정을  
치녀에게보다 먼저  
감탕뿐이던 이 섬에 쏟아부었다  
꿈이 있었기에  
그 꿈을 굳게 믿었기에...

뜨거워라 심장이여 눈시울이여  
네 어찌 진정칠 못하느냐  
눈앞에 펼쳐진 오늘의 섬풍경앞에-

파일나무 우거진 오붓한 마을  
동쪽우로 달리는 경쾌한 뺨스  
높이 솟은 학교마당에서  
와와- 아이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

바로 이것이 아니더냐  
우리 땀으로 온몸을 적시면서도  
그토록 그러보며 힘을 내게 한것이  
아낌없이 청춘시절을 바다우에 쏟으며  
우리 바라던 그 간절한 꿈이...

새 삶이 한껏 무르익는 섬  
꿈보다 더 활짝 꽃핀 섬을 바라보며  
가슴뿌듯이 느끼는 건설자의 긍지여  
밀물처럼 가슴가득 차넘치는 환희여!

아 이래서 우리  
아낌없이 땀을 쏟은게 아니더냐  
흘린 땀은 사라져도  
그것으로 가꾸어진 열매는  
영원히 꽃피는 법이니...



## 바다위의 꽃

꽃이 폈다 온 섬에  
집집마다 웃음꽃  
탁아소 유치원 학교마다엔  
얼굴들이 온통 그대로 꽃인가

꽃이 폈다 온 섬에  
갈밭엔 갈꽃이  
파원엔 파잎꽃이  
정원엔 온갖 꽃이  
동쪽엔 들꽃이...

온갖 새 날아들어  
피는 꽃을 노래하고  
꿀벌 나비 춤을 추며  
꽃을 찾아 반긴다

꽃으로 넘치는 땅우에 서서  
단 한송이 꽃도 없던  
건설의 그날을 그려보긴 어렵구나  
파연 이 땅이  
감탕우에 갈게때만 옥실대던곳인가...

생각나라 어제런듯  
몇년을 하루와 같이  
감탕과 씨름하며  
쌓아올린 동쪽우에 첫 꽃이 피던 날

어디서 바람에 날아온 씨앗이  
여기 떨어져 자랐는지  
파아란 가을하늘아래  
가냘픈 들국화 한송이 피어  
하늘하늘 살랑덜 때

신기한것 발견한듯  
온 건설장이 떠들썩

모두 달려와 빙 둘러섰었지  
지배인도 당비서도  
청년건설자들도...

땀흘려 일떠세운 그 땅우에  
삶의 첫 꽃이 핀것을 보며  
말없이 서있던 건설자들속에서  
문득 흐느끼는 소리  
애어린 처녀건설자의 철없는 울음이라  
나무라기보다 먼저  
모두의 두눈에 이슬이 돋았다

세상사람 꽃을 보며 웃지만  
비단섬건설자들 꽃을 보고 울었다는  
전설같은 그 일이 어제같은데  
보라! 오늘 섬우엔 온통 꽃  
섬은 그대로 꽃의 바다...

아, 정녕 비단섬은 통채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으로 가꾸어진  
행복의 꽃송이로  
두둥실 바다위에 떠있는가!

은혜론 태양의 빛발아래  
사철 질줄 모르는 행복의 꽃  
세월이 갈수록 더더욱 활짝 피는  
기쁨의 꽃 무르녹는 삶의 꽃으로...

꽃으로 가득차고  
그대로 꽃으로 핀  
섬이여 너를 보니  
한송이 꽃을 보며 감격의 눈물짓던  
개간지의 그날이 생각나서  
아 웃는 내 얼굴에  
저도모르게 뜨거운것 흘러내리누나...

## 사랑의 길

날씨도 바다도  
변덕스러웠다  
겨울의 추위 언 바다여  
삼단같이 밀물이 치밀어오르면

깨어진 얼음덩이 둥둥 떠  
마치 봄시위때라도 된듯  
사나운 물길에

배는 못가고  
깨어터진 얼음길에  
걸어선 더욱 못가

출장갔던 사람들 돌아오다  
마주보는 물에 려장을 풀고  
다가온 설명절 생각으로  
마음 무겁고

출장왔던 사람들  
돌아 못가  
아버지 없이 설명절 설  
아이들 생각에 생각 깊을 때

예고도 없이 문득  
직승기가 날아왔다  
크나큰 하늘의 집  
큰 문을 열고 손저어 불렀다

영광스런 당중앙에서  
동무들이 집에 가서 설을 쇠라고  
특별히 보내준 비행기이니  
사양 말고 어서 타라고!

어떻게 알았을가  
온 나라를 돌보는 당중앙에서  
어떻게 서해의 막바지  
이름없는 섬의 몇 안되는 출장원  
딱한 이 사정을 알고  
이렇게 비행기까지 보내주는것일가...

## 가사

만경봉에 솟아오른 인민의 태양  
백두에 솟은 향도의 새별  
이 강산에 밝게 빛을 뿌리네  
그 빛발 안고 삶을 빛내는  
인민의 기쁨 끝이 없어라

은혜론 그 빛발 이 땅에 넘치여  
주체의 락원 꽃피어나고  
우리의 미래 밝게 열리네

가슴이 설레고  
눈굽이 뜨거워  
꿈같이 난생처음 타보는  
비행기 시창에 얼굴을 대니  
섬은 발아래 손저어 반기고  
조국땅은 축복의 손길 보내주는듯...

가슴을 쿵쿵 두드리는 생각-  
길은 땅우에만 있지 않고  
길은 물우에만 있지 않고  
길은 아 길은  
하늘에도 있었구나!

어버이수령님 열어주신 물길우에  
은혜론 당중앙이 열어준 하늘길이어!  
계승되는 사랑의 해빛아래  
복받은 땅 복받은 사람들

위대한 수령님 뜻을 이어  
당은 우리 인민을 위해  
그 어데도 사랑의 길 열어주나니

이 땅 그 어느 막바지  
그 어느 바다 한가운데라 해도  
인민이 사는곳이면  
그 어데나 그 어느데나 열어주는  
은혜론 사랑의 그 길을 걸어  
영원한 행복의 그 길을 걸어  
인민이 가고 조선이 간다!

## 빛나라 해와 별

### 한찬보

해와 별 함께 반들어가는  
조선의 행복 끝이 없어라

이 세상 한끝까지 해와 별 빛나라  
찬란한 빛발 누리를 밝혀  
인류의 새봄 안아온다네  
해와 별 높이 모신 내 나라  
누리에 영광 길이 떨치리

# 영광의 한표를 바치러 가며

리재남

마음속 기쁨처럼

아름다운 노을이 피어나는 바다가

공민중 소중히 품고

나는 이 길을 간다

영광의 한표를 바치러

갈매기도 이 길을 축복해주는가

파도위에 유유히 날아돌고

간석지에 다져놓은 제방뚝이

저 멀리서 내 가는 길을 바래주는듯

가슴은 한없이 설레이누나

이 땅에 혁명주권 다지는

경사로운 그때마다

선거장으로 가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축하의 꽃보라 뿌려주며 뿌려주며

북소리 높이 선거의 노래를 불렀더니

오늘은 나도 이 길을 간다

이 길을 간다

사람마다 즐거이 걸으며

우리의 혁명주권을 받아들여온 길

그 길우에 나의 첫걸음을 옮기던

어린시절 뛰어달리던 고향의 동구길

노래높이 오가던 학교길과 야영길을 그려보며...

희망을 안고 꿈을 안고

내 개간지로 떠나던 날

친구들이 안겨주는 꽃다발을 받으며

뜨거운 맹세의 큰 자욱을 떼던

그 자욱이 이 길에 새겨진것 아니던가

간석지에서 내가 떠내는

그 한줌 한줌의 흙이

그대로 내 나라 내 조국임을 알게 하는

내 로동의 걸음걸음도

이 길에 트림없이 이어지거니

길이어

조국이 나를 키워주었고

내 조국을 받들어가는

행복한 길

성스러운 길이어

얼마나 뜻깊은 길이나

저 멀리 백두산기슭의 유격구를 지켜

한몸을 바친 신호수 그 아동단원

나를 부르며 앞서 걷는듯

비발치는 탄우속에 공화국기발 날리며

원쑤의 화점에 육박한 그 전사

내 손을 잡아주며 함께 가는듯

아 선렬들의 붉은 피로

찾아지킨 인민의 혁명주권

아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으로

나의 희망 나의 행복 꽃피워주는

우리의 주권을 받들어

이 길우에서 충성의 한표를 바치러

파도사나운 바다를 막아

조국땅을 넓혀가는

천리제방을 쌓아온

개간자의 권리로

수령님 품에서 새세대로 자라난

이 땅의 청년공민의 땀땀한 의무로!

아 이 아침

내 충성의 한표를 바치러 가는

이 길을 따라 조국땅은 더 넓어지고

이 한길우에

인민의 주권은 반석같이 다져지리라!

## 위원회가 끝난후에

김형지

크지 않은 회의실에서는 래달전투계획을 준비하는 광산초급당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고있었다.

청년갱 분초급당비서 최병걸은 광산당위원회에서 확정한 자기네 갱 래달계획이 예비토의때 갱에서 종합한 수자보다 훨씬 적은게 저으기 안심되었다. 전투조직을 잘 하고 보장사업만 따라 세우면 래달 갱계획도 한주일쯤 앞당겨 지표별로 끝낼 자신이 있었다.

(예비토의때 종합한 수자를 증산결의목표로 내세우고 전투를 벌여야지!)

최병걸은 이런 생각을 하며 사업수첩 맨 뒤장을 번졌다. 거기에는 지표별 갱 년간계획과 월별계획대 실적이 소대별로 적혀있었다.

병걸은 그 수자들을 들여다보며 갱 년간계획을 당장친기념일전으로 끝내려면 전진속도를 얼마나 더 높여야 하겠는가를 타산해보았다.

그런데 회의를 결속하고있던 광산초급당위원회 리인섭비서가 자기를 내려다보고있었던듯 일군들은 생산수자를 볼것이 아니라 쇠돌을 캐내는 사람들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것이였다.

병걸은 슬그머니 계획대 실적이 적혀있는 수첩장을 덮으며 고개를 들었다.

리인섭비서는 자기를 보지 않고 그보다는 더 뒤의 누구를 보면서 말하고있었다.

그러나 병걸에게는 초급당비서가 바로 자기를 녀두에 두고 이야기하고있다고 확신하였다. 이름은 찍지 않고 그저 《일부 일군들속에서는...》하고 말했지만 며칠전 자기네 청년갱에서 있었던 일과 신통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것이였다.

분초급당위원회에서는 바로 이런 군중토의를 거쳐 종합된 수자를 놓고 래달 갱전투계획을 토론하였다.

그때 채광6소대장 박창석이가 자기 소대앞에 차려진 49호채굴장을 운광조건이 나쁘다고 말하려 하지 않았다. 갱장이 이달안으로 운광조건을 원만히 풀어준대도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년간 쇠돌생산계획을 4개월이나 앞당겨 9.9절까지 끝낼것을 결의하고 긴장된 전투를 벌리고있는 자기네를 왜 당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지해주고 밀어주지 않는가고 노여운 소리까지 하는것이였다.

최병걸은 더 참을수가 없었다. 전번 새 착암기가 들어왔을 때 바꾸어 주지 않는다고 툴툴거리는 박창석을 보면서는 착암공이면 누구나 새착암기를 탐낼수 있는 일이여서 그냥 스쳐지났는데

오늘 채굴장타발까지 하는걸 보니 단단히 병이 든게 분명했다.

《소대장동무! 땅짚고 헤엄치는것도 그 무슨 혁신이라고 생각하우?》

병걸은 자못 짹짹하게 말했다. 좋은 설비, 좋은 로력, 좋은 채광조건을 가지고서야 누가 계획을 앞당기지 못하겠는가. 그렇기때문에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할것이며 아무도 밀어주지 않을것이다.

당조직은 동무처럼 조건타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숨은 영웅들처럼 애오라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말없이 직심스레 일하는 사람들을 지지할것이며 그들을 힘있게 밀어줄것이다.

병걸은 그때 대략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지금도 병걸은 그 말이 지나쳤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런데 리인섭비서는 분명 자기를 녀두에 두고 일군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있다.

작풍이 좋아야 한다고 해서 당적원칙을 양보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렇지만 병걸은 떠오르는 불쾌한 생각을 눌러 버리고 자기를 돌이켜보려고 하였다. 광산초급당비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대도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돌이켜보아야 할진대 분명 나를 녀두에 두고 이야기하는데 당사자인 내가 불만스럽게만 생각해서야 되랴싶었다.

돌이켜보면 뉘우쳐지는바가 없지 않았다. 그때 찌푸둥해서 앉아있던 박창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즈막에는 창석이가 슬슬 피해다니는것 같기도 했다.

(고쳐야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본인이 먹지 않으면 약이 안되는법이니까.)

병걸은 사업수첩에 《박창석동무와 담화할것!》이라고 쓰고 그 두리에 동그라미를 큼직하게 쳤다.

병걸이가 동그라미를 하나 더 치며 자기도 울컥하는 성미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리인섭비서가 회의를 결속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지배인이 일어서자 회의에 참가했던 과장들과 직장장들도 따라 일어섰다.

병걸이도 사업수첩을 접었다.

그때 리인섭비서가 시계를 보고나서 한마디 하였다.

《분초급당비서동무들은 잠깐 그 자리에 앉아있

으십시오.》

흔히 있는 일이라서 병결은 별로 다른 생각없이 기다렸다. 이제 다른 포치사업이 있을것이였다.

그런데 먼저 갈 사람들이 다 나가고 회의실이 조용해지자 초급당비서는 어쭙은 미소를 머금으며 랑해부터 구하는것이였다.

《미안하지만 내 개인적인 부탁을 하나 토론해 주지 않겠습니까?》

모두 놀라운 눈길을 들었다.

그 무슨 포치사업이 있으려니 생각하고있던 최병결에도 사뭇 뜻밖이였다. 사사로운 문제에서는 그렇게도 청렴한 초급당비서가 자기의 개인적인 부탁을 초급일군들의 토론에 붙인다는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초급당비서가 새로 부임되어온지 얼마 안되어 온 광산마을에 짜하니 소문이 났던 일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있는 병결이였다.

2년전 7월하순이였다.

그때 식량공급소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울감자를 내주고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점심시간에 부임된지 얼마 안되는 광산초급당비서가 가마니두짝을 올려놓은 손달구지를 끌고 식량공급소에 나타났다.

식량공급소 소장은 당황했다. 광산초급당비서가 감자를 가져가려고 손달구지를 끌고 식량공급소에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소장이였다.

소장은 비서가 쥐고있는 손달구지채를 붙잡으며 황급히 변명했다.

《미안합니다. 사모님의 얼굴을 아직 잘 모르다나니 우리 동무들이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원 별소리 다 하우. 마침 점심시간이 돼서 산보삼아 왔소.

자, 타놓은 감자가 어느건지 제껴 실읍시다.》

《그냥 두십시오! 직동공급소에 감자를 싣고 들어간 자동차가 나오면 곧 댁으로 실어가겠습니다.》

《자동차로 실어다주겠단말이요?》

리인섭비서는 땀별이 내려쪼이는데 다행이라는 듯 눈을 빛내이며 되물었다.

소장도 저으기 안심되어 두손을 마주 비비며 제껴 대답했다.

《예! 조금 있으면 자동차가 돌아옵니다.》

《동무네는 대단하구만. 온 세계가 원유란때문에 아우성을 치고있는데 매개 광부들의 식량까지 집집이 날라다 줄 휘발유가 있으니.》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만 비서동지네 댁의 거야 뭐...》

《허허... 소장동무, 동무는 일을 그닥 잘하는것 같지 않소. 이전에든 늘 그랬소?》

《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염천에 비서동지가 어떻게 손달구지를 끌고 큰길루...》

《허허... 걱정해줘서 고맙소. 그렇지만 동무가 간부들네 집에만 식량을 자동차로 실어다준다면 난 매번 이렇게 오곤하겠소.》

리인섭비서는 이렇게 말하며 감자가마니를 싣고 돌아갔다.

그런데 초급당비서가 그런 수고를 한것을 자기의 불찰로 여긴 승용차운전사는 명심하고있다가 초급당비서네 8월상순 식량을 승용차에 실어갔다.

운전사는 그 일때문에 그날 오후부터 운전대를 쥐지 못했다. 초급당비서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했던것이다.

리인섭비서는 꼭 한달이 지나서야 승용차운전사를 자기의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내가 왜 동무에게 그런 처벌을 주었는지 좀 생각해 봤소?》

《예...》

초급당비서의 물음에 운전사는 대뜸 눈물이 글썽해지며 목안의 소리로 대답하였다.

《그래, 왜 처벌을 준것 같소?》

《제가 자기의 임무를 망각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위원회사업을 잘 보장하라고 보내주신 승용차를 가지고 자유주의를 부렸기때문입니다.》

《웁소! 바로 그거요! 자기의 결함을 정확히 찾은걸보니 다시는 그런 파오를 범하지 않겠소.

그렇지만 동무가 그런 파오를 다시 범하지 않는다고 우리 광산에서 그와 같은 일이 아주 없어질것 같소?》

《비서동지! 제가 오늘부터 자동차직장에 나가겠습니다!》

《그래 주겠소? 그럼 사실 큰 문제를 하나 해결하겠는데.》

운전사는 그 길로 자동차직장에 나갔다. 그후 얼마 안있어 국가자동차를 가지고 제삿을 내는 일은 씻은듯이 없어졌다.

리인섭비서는 바로 이런 사람이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자기의 개인적인 부탁을 초급일군들의 집체적인 토의에 붙이는지 병결에게는 놀랍기만 하였다. 그래서 병결은 새삼스러운 눈길을 리인섭비서한테로 돌렸다.

리인섭비서는 각지긴 손을 사업수첩우에 올려놓으며 두툼한 입술을 열었다.

《이틀이나 신고를 했는데도 গত날의 이름을 짓지 못해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초급당비서의 얼굴에 어떻게나 간절한 빛이 어렸던지 병결은 리인섭비서가 아버지가 되기에는 좀 늙었고 할아버지가 되기에는 너무도 젊다는것을 미처 생각지 못했다. 그저 자기의 아이의 이름을 하나 멋들어지게 지어주고싶은 충동을 느꼈

을뿐이었다.

그러나 신통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떠올랐대도 방금전에 있었던 일때문에 선뜻 일어나서지 못했을것이였다. 사실 병결은 초급당비서가 선망이 어린 눈길로 좌중을 둘러볼 때 그 눈길을 피하여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다.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혁신갱 분초급당비서가 이렇게 묻자 리인섭비서는 《손녀요. 여간 귀엽게 생기지 않았소.》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웅덕갱 분초급당비서가 앉은 자리에서 소리쳤다.

《리광선.》

《광선이라.》

리인섭비서는 이렇게 받아외우며 수첩우에 펴놓은 백지에 받아썼다. 그러자 저마다 생각나는데로 주어섬겼다.

《리금옥.》

《리철순.》

《리석화.》

.....

부르는데로 부지런히 받아적던 초급당비서는 돌연 머리를 들었다.

《가만, 성은 리가가 아니고 장가요. 그러니 기왕이면 어감도 고려해주시요.》

병결은 그체서야 초급당비서가 자기네 집 아이의 이름을 집체토의 불인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아차렸다. 아무렴 개인생활에서 것처럼 철저한 사람이 자기집 아이의 이름을 초급일군들의 집체토의에 붙이겠는가. 하면서도 그럼 대판질 뉘집 손녀이기에 그리도 고심하는가싶은 호기심이 부쩍 동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다른 분초급당비서들도 그런 심정인듯 멍청하니 리인섭비서를 바라볼뿐 더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초급당비서는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둘러보다가 병결의 눈길과 마주쳤다.

《참, 청년갱 분초급당비서동무는 뭐 좋은 생각이 없소?》

《뭐 별로...》

병결은 엉겁결에 일어나려다가 초급당비서가 앉으라고 손짓해서 그냥 앉았다. 이상하게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조급전에 초급당비서한테서 받은 지적이 떠올랐다. 오늘은 유별나게 자기한테 주목을 돌리는것 같았다.

(왜 그러나?)

병결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초급당비서가 원주필을 거두며 한마디 하는것이였다.

《초급당부비서동무와도 토론해 봤는데 봄빛이 좋겠다는 의견이였습니다.》

그게 뜻도 깊고 조선적이여서 좋겠다고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데 초급당비서는 수고했다고 거듭 인사를 하며 일어섰다.

병결이도 사업수첩을 가방안에 넣었다.

그런데 당위원회청사 복도로 통한 문으로 나가려던 초급당비서가 다시금 부르는것이였다.

병결은 느닷없이 가슴이 후두두 뛰는것을 느끼며 일어섰다.

《밖에서 좀 기다리요.》

초급당비서는 극히 실무적으로 한마디하고 나가버렸다.

병결은 기분이 좋지 못했다. 자기가 언성을 좀 높인것은 사실이지만 좋은 채굴장만 말으려는 박창석의 소행에 타격을 준것은 옳지 않았는가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두고 비록 이름은 찍지 않았다고 해도 한번 이야기했으면 됐지 뭐 또 개별담화까지 하려고 하는가.

그렇지만 병결은 머리를 드는 불만스러운 생각을 누르며 회의실 앞마당에 놓여있는 커다란 사기재털이 옆에서 담배를 붙여물었다.

그가 담배 한대를 만나마 태웠을 때 작업복차림을 한 초급당비서가 안전모를 들고 나왔다. 그 뒤로는 초급당비서네 쌀을 실어갔다가 처벌을 받았던 그 운전사가 종이꾸레미를 들고 따라섰다.

《갱으로 올라 가겠지? 같이 가가요.》

초급당비서는 병결을 먼저 밀어올리고 자기도 승용차에 올랐다.

병결은 제혼자 쥘고 까분것을 내심 후회하며 편안히 자리를 잡았다.

광산당위원회 마당을 조용히 미끄러져 나온 승용차는 큰길에 나서자 차츰 속력을 높이기 시작했다.

승용차가 노동자회관을 지나 사택마을 한판으로 난 넓은 길을 달리고있을 때였다.

유치원 꽃대문에서 둘씩 짝을 지어 손을 맞잡은 유치원아이들의 긴 행렬이 쏟아져나왔다. 유치원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양이였다.

그 애들은 승용차가 가까이 다가가자 걸음을 멈추고 엎어질듯이 힘있게 허리를 굽히며 큰소리로 인사를 했다. 그중에는 두번세번 련거퍼 인사를 하는 애들도 있었다.

초급당비서는 승용차를 세우게 하고 차창을 내려놓더니 상반신을 내밀고 손을 흔들며 련방 머리를 끄덕이였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자 아이들도 신이 나서 손을 흔들며 지나갔다.

이윽고 한손에는 처녀애의 손을, 다른 손에는 사내애의 손을 잡은 유치원교양원이 아이들과 같이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옥순선생이요? 수고하우. 음정이 맞지 않던 그 손퐁금은 고쳤소?》

《네. 비서동지가 오셨다가신 길로 회관에서 와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래? 그럼 좋구. 오늘 유치원에 못나온 애는 없소?》

《한명 있습니다.》

《왜? 앓소?》

초급당비서의 목소리가 어떻게나 다급하게 울렸던지 병결은 자기의 가슴도 불안스레 뛰는것을 느꼈다.

교양원도 그제야 자기가 대답을 똑똑히 하지 못했다는것을 깨달았는지 황급히 뒤를 달았다.

《아닙니다. 그 애는 어머니와 함께 외할머니환갑에 갔습니다.》

《그렇소? 그럼 그녀석이 무던히 좋아했겠구만. 허허...

자, 그럼 수고하우.》

초급당비서는 교양원과 아이들에게 다시금 손을 흔들어주고 승용차는 서서히 움직이였다.

초급당비서는 승용차가 굽인돌이를 꺾어들어 아이들이 더는 보이지 않게 되어서야 차창을 열고 바로 앉았다.

《난 저 동무들이 제일 부럽거든. 할수만 있다면 나두 교양원을 하고싶단말이요!》

리인섭비서가 어떻게나 진정을 담아 중얼거렸던지 병결은 저도모르게 돌아보았다. 등반이에 기대여 편안히 앉아서 앞차창을 바라보는 초급당비서의 얼굴에는 부러움이 한가득 실려있었다.

병결은 저으기 놀라왔다. 초급당비서에게 아이가 없다면 또 모른다. 그런 사람은 대개 아이들이라면 오금을 못쓰는법이니까. 그런데 맞춤형 오누이를 키우는 초급당비서가 아이들이라면 눈에 넣고 다니고싶어하고 지어 유치원교양원까지 부러워하는것이 병결에게는 얼른 이해되지 않았다.

병결은 세자식을 키우면서도 여간 성가스럽지 않았다. 모두 사내녀석들인데다가 한창 장난이 심할 때여서 그런지 집에서는 신문 한장 조용히 볼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쩌다 집에 있게 되면 한시가 멀다하게 소리를 치고 때로는 손찌검을 할것처럼 위협하기도 해야 했다.

그런데 리인섭초급당비서는 어떻게 된 사람이기에 두아이를 키우면서도 아이들이라면 그리도 오금을 못쓰는것인가?

이런 생각을 더듬는 병결의 머리에는 문득 위원회 뒤끝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는 퍼그나 의문스러웠지만 지금은 얼마간 이해가 되었다. 아이들을 것처럼 꼼짝이 귀여워하는 초급당비서이고 보면 뉘집 손녀의 이름이든 충분히 신경을 쓸것같았다. 그러면서도 뉘집손녀이기에 초급일

군들의 집체토론에 붙혔됐는지 퍼그나 궁금하였다.

병결은 그래서 초급당비서를 돌아다보며 물었다.

《참, 비서동지. 아까 집체토의에 붙였던 아이의 이름은 뉘집 손녀의 이름입니까?》

《왜? 꼭 알아야겠소?》

《그런건 아니지만...》

병결은 대답이 궁해져서 말끝을 맺지 못했다.

초급당비서는 사람 좋은 미소를 머금으며 대답하였다.

《동무네 청년갱 고문아바이의 손녀이름이요.》

《예? 아니 우리 갱 장세활아바이가 그런 부탁을 하더라말입니까?》

병결은 너무도 뜻밖이어서 눈이 켜해지는데 초급당비서는 빙그레 웃었다.

《아바이가 어떻게나 끈덕지게 조르는지 부탁을 안받을수 있더라구.

그런데 내 머리는 돌지 않구 그러니 동무들의 도움을 청할수밖에 있소?》

《원 아바이두, 이제 로망을 하는군.》

병결은 모닥불을 뉘집어쓴듯 얼굴이 핫핫 달아차창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혼자소리처럼 두덜거렸다. 광산초급당비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생판모르는 사람이 그런 미련을 부렸다면 어이 없는대로 리해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장세활아바이로 말하면 갱장으로 17년이나 일했다.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갱장사업을 젊은 기사한테 인계하고 고문으로 일하지만 광산초급당비서에게 어떤 부탁은 하고 어떤 부탁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너무도 잘 아는 그였다. 그런데 어떻게 되여 손녀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부탁까지 광산초급당비서에게 하였는가.

그런데 초급당비서는 오히려 체편에서 놀라와하며 되묻는것이였다.

《로망이라니?》

《로망이 아니고 뭘니까? 아래우도 모르고 그런 사사로운 부탁까지 하다니, 원...》

《시시한 부탁이라니?》

《아니 그럼 수백만톤의 쇠돌생산을 책임지고있는 비서동지에게 그런 사사로운 부탁을 하는게 응당하단말입니까?》

《병결동무!》

초급당비서는 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내더니 병결에게 먼저 한대 권하고 자기도 한대 붙여물었다.

《당사업 20여년에 그런 부탁을 처음 받아서 그런지 나는 세활아바이의 부탁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소. 난 이제야 겨우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중앙의 뜻대로 당사업을 하기 시작했구나 하구 말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고 하니 당사업이라는게 뭐요? 사람과의 사업이지?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을 헤치고 들어가면 갈수록 그들은 우리를 미더운 동지로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로, 벗으로 생각해준단말이요. 그래서 당일군에게는 무슨 얘기나 다 하고 어떤 부탁도 다 하는 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우. 그래서 장세활아바이가 손녀를 보았다고 기뻐하면서 이름을 지어달랄 때 하마트면 눈물을 보일번했소. 나를 친구로, 벗으로 대해주는 세활아바이가 눈물이 나도록 고맙더란말이요.

그런데 동무에게는 어떻게 되어 그 일이 시시하게 보이오?》

《…………》

병결은 대답을 못했다. 세활아바이의 손녀이름을 지어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새겨볼수록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심중한 문제였다.

거리상으로는 물론 함께 일한 년한으로 봐도 초급당비서와는 대비할수도 없는데 장아바이가 내게는 왜 그런 부탁을 안했는가? 아니 그런 부탁은 고사하고 손녀를 보았다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그런 부탁을 받을수 있을 만큼 일을 잘하지 못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제가 일을 쓰게 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병결은 쓸쓸히 대답하였다.

초급당비서는 심중한 표정으로 받았다.

《깊이 생각하는게 좋을것 같소. 아까 위원회를 결속하면서 피뚝 이야기했지만 채광6소대장 박창석동무 문제도 그렇지.

그 동무들이 채굴장을 꾸리는데 들어가보니가 장세활아바이는 창석동무를 보고 소대장이라고는 고사하고 이름이나 동무라는 말로도 부르지 않더군. 그저 야, 자, 이녀석, 저녀석하구 일을 조금만 설쳐도 대뜸 무서운 욕설을 퍼붓더군.

창석동무는 그래도 노여워하기는 커녕 별죽벌죽 웃으며 더 성수가 나서 일하더란말이요.

자, 보우!

조건타발을 하지 않고 말없이 착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참다운 혁신자라는 동무의 말도 옳고 일을 간지게 하라는 장세활아바이의 말도 다 같이 옳거던.

그런데 동무의 말을 들은 창석동무는 불이 부어 오르고 이즈막에는 동무를 슬슬 피해다니는데 동무보다 더 험한 욕설을 퍼붓는 장세활아바이의 말은 왜 조금도 탓하지 않는가?

여기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지 않소?》

《제가 일을 쓰게 못했습니다…»

병결은 한풀죽어 주눅든 목소리로 같은 대답을 되뇌이였다.

초급당비서도 여전히 심중한 낮빛으로 조용히 뒤를 이었다.

《문제는 그 보다 더 심중한것 같소. 우리 당일군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근본문제를 동무는 놓치고있단말이요. 알겠소? 까놓고 말하면 동무에게는 확실히 우리 광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부족하단말이요.

세활아바이를 놓고 보지요.

세활아바이는 동무가 터뜨려놓은 창석동무의 심사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 길로 창석동무를 따라 갱으로 들어갔소. 그리구 채굴장을 꾸리면서 자기들의 손으로 운광조건을 푸는 전투를 함께 벌리도록 했소. 그러다나니 식사도 제때에 하지 않고 갱안에서 며칠밤 새우다가 축한을 만나 쓰러졌소.

그런데도 동문 여태 장아바이의 병문안 한번 가지 않았거던.

물론 바쁘겠지. 그렇지만 우리 당일군들이 그래서야 되겠소?》

《비서동지!》

병결은 불뭉치같이 뜨거운것이 목구멍을 짹 메꾸어서 더는 아무 말도 못했다.

병결은 장세활아바이가 자기의 허물을 메꾸어 주려고 창석이를 따라 갱으로 들어간것도, 그러다가 쓰러진것도 모르고있는 자신이 저주롭기 그지 없었다. 너도 인간이냐고 소리치며 제손으로 제 따귀라도 갈기고싶었다.

초급당비서는 병결의 이런 심적변화를 뻔히 들여다보고있는듯 병결의 팔쪽지를 짹 잡았다.

《병결동무!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 바로 이것이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밝혀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 방법과 작풍을 지니는 출발점이요. 그렇기때문에 인민의 참다운 총복인 우리 당일군들은 인민들을 깊이 존경하고 뜨겁게 사랑하는것으로부터 자기의 사업을 시작해야 하우. 알겠소?》

《비서동지! 명심하겠습니다!》

병결은 자기의 팔쪽지를 잡고있는 초급당비서의 손을 잡았다.

초급당비서도 흐뭇한 미소를 머금으며 그의 손을 힘주어잡았다.

그때 승용차가 조용히 멎었다. 청년갱 사택마을 입구에 들어선것이였다.

《벌써 다 왔구만.

운전사동무, 약구레미를 주요.》

초급당비서가 이렇게 말하자 운전사가 아까 당위원회에서 들고나오던 종이구레미를 들어주었다.

초급당비서는 그것을 받아들며 병결을 돌아보았다.

《장아바이한테 같이 들리지 않겠소?》

병결은 이내 대답을 하지 못했다.



《왜 잘 접수되지 않소? 아까 회의를 결속할 때 부터 지은 이마주름이 퍼지지 않는구만.》

《아, 아닙니다. 사실은 산천어를 한종바리 잡아 가지고 갔으면 해서...》

병결은 황급히 가방을 옆에 끼며 내릴 차비를 했다.

《산천어라?》

《예, 세활아바이는 산천어매운탕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소? 역시 분초급당비서가 다르구만. 세활아바이의 식성까지 손금처럼 알고있구.》

그런데 산천어를 갑자기 어떻게 잡는다?》

《우리 집에 반두가 있습니다. 잠간이면 한종발 잡을수 있습니다.》

《그럼 오래간만에 고기잡이를 해본다?》

초급당비서가 이렇게 말하며 시계를 들여다보는데 운전사가 끼어들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비서동지! 그러다간 또 저녁 식사를 못하고 떠나겠습니다.》

병결은 놀라운 눈길로 비서와 운전사를 번갈아 보다가 물었다.

《어데 가십니까?》

《래일 도당에서 회의가 있어서...》

초급당비서는 어줍게 웃으며 말끝을 맺지 못했다.

그러나 병결에게는 너무도 평범한 그 말이 가슴뜨거웁게 안겨오면서 눈곱이 저려나는것이였다.

도당에 올라가자면 기차를 타야 하는데 기차시간까지는 이제 불과 50분이 남았다. 이 길로 돌아서도 바쁠것이다. 그런데도 초급당비서는 위원회 뒤끝에 생긴 짧은 출장준비시간도 한 일군을 위하여 바친것이였다.

아! 내가 일을 잘 했더라면 이런 수고를 안해도 되었을텐데... 아니 아까 회의를 결속할 때 흔연히 접수하고 밝은 얼굴을 보였어도 여기까지 같이 오지 않았을수도 있었을것인데...

병결은 생각할수록 가슴이 저려나서 사죄하듯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불렀다.

《비서동지!》

그리고는 잠간 사이를 두었다가 마음을 다잡으며 머리를 들었다.

《마음놓고 어서 떠나십시오. 제가 산천어를 잡아 가지고 장아바이를 찾아가겠습니다. 창석동무네 채굴장에도 들어가보고...》

병결은 뜨거운것이 피어올라 끝내 말끝을 마무리지 못했다.

《하긴 내가 가기보다 분초급당비서동무가 가면 더 반가와할거요.》

자, 그럼 오텔소.》

초급당비서는 이렇게 말하며 한약꾸레미와 여러가지 이름이 적혀있는 종이장을 내밀었다.

최병결은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받았다. 약봉지에서는 한약냄새가 물씬하니 풍겼다. 약냄새를 맡노라니 그것은 장세활아바이에게 보내는것이 아니라 초급당비서가 자기에게 주는 사랑의 약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병결이 머리를 들고 새삼스레 초급당비서를 바라보는데 초급당비서가 손을 쑥 내밀었다.

《자, 그럼 부탁하우!》

《꼭 고치겠습니다!》

초급당비서는 싱긋이 웃으며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는 이내 다시 승용차에 올라앉았다.

승용차는 방향을 돌리더니 쏜살같이 과수원옆을 돌아갔다.

병결에게는 리인섭초급당비서가 속력을 높이고 재촉하는것 같이 생각되였다.

(늦지 않았으면 좋으련...)

병결은 이런 생각을 하며 승용차를 배웅했다.

승용차는 꽃밭속으로 사라졌다.

병결이도 약봉지와 장세활아바이의 손녀의 이름이 적혀있는 종이장을 든채 여러가지 꽃들이 만발한 과수원옆으로 난 오솔길을 치달아올랐다.

락조가 비긴 과수원에서는 취할듯싶은 꽃향기가 풍겼다.

병결은 새삼스레 과수원을 바라보았다. 복숭아꽃은 벌써 한물 지나고 배꽃이 한창인데 바야흐로 까드득 웃음을 터뜨릴듯 사과꽃송이들이 통통하니 불어났다.

어느새 이렇게 되었는지 병결은 놀라왔다. 아침 저녁 이 길로 출근하고 퇴근하면서도 왜 지금까지 그것을 보았는지 이상스럽기만 하였다.

(나야말로 바자대신 심어놓은 저 아카시아처럼 시대에 뒤진것이 아닌가?)

아니야! 아카시아도 비록 늦긴 했지만 이제 향기로운 꽃이 필것이고 부드러운 잎이 무성할것이다!)

병결은 이렇게 생각하며 둔덕에 올라섰다. 둔덕에 올라서자 갱입구에 매달아놓은 야외고성기에서 힘찬 노래소리가 울리어왔다.

최병결에게는 그것이 약동하는 생활의 힘찬 숨결같이 느껴졌다.

(아! 뜨거운 사랑속에 일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산다는것은 얼마나 행복한가!)

최병결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다시금 큰결음을 읊겼다.

서쪽 하늘에서는 저녁해발이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다.

## 뽕창을 두고

김석주

뽕창을 왜 내는가? 하루에도 몇번씩 창문에 달린 자그마한 뽕창을 여닫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것이다.

방안이나 사무실의 공기를 갈아넣거나 온도를 적당히 조절하기 위해서 열어놓기도 하며 사색에 방해되거나 일에 지장이 되는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올 때에는 그것을 꼭꼭 닫아버리기도 한다.

이것은 지극히 단순하고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와는 반대로 밖에서 들려오는 떠들썩한 웨침소리나 소음을 듣기 위해서 하루종일 뽕창을 활짝 열어놓는 사람도 있는것이다. 아마 이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것이며 이런 사실을 본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것이다.

언젠가 나는 동해안의 자그마한 운포수산협동조합에 간적이 있었다. 취재수첩을 펴놓고 그곳 초급당비서동무와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바다쪽을 향해 열어놓은 뽕창으로는 쉽없이 밀려오는 파도소리, 부르며 대답하고 달리고 뒤쫓으며 벽작 떠들어대는 아이들의 웨침소리가 바로 귀밑에서처럼 가까이 들려왔다. 온 바다가아이들이 다 펼쳐나서 이 사무실 창말에 와서 떠들어대기라도 하는듯싶었다.

8월이라지만 방안공기가 서늘하루니 뽕창을 닫는 편이 좋을듯싶었다. 그래서 나는 뽕창과 비서동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저 뽕창말입니까... 그건말입니다. 닫아선 안됩니다.》

《...?》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거 말입니다. 저 뭐라 할가요...》

그런데 이때 뽕창을 닫아서는 안되는 리유라도 되는듯이 바다가에서 아이들의 새된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벌떡 일어서더니 급히 창문을 활 열어제끼고 옷몸을 쭉 내미는것이였다. 나도 창가에 다가갔다.

여름방학이라 걸음발을 떼기 시작한 아이들이 다 펼쳐나온듯 한여름 간물에 씻기고 햇빛에 그슬고 모래볼에 찢질해서 감실감실하게 탄 크고 작은 건강한 아이들이 한데 모여 북적거리고있었다. 파도에 밀려 백사장에 나온 큰 나무토막에 새까맣게 매달려서 그것을 밀어 물에 띄우려고 야단들이였다. 필경 새된 소리가 거기서 나온것임에 틀림없었다. 미는 아이들보다 벌써부터 올라타려는 아이들이 더 많은통에 서로 싱갱이질이 벌어진것이다.

《철해야, 모두 힘을 합쳐 밀어라, 밀어.》

비서동무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던 아이들이 벌쭉 웃더니 공손하게 모두 달라붙어 밀어넣기 시작했다. 통나무가 바다에 뗏다. 비서동무의 얼굴에도 부드럽고 만족한 미소가 어렸다.

《더우기 방학때는 잠시도 마음을 못놓지요.》

나는 창가에 선채 생각에 잠겼다.

바다가에 바짝 나앉은 집.

바다를 향해 늘 열어놓은 뽕창.

그 어느 집보다 바다에 다가앉은 이 집은 사무실이라기보다 파도우에 떠있는 선창을 방불케 했다. 창가에 서니 배들이 와닿고 떠나는 포구며 도래굽이며 멀리 휘여뻗은 백사장이며가 한눈에 다 보였다. 그리고보니 일부터 지은것임에틀림없었다.

바다에서 벌어지는 생활의 모든 음향들이 저 자그마한 하나의 뽕창으로 다 흘러들리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당원들에게 항상 아이를 기르는 어버이와 같이 대하여야 합니다.》

어머니당,

어머니다운 심정을 지닌 당일군,

당일군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뜻을 받들어 우리의 당원들은 물론 그 아이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리라.

이 뽕창으로 파도소리를 귀담아들으며 그 소리가 조금 높아져도 창문을 열고 먼바다에 걱정어린 눈길을 보내기도 하고 바다가에 아이들이 내놓은 어머니마음이 되여, 그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목소리 하나하나 가려들으며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그 심정.

저 아이들은 아마 모르리라. 자기들의 등뒤에 늘쌍 걱정 많고 다심한 마음의 눈길이 지켜 서있다는것을.

그런 마음 그런 눈길을 받으며 파도도 두려움 모르는 담이 크고 건강한 바다가아이들이 자라고 생활로 들끓는 포구의 안녕이 있으리라.

드넓은 바다를 향해, 바다가사람들의 가슴을 향해 마음의 밝은 뽕창을 늘쌍 열어놓고 사는 사람,

이 바다가마을에서 맨나중에 불이 꺼지고 마지막으로 닫길것이다.

나는 이따금 사무실의 뽕창을 여닫으며 당중앙의 뜻을 받들어 행복한 조국땅의 자그마한 한 부분을 맡아선 이름없는 한 당일군의 뜨거운 그 마음을 깊이 생각하군한다.

## 개교일

림병순

폭풍은 지나갔다. 처절한 격전의 흔적은 아직도 그 어디에나 남아있었다.

깨진 화염병과 찢어진 프랑카드, 불타버린 차체들...

소방차들이 피자육을 씻으며 지나갔다, 청소차들이 련일 돌무지와 각목더미를 헐어냈다.

금남로의 네온싸인은 굳게 닫긴 상점들의 철문 위에서 외롭게 명멸했다. 전축소리도, 신문팔이소녀들도 자취를 감추었다. 오직 없어진 혈육들을 찾아다니는 무거운 발걸음만이 이 모든 흔적을 따라 포도우를 조심히 지나다녔다.

거리와 대학교정에 웅크리고있던 계엄군의 장갑차들이 차차 으스스한 골목이나 외진 변두리로 자취를 감추자 당국에서는 이 도시에 평온상태가 회복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폐교령을 내렸던 학교들의 개학도 허락되었다. 자기들의 보도를 세상이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날부터 다시 열린 교문으로 학생들이 돌아왔다.

무동산기슭의 지고등중학교도 개교하였다. 오래동안 떠나갔던 교사들과 학생들이 돌아왔다.

그러나 개교식은 따로 하지 않았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 학교에서 좀처럼 교풍을 어기는 일이 없었지만 교장은 전교생을 강당에 모이게 하는것을 꺼려하였다.

수업전에 그는 넓지 않은 자기 방에 교사들을 모아놓고 오늘부터 결석하는 학생들은 리유불문하고 학부형의 이름과 함께 명부를 만들어 하루에 두번씩 상급에 올려보내야 한다는 전남도교육위원회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교사들은 아무런 응대도 하지 않았다. 개교일엔 소식도 많고 이야기도 많은 법이지만 경계하는 눈길만이 조심히 오갈뿐 방안에는 침묵하고 울적한 침묵만이 무겁게 서려있었다.

신정회교사는 시름에 잠겨 교장실에서 나오자 곧바로 교원실로 들어갔다. 수업시간이 되자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었지만 교사들은 벌써 담임교실로 흩어져가고있었다. 빈 책상들은 아직 학교로 돌아오지 않은 교사들의 자석이었다.

그는 출입문가에 있는 자리에 앉자 책상안에서 출석부를 꺼내놓았다. 석달만에 펼쳐보는 출석부였다. 글줄마다에서 학생들의 낮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는듯싶다. 이렇처럼 서로 다른 제자들의

모습도 금시 살아오르는듯... 그래서 추억도 많은 것인지?

지금 너교사의 시름과 울적한 마음을 달래주고 있는것은 오직 그 추억뿐이었다.

지난봄의 첫 개교일, 그날 신정회는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고 여기로 부임해왔다. 담임학급은 남녀공학이었다. 비교적 온화한편이나 특징은 류다른 점이 자주 눈에 띄우는것이라고 했다. 가령 녀학생들의 의복색깔이 수시로 변한다든가...

그날 신정회교사는 교장의 안내를 받아 담임학급에 들어갔다. 교탁우에 커다란 꽃다발이 놓여있었다. 들에 꽃이 피려면 아직 이른 계절이라 꽃방에서 만든 꽃이었다. 하얀 종이로 정성껏 받쳐 싰 꽃다발 한가운데 붉은 은초사땡기가 드리워있었다. 거기에는 이런 글발이 새겨져있었다.

우리들에게 무한한 지의 자양분을,  
의로움과 성실성을,  
영원한 사랑을 주실 존경하는 은사에게

누가 가져다놓았는지 학급에서도 몰랐다. 류다른것을 즐기는 어느 녀학생의 소행이 아닐는지?...

그 글발을 더듬는 순간 신정회교사는 눈굽이 젖어오르는 고마움과 함께 교단이란 새로운 인식이 점점 무게를 가지고 두어깨에 실려왔다.

그는 존경과 기대에 찬 수많은 눈총의 빗발속에서 오래동안 머리를 떨구고 묵묵히 꽃다발을 바라보았다.

얼마동안 움직이지 않던 녀교사는 고개를 들어 학생들을 살피었다. 그러다가 누구에게라없이 가볍게 고개를 숙여보였다.

그때 제일 앞자리에서 키가 큰 남학생이 불쑥 자리에서 일어났다. 출석부의 1번이었다.

《... 첫 교단에 서신 선생님을 축하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하고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듣고싶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속에서는 웅성이는 소리가 들리었다. 신입교사를 곤경에 몰아넣는것을 바라지 않는 녀학생들은 가볍게 눈을 흘겨보이였다.

신정회교사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좇았다. 보다 뜻이 깊고 오래오래 추억할수 있는 말을 해주고싶었다. 침묵속에서 얼마간 시간이 흘러서야 녀교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꽃다발에 새겨진 학생의 소원은 바로 나의 소원, 나의 뜻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소원이 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기를...》

아직 너대생의 티를 벗지 못한 너교사는 수집계 말끝을 얼버무리었다. 반듯한 이마밑의 부드러운 두볼에는 옅은 홍조가 피어올랐다.

꽃다발을 안고 교원실에 들어가자 교사들도 모두 모여들어 첫 교단에 오른 신정희교사를 축하해주었다. 그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축복속에 있었다. 갑자기 찾아든 행복으로 해서 가슴은 뛰고 눈시울은 뜨거웠다.

그는 꽃다발을 책상우에 소중히 세워놓았다. 그것은 첫 교단에 오른 기념이기도 했지만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교단에 선 일종의 긍지감이었으며 언제나 그 꽃을 보면서 제자들의 기원을 잊지 말자는 마음의 다짐이기도 했다.

교원실의 한쪽 구석에 앉아 부풀어오르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꽃다발을 바라보고있던 신정희교사는 무엇인가 궁리한 끝에 교장한테로 찾아갔다.

《교장선생님, 오늘을 기념하여 저도 무엇인가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실앞에 화단을 꾸리려고 합니다.》

교장은 이야기를 듣자 대뜸 생기없는 두눈에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첫걸음부터 마음에 든다고 기뻐하였다.

그래서 오후에는 화단을 꾸리고 꽃을 심었다. 정희교사는 너학생들과 함께 이랑을 짓고 꽃씨를 뿌리었다. 남학생들은 물을 길고 뒤산에 올라가 부식토를 긁어왔다.

너학생들속에서는 봉선화를 심자거나 다리야를 심자거나 하고 자주 옥신각신이 벌어졌다.

그때 잠시도 조용할줄 모르고 깔깔대던 허순애학생이 너교사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어떤 꽃을 좋아합니까?》

그것은 저들의 싱갱이에 매듭을 지어보자는 의도에서였다.

《글쎄... 난 모든 꽃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도 취미가 있을게 아닙니까?》

신정희교사는 수집계 웃으며 대답하기를 주저하였다. 그러자 옆에서 꽃밭규격을 재주고있던 생물교원이 허리를 펴며 참견하였다.

《꽃이야 향기가 있어야지.》

《아유, 향기가 있는 고운 꽃은 드물답니다, 선생님.》

《그래도 난 향기가 있는 꽃을 좋아하오.》

정말 향기가 있는 고운 꽃은 드물었다. 또 그런 꽃씨도 없었다.

허순애학생은 교사의 취미를 만족시켜줄길이 없는것이 못내 아쉬운듯 가볍게 한숨을 쉬더니

입을 다물고말았다.

얼마후 강수일학생이 부식토와 함께 꽃을 떠가지고 왔다. 떡잎을 헤치고 갓 돌아난 연약한 들국화포기였다. 그것을 보자 허순애학생은 질겁하여 소리까지 질렀다. 학급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이 화단에 그런 볼품없는 들꽃을 심는다면 화단이 초라해질뿐아니라 학급이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거라고 좀처럼 심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강수일학생이 허순애한테서 호미를 빼앗아들고 한쪽 각으로 이랑을 짓더니 거기에 가져온 들국화를 다 심어버리었다.

《저 고집쟁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있던 허순애학생이 눈을 흘기며 불부은소리를 했다.

강수일학생은 그러거나말거나 고집스레 마지막 포기까지 심고 물까지 주었다.

《강수일학생은 너학생들한테 두고두고 비난을 받게 됐군요.》

정희교사가 물이 잦아든 꽃포기에 북을 주며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선생님, 들국화는 향기도 있고 찬바람과 서리를 이겨냅니다. 가을에 가면 저 애도 후회할겁니다.》

강수일학생은 허순애를 향해 능청스레 웃어보이고 꽃밭에서 물러나버리었다.

허순애학생은 두볼을 활짝 붉히며 사라지는 강수일학생을 흘려보더니 너교사곁에 바짝 다가서서 속삭이였다.

《자기가 하는건 다 옳다고 믿는 학생이지요. 그래서 누구도 저 학생의 고집을 꺾지 못한답니다.》

《그래...》

《지내보세요. 오늘 교탁에 꽃다발을 가져다놓은 학생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 학생입니다. 그리구두 시침을 떼고있지요. 참 별난 학생입니다.》

허순애학생은 찬양인지 헐구인지 모를 이야기를 씩없이 속삭이고있었다.

신정희교사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산기슭으로 오르는 강수일학생을 바라보았다. 그는 혼자 떨어져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걷고있었다.

즐거운 오월에  
온갖 꽃 피여날 때  
이내 가슴에도  
사랑이 싹터요

X

수업종이 울리였다.

신정희교사는 회상에서 깨어나 출석부를 들고

교원실을 나섰다. 복도는 어수선하였다. 창문의 유리들은 깨지고 비바람이 새어들어 벽돌은 보기 흉하게 얼룩이 졌다. 부임하여 두달동안 수없이 오가던 낮익은 복도였지만 지금 그는 어설픈 산골길을 걸어가듯 적막과 시름에 잠겨있었다. 살아서 교단으로 돌아온것이 다행인지 아닌지조차 가늠할수 없는 심정이었다. 이 도시의 량심은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의 수치로 되고있었다.

너교사는 발끝에 눈길을 떨구고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교실이 가까와올수록 그리움과 불안은 한층 커졌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느것이 그리움인지 불안인지 그 계선을 알수 없었다. 이제 학생들은 자기를 어떤 눈길로 바라볼것인가.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나지자 너교사는 눈길을 들어 교실의 출입문을 두들었다. 2학년 3학급이라고 표식이 있는 문앞에 이르자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문틈으로 교실안의 소음이 새나왔다.

신정회교사는 잠시 옷매무시를 바로잡고 출입문앞에 서있었다. 이윽고 문이 열리자 학생들의 눈길이 일시에 교사한테로 쏠리었다. 아직 애티를 가지지 못한 낮익은 모습들이었다. 그전보다 더 의젓해보이나 어딘가 고뇌에 찬 표정들이었다.

오늘 따라 수수한 교복차림인 너학생들의 눈길은 무엇인가 많은 사연을 담고 속삭이는듯 싶다.

정회교사는 조용히 교단으로 걸어나가 교탁앞에 서서 인사를 받았다. 비여있는 책상들이 많았다. 그것을 보자 얼굴에 또다시 안개같은 시름이 비껴올랐다.

그는 눈길을 돌려 출석부를 펼치였다. 빈자리를 보기가 괴로웠다. 바라보기만 하면 아직은 의혹으로 남아있는 불안이 눈앞에서 현실로 더욱 뚜렷이 나타날것만 같아 겁이 났다.

너교사는 이름을 불렀다.

《김철수.》

언제나 제일 먼저 부르고 제일 먼저 듣게 되는 낮익은 목소리였다. 그는 학급에서 제1번이었다. 수업시간마다 류달리 자주 지명되는것은 출석부의 1번이기때문이라고 항상 불만이지만 그는 결코 그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자기를 나태내기를 좋아하는 그는 공부도 보통이상이었다. 신정회교사가 교단에 서서 처음으로 질문을 받은것도 바로 김철수학생한테서였다. 오늘따라 그의 목소리는 활기가 없었다.

최기덕, 고승배, 허순애.

너교사는 허순애학생의 목소리를 듣자 얼굴을 들었다. 언제나 웃고 깔깔대던 그의 존재는 학급에서 하나의 상쾌한 향기와도 같은것이였다. 말이 없는 강수일학생이 그를 싫어하지 않는것은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었다. 그들은 자주 다투었

지만 언제나 같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도 말이 없었다. 길다란 살눈섭이 밑으로 내리뜬 눈길을 측은히 덮고있었다. 의복도 검은색교복이었다.

신정회교사는 다시 이름들을 불러나갔다.

《강수일》

대답이 없다.

너교사는 다시 얼굴을 들고 강수일학생의 책상쪽을 살피였다. 그는 보이지 않았다. 앞의 학생들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책상우에 무엇인가 놓여있었다.

너교사는 불길한 예감에 몸을 움츠리였다.

얼굴은 창백하나 강기가 있어보이는 단단한 몸집의 소년, 언제 보나 말없이 뒤에서 행동하는 학생이었다. 그는 옳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생각은 주저없이 행동으로 옮겨져였다.

...철늦은 봄비가 내리려는지 광주의 하늘에 검은 구름이 낮게 내려앉은 날이었다.

며칠째 계속되는 시위는 도시 전지역으로 퍼졌고 증대된 특공대의 야수적인 폭행은 마침내 시민들을 투쟁의 불도가니속에 휘몰아넣었다.

이날 지고등학교 당국에서는 이 소식이 전해지는것을 막아보려고 학생들을 교실에 불러넣기로 하였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학생들은 끝내 수업을 거부하고 운동장으로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시가행진태세였다.

교장은 당황하여 부랴부랴 교사들을 모아놓고 상상할수 없는 불행을 겪지 않으려거든 어서 교정으로 나가 저 학생들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초조해하였다.

신정회교사는 교정으로 달려나갔다.

《학생들! 리성을 잃으면 안됩니다. 더 인내심을 발휘해봅시다. 지금 거리에서는 류혈참극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크나큰 불행을 주지 않으려거든 어서 교실로 들어갑시다!》

너교사는 담임학생들앞에 막아서서 진심이 어린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학생들속에서 동요가 일어났다. 술렁이는 가운데 김철수학생이 동료들을 둘러보다 불쑥 한걸음 앞에 나섰다.

《학우들, 우리 한번 다시 선생님의 권유대로 인내심을 발휘해보자. 우리는 다같이 불행을 원치 않는다. 우리 교실에 들어가 사태를 주시해보자.》

소요가 일어났다. 공감하는 학생들이 있는가하면 규탄하는 소리들이 튀어나왔다.

그때 학생들의 머리우에 한쪽의 프랑카드가 펼쳐졌다.

《우리의 형님, 언니들이 죽어간다. 그들의 피값을 받아내자!》

아주 극렬한 감정적인 글밭이었다. 그것을 보자 학생들이 손을 높이 들고 구호와 절규의 목소리들을 높이였다.

신정회교사는 다급히 프랑카드를 들고 선 강수일학생한테로 다가갔다. 그리고 타일렀다.

《수일이, 너는 늙은 어머니를 생각해보았니? 너 하나 믿고사는 어머니를말이다.》

너교사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마디마다 어린 제자의 가슴에 바늘처럼 아프게 파고들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별도 따보겠다고 나서는 강수일학생이었다.

《…………》

《어서 프랑카드를 걷고 교실로 들어가자. 교문 밖에는 계엄군이 대기하고있다.》

그러자 강수일학생은 너교사를 원망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고집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제 계엄군은 허순애학생의 언니를 붙잡아 옷을 벗기고 곤봉으로 마구 때려 길가에 쓰러뜨렸습니다…》

강수일학생은 울분에 목이 메여 말을 더듬었다.

《선생님, 우리들의 데모가 정의를 위한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앞길을 막지 말아주십시오.》

너교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없이 말라버린 입술만 씹고있었다.

바로 50메터밖에서는 철갑모를 쓴 계엄군이 무리를 지어 교정을 노려보고있다. 5분이 될지 얼마후면 군정놈의 무지한 총탄이 사랑하는 어린 제자들의 가슴을 뚫고나갈수도 있다. 총탄과 땅크는 리성이 없는 한갓 쇠불이에 불과한것이다.

대학시절의 영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언제나 학우들을 즐겁게 해주던 그도 파쑈의 흉탄을 맞고 지금은 북악산기슭에 누워있다. 첫사랑을 약속했던 철학학생 최형수도…

너교사는 아물었던 옛상처를 다시 허벼놓는 쓰라림으로 하여 마음이 피로왔다.

밤이 오면 그들은 자주 대학가를 거닐었다. 그 별 많은 밤, 인간에게 강요되는 불행을 감수만 한다면 애당초 철학을 해서 무얼하는가고 울부짖던 그의 피라는 목소리, 성토장을 울리던 그 청춘의 갈망은 얼마나 의롭고 열렬한것이었던가! 그러나 그 모든것은 파쑈의 총칼에 짓밟히고 다만 신정회의 가슴속에 커다란 피멍만을 남겨놓았다. 상처입은 마음을 안고 그는 애인의 무덤가에서 눈물도 뿌리였고 독재자를 저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치자는 총칼부림으로 더한층 포악해졌고 그밀에서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들은 하나하나 쓰러져갔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독재자를 요정낼수

있겠는가? 그의 사색은 더욱 착잡해지고 점차 허공에서 방황하기 시작하였으며 때로는 허무감에 잠기기도 하였다. 죽는것만이 반드시 지성인이 나갈길이겠는가? 졸업을 앞두고 그의 생활신념은

오직 밝고 순박한 어린 제자들에게 아픈 상처대신 지혜와 량심을 키워주는 《훌륭한 교사》로 되는것이였다. 그것은 교단에 서면서 더욱 굳어지고 드팀없는 신념으로 변해버리였다.

그런데 저 어린것들이 그와 같은 쓰라린 상처를 받아안게 된다면…

신정회교사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묵묵히 강수일을 바라보았다.

이튿날아침 수업시간이 되자 교실에 갔으나 방은 비어있었다.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았다.

신정회교사는 빈 교실에 홀로 서있었다.

간밤에 내리던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였다.

복도에서 발자국소리가 들리였다. 너교사는 귀를 기울였다. 가까와지던 발자국소리는 다시 멀어지고 처마에서 비방울 듣는 소리만이 너교사의 마음속에 빈공간을 넓혀주며 간간이 들리였다.

어쩌면 지금 학생들은 교사라는 존재를 까맣게 잊고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자 너교사는 갑자기 제자들이 자기한테서 하루사이에 멀리 떠나가버린듯한 고독감에 잠기였다. 야속한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의 데모의 길을 막아나선것이 의로움을 저버린것이었던가?

정회교사는 어제 강수일학생한테서 량심의 호소를 받게 된 그것으로 하여 피로움을 금할수가 없는것이였다.

그때 교실문이 소리없이 열리더니 강수일학생이 들어섰다. 옷은 비에 젖고 손에는 책가방도 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서있는 너교사를 발견하자 놀래여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지금이 몇신데…?》

너교사는 기다리던 제자를 만난 반가움이 마음한구석에 솟구쳐올랐으나 야속스런 생각에 그 마음의 진심을 드러낼수가 없었다.

《…………》

《강수일학생은 빈 교단에 서있는 교사를 위안하러 오지는 않았겠지?》

어느덧 앞에 서있는것이 학생이라는것도 잊고 너교사는 원망스레 말했다.

그 순간 너교사의 엄엄한 눈길에 부딪쳐 얼굴을 펴고있던 강수일이 세차게 머리를 들었다.

《전 학우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뭐라구?》

너교사는 영문을 알수가 없어 되물었다.

《새벽에 군경놈들과 맞서 싸우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말할것을 단념하고 다급히 출입문쪽으로 걸어나가다 다시 돌아섰다.

《선생님, 데모가 끝나면 모두 교실에 와서 수업을 받기로 했습니다.》

강수일은 공손히 인사를 하고 교실밖으로 걸어 나갔다.

신정회교사는 불안과 야속함으로 해서 마른침을 삼키었다. 그는 오래동안 교실안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창문으로 교정을 걸어나가는 강수일의 뒤모습이 보이였다.

그는 어느덧 교문밖으로 벗어나더니 도청으로 가는 길로 꺾어들었다.

이제 와서 너교사는 말한마디 못해주고 모질게 돌려보낸것이 후회되였다. 너희들은 나를 원망하며 데모에 나갔지만 죽어서는 안된다고 왜 말해주지 못했는가.

어데선가 시위군중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이어 자지러지게 울리는 총성, 너교사는 놀라 몸을 움츠러뜨리였다.

그는 강수일학생이 사라진 거리쪽을 살피었다.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너교사의 마음은 자꾸 지남석에 이끌리는 쇠불이마냥 그쪽으로 쏠리었다.

얼마후에 신정회교사는 최루탄가스과 건물이 불타는 연기로 하여 자옥한 거리를 걷고있었다. 그는 금남로입구에 이르자 걸음을 멈추었다. 도청으로 이어지는 도로들에는 두세겹의 경찰저지선이 쳐졌고 그뒤에 철갑모를 쓴 군병력이 진을 치고있었다. 장갑차들이 밀려오고 중무장한 군병력이 편속 중원되고있었다.

저쪽 넓은 네거리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비물에 젖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련좌투쟁을 벌리고있었다.

화형식장에서 얼마 떨어져서 어린 학생들이 모여앉아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정회교사는 그쪽으로 급히 걸어갔다. 노래를 부르고있는 소년들은 본교 학생들이였다. 가까이 가서 그들을 살피던 너교사의 눈길이 한곳에서 굳어졌다. 한복판에 2학년1학급의 학생들과 어깨를 결고 노래를 부르고있는 사람이 있었다. 담임교사인 생물교원이였다.

우리의 소원은 자유

꿈에도 소원은 자유

학생들도 목에 피대를 돈구어 불렀고 교사도 그랬다. 천상 노래라고는 부를것 같지 않은 두툼한 입술의 파묵한 교사였다.

그 모습을 대하자 신정회교사는 죄책감에 얼굴을 붉히였다. 노래소리는 더욱 세차게 그의 교막을 울리였다. 그 어딘가에서 저희들끼리 모여있는 담임학생들이 그리웠다.

너교사는 사람들짚에 끼워 노래를 부르고있는 학생들을 살피었다. 담임학생들은 보이지 않았다.

피곳 학생들의 머리 저쪽에서 노란 자케트를 입은 너학생 하나가 길바닥에서 돌을 쫓고있는것이 보이였다. 몹시 낮이 익었다.

너교사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너학생은 치마자락에 돌을 한아름 싸안고 허리를 폈다. 허순애학생이였다. 의복은 비에 젖고 얼굴은 흙탕물에 얼룩이 졌다.

정회교사는 달려가 허순애학생을 부둥켜안았다.

《선생님!》

허순애는 두손으로 치마자락을 든든히 쥐고 너교사의 품에 얼굴을 기대였다.

《강수일학생이랑 다 어데 있지?》

《뭘... 총을 나눠준대요. 그래서 방금 모두 거기로 달려갔어요.》

《총...?》

너교사는 그 소리에 놀라 허순애학생을 바라보았다.

《대학생들에게만 준대요. 공연히들 갖지요뭘. 선생님, 저기 우리 자리로 가요.》

허순애는 먼저 은행앞으로 가더니 길한복판에 돌을 부리였다. 자리는 비어있고 돌무지만 무뚝히 쌓여있었다.

《전 이 돌무지를 지켜요. 강수일학생이 부탁했지요.》

그는 이렇게 속삭이면서 하얀 귀밀을 붉히였다.

《너희들 여기서 밤을 새운게구나?》

《그래요. 하지만 배고프지도 않아요. 우리의 소원이 성취된다면 여기서 돌처럼 굳어진대도... 간밤에 군경놈들이 대학생오빠들을 향해 막 총탄을 퍼부었어요. 총탄을...》

갑자기 허순애는 목이 메어 말을 끊더니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였다.

너교사는 돌무지앞에 앉아 어깨를 들먹이는 어린 제자를 지켜보았다. 그의 애어린 가슴에는 이미 언니로 해서 상처를 입고있었다. 그러나 허순애학생은 지금 대학생모두의 운명을 두고 저처럼 가슴아파하고있는것이였다.

짓밟히기에는 너무나도 고결하고 숭고한 어린 영혼들!

신정회교사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허

순애학생의 좁은 어깨를 쓰다듬었다.

기다리던 강수일학생은 돌아오지 않았다.

저녁무렵에 정회교사는 하숙으로 돌아오고있었다. 학급생들을 만나지 못한것으로 하여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떼지어 지나갈 때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학생들을 찬찬히 살피었으나 불도가니마냥 들끓는 거리에서 담임 학생들을 찾아낸다는것은 헛된 일이었다.

군중들의 함성이 들려오는 동명동을 가까이하며 걸던 그는 병원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응급실의 출입구앞에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있었다. 대학생들도 있었고 녀인들과 십대소년들도 있었다. 부상당한 혈육들을 찾아온 사람들일까?

너교사는 가까이 다가가 출입구앞을 살피었다. 출입문우에 《피를 요구합니다.》라고 쓴 글발이 붙어있었다. 헌혈구였다.

그것을 보는 순간 신정회교사는 자기도모르게 눈굽이 젖어올랐다. 얼마전까지만해도 하루끼니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를 팔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지금 앞을 다투어 헌혈구앞에 서있었다.

출입문으로는 헌혈을 마친 사람들이 려방 나가고있었다. 모두 침통한 기색이나 한가닥 자랑이 넘쳐나고있었다.

봄외투를 입은 중년뒤에서 차레를 기다리는 한 소년이 눈길을 끌었다. 비에 젖은 의복이 채 마르지 않은채 몸에 달라붙어 몹시 초라하였다.

강수일학생이었다.

그를 보자 신정회교사는 온몸이 마비상태에 빠진듯 감각을 잃었다. 총을 타러 갔다는 소년은 지금 부상자들에게 피를 바치려고 헌혈구앞에 서있었다.

항쟁자들에게 피를 바치는 광주사람들!

그들속에 강수일소년이 있었다...

신정회교사는 출석부에 얼굴을 숙인채 자기도모르게 강수일의 이름을 다시한번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누구하나 강수일학생의 결석리유를 말하는 학생은 없었다. 허순애학생도 얇은 입술을 감싸물고 앉아있었다.

너교사는 출석을 굿다말고 교단을 내리더니 천천히 맨뒤의 창가로 걸어갔다. 자리는 비어있으나 그의 책상우에는 무엇인가 놓여있었다.

책상앞에 이르자 신정회교사는 까딱 움직이지 않고 못박힌듯 굳어져버리었다.

책상우에는 몇개의 조위금붕투와 들꽃뭉음이 놓여있었다. 크고작은 땀기로 둘러싸인 흰꽃뭉음이었다. 거기에는 각이한 글발들이 씌여있었다.

평시에 말없고 불의에 용감했던 수일형  
그대가 흘린 피 결코 헛됨이 없으리  
헛됨이 없으리

최기덕

수일아, 잘가.

어깨동무 고승배

갓 꺾어온 흰 들국화꽃뭉음이 놓여있었다. 청초한 꽃잎들에 싸인 글발이 눈에 안겨왔다.

열일곱 채 피지도 못하고 쓰러진 한떨기 꽃  
그대 사라졌으나 꽃향기  
이 가슴에 고이 잔직하노라

허순애

글발을 더듬던 너교사는 눈을 감았다. 갑자기 눈앞은 캄캄해지고 머리는 세차게 어질어졌다. 그는 몸을 지탱하느라고 책상모서리를 짚었다. 손이 가볍게떨리었다.

신정회교사는 자꾸 혼미해지는 정신을 수습하며 가까스로 걸음을 옮겨 창턱에 가서 기대었다.

방안에는 숨소리하나 들리지 않았다. 다치면 금시 터질듯싶은 짓눌린 슬픔과 분노로 가득차있었다. 그 헤아릴수 없는 깊은 침묵속에서 오직 책상우에 놓은 꽃뭉음들만이 많고많은 사연을 속삭이고있었다.

너교사는 꽃뭉음들을 바라보기가 피로와 창박으로 몸을 돌리었다. 바깥의 화단에는 가을빛이 짙어가고있었다. 오래동안 김을 잡지 못해 잡초들이 우거졌지만 그래도 들국화는 피여있었다. 허순애학생과 강수일이 싱갱이를 하며 심은 꽃이었다. 가을화단에 향기를 풍기며 피여있는 들국화!

정회교사는 마음을 다잡고 교단으로 올라갔다. 다시 출석을 그으려고 눈길을 모았다. 웬일인지 이름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구분할수가 없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여 이마를 훔치고나서 이름을 불렀으나 목이 메여 나가지 않았다. 또다시 수건을 꺼내들고 이마를 닦았다.

순간 교사를 지켜보고있던 녀학생들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었다.

너교사는 출석부에 눈길을 떨군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얼마후 제자들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출석부를 덮어놓고 교실에서 나갔다.

교원실로 돌아온 신정회교사는 책상앞에서 먼지 오른 꽃다발에 얼굴을 묻었다. 강수일학생이 교탁우에 가져다놓았던 꽃다발이었다. 의로움과 진리를 갈망하던 강수일의 소망과 그것을 주리라



다짐하던 자기의 소망은 얼마나 머나먼 사이를 두고있었던가. 그것은 강을 두고 엇갈려있는 간격도 아니었다. 땅과 하늘의 간격이었다. 땅우에 뿌리내릴 학생들의 소망을 저 어텐지 가늠할수 없는 허공에서 찾으려는 소망이었다.

짧은 이 시각에 너교사의 리성은 난생처음 자신을 가장 가혹한 회억의 길로 이끌어갔다.

교사의 존재는 그 어떤 꽃다발이나 선망의 눈길속에 있는것이 아니었다. 오직 제자들에게 진리를 분별하는 밝고 불타는 눈, 부끄럼 없는 삶을 키워주는 거기에 교사란 이름은 자랑차게 울리는것이였다.

그런데 자신은 과연 이 교단에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아안았던가? 지금 그의 젖은 불을 스치는 꽃잎들은 예리한 칼끝처럼 랑심의 갈피를 사정없이 저미였다.

휴식종이 울리였다. 교사들이 들어왔다. 어느때 같으면 이 짧은 휴식시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련만 조희배와 마찬가지로 누구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할 이야기가 없는것은 아니였다. 하나같이 피로움과 울분에 잠긴 기색들이였다.

어느 교실에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낮으나 절통한 음조가 질게 깔려있는 노래소리는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한없이 흔들어놓았다.

교사들은 책상우에 머리를 펴고 묵묵히 그 소리를 듣고있었다. 침통한 표정을 짓고있던 나이든 교사가 조용히 말했다.

《2학년1학급에서 담임교사를 추모하고있습니다. 생물선생은 영영 우리결을 떠났습니다.》

신정희교사는 그 소리를 듣자 놀란 눈길로 생물선생의 빈 책상을 더듬었다. 해빛이 미치지 않는 교원실 한쪽구석에 앉아 언제 보나 식물이나 동물표본을 만들던 생물선생이였다. 특징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수수한 얼굴모습, 다만 류다르다면 두툼한 입술뿐이였다. 그래서 더 과묵해보이고 소탈해보이였다. 정희교사는 미처 그를 다 알기전에 학교당국의 강요를 물리치고 항쟁의 거리에서 학생들과 함께 어깨걸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발견하였던것이다.

노래소리는 한층 높아지고 다른 교실로 퍼져갔다.

낮이 하얗게 질린 교장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초조한 눈길로 교사들을 한번 둘러보더니 말했다.

《선생들은 저 노래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빨리 교실에 가서 중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교장은 생기없는 눈길로 창밖을 내다보며 이제 제업군이 알고 달려들면 야단이라고 독촉하였다.

맨먼저 자리에서 일어난것은 신정희였다. 지금껏 눈길한번 움직이지 않고 입술만 씹고있던 그는 숨쉬기조차 피로운 한증막에서 벗어나듯 교원실에서 나와 담임교실로 향하였다. 담임교실에서 또 노래소리가 울려나왔다.

너교사는 교실문의 손잡이를 쥔채 잠시 밖에서있다가 문을 열었다. 너교사를 보자 학생들은 약속이나 한듯 노래를 그치고 일시에 신정희를 지켜보았다.

너교사는 학생들의 눈길이 집중된 가운데 강수일의 책상우에서 꽃묶음을들 안아다 교탁우에 놓았다. 글발들이 교탁앞에 드리워졌다.

얼마후 너교사는 교단에서 내려 뒤의 빈자리에 가서 앉았다.

지금 교단에는 자기가 아니라 어린 강수일학생이 서있었다. 교사가 서야 할 정의의 교단에, 교사가 받아야 할 의로운 꽃묶음속에...

그리고 그는 학우들에게 속삭이고있었다.

(눈물을 걷으라구, 이 땅의 상처를 가져내기전에는 우리의 상처 결코 아물날이 없을거야. 죽고 죽고 또 죽고, 그래도 우리는 자유를 부르자구)

너학생들도 울지 않았다. 숨가쁜 호흡, 이글거리는 분노의 눈빛, 불끈 들어진 주먹과 주먹.

폭풍은 사라진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서 분출을 기다리는 용암마냥 세차게 소용돌이치고있었다.

두번째 수업종이 울리였다.

신정희교사는 천천히 교단으로 올랐다. 그는 숏볼처럼 이글거리는 학생들의 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학생들! 노래를 계속 불러요, 우리 결을 떠난 강수일학생과 생물선생이 부르던 그 노래를...》

누가 먼저 뻗는지 노래소리가 다시 방안에 울리였다. 학생들은 자리에서 손을 흔들며 목청껏 불렀다. 너교사도 따라불렀다. 항쟁의 거리에서 학생들과 함께 노래부르던 그날의 생물선생처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지금 그들의 심장은 하나의 피줄로 숨쉬고있었다. 희생된 교사와 학우들의 웨침을 전해갈 피의 맹세를 다지며... 분출의 그 시각을 그리며...

노래소리는 더한층 높아지고 교실과 교실로 세차게 울려퍼지기 시작하였다.

## 현실속의 작가들을 찾아서

(전 호에서 계속)

### 14. 우산장을 찾아

함박눈은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하늘에서 끝없이 쏟아지는 함박눈... 눈사람 만  
들며 네활개 벌리고 넘어져서 눈사진 찍으며 뛰  
놀던 아득한 사진의 추억인가. 산과 들에 흰 주  
단을 펼쳐놓은듯 발목이 시도록 끝없이 걷고만싶  
게 하는 흰눈이었다.

우리들은 그만에야 함박눈이 베풀어준 그옥하  
며 고요한 정서에 흠뻑 취해버렸다.

나무가지들에 하얗게 핀 눈꽃은 또 얼마나 아  
름다운가.

우산장창작실소식을 알려달라는 독자들의 부탁  
을 안고가는 우리들은 마냥 즐겁기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혁명  
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중편소설들과 장편소설들의 마지막꼴  
에 《우산장에서》라는 지명을 보았을것이며 앞으  
로도 보게 될것이다.

사람들이여! 그 글발을 무심히 보지 마시라. 바  
로 이 짧은 글속에 영원한 사랑에 대한 서사시가  
깃들어있는것이다.

우산장창작실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우리  
작가들에게 마련해준 창작의 집이다. 우산장은  
가장 오랜 력사와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휴양소이  
다.

진달래꽃 산을 붉게 물들이는 봄이 오면 온갖  
꽃향기속에 묻혀들고 푸른숲 설레이는 여름이면  
맑은 호수위로 살진 잉어들이 뛰어오르고, 단풍  
든 가을이면 입을 한껏 벌린 밤송이들이 안겨있  
던 밤알들이 휴양소정각지붕에 우르르 쏟아져내  
려 더욱 풍성해지는 우산장이다.

결코 자연이 좋아서 자랑높은 우산장이 아니다.

우리 작가들이 마음껏 창작할수 있도록 휴양소  
하나를 통채로 맡겨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사랑  
이 너무도 따뜻하고 고마와 더더욱 아름답고 이  
름높은곳이다. 그러기에 한 작가는 심장으로 이  
렇게 웨치고있다.

《...일생을 창작생활로 보내는 작가이지만 지난  
날 나는 언제 한번 우리 혁명의 튼튼한 립장에  
서서 값있는 창작의 열매를 세상에 내놓아본적이  
없었다.

그러던 나는 오늘에 와서야 정말 당의 작가,  
위대한 주체시대의 참된 작가라는 영예를 안고  
열정과 패기에 넘쳐 이 장엄한 시대를 노래하고  
있다.》

위대한 사랑의 해빛으로 하여 우리 혁명문학의  
화원에 향기 풍기는 열매가 주렁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찬란한 혁명력사를 수록한 총  
서 《불멸의 력사》 중에서 장편소설 《1932》,  
《백두산기슭》, 《고난의 행군》, 《두만강지구》  
와 《충성의 한길에서》(1, 2 부)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여기 우산장창작실에서 태어났다.

장편소설 《평양시간》과 《무성하는 해바라기  
들》이 나오고 《새봄》, 《생명수》가 나왔다.  
뒤이어 장편소설 《명마루》를 비롯하여 수많은  
장편소설들과 중편소설들이 쏟아져나와 주인공들  
과 함께 울며 웃으며 애도되게 되었다.

아! 가장 참된 사랑이여... 이렇게밖에는 더 웨  
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걱정을 독자들은 이해해달  
라.

이 세상에 아름다운 말과 말들을 모은다 해도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사랑과 은덕을 어찌 다 이  
야기할수 있으랴. 이 세상에서 가장 생명있는 문  
자들을 모은다 해도 그 사랑의 깊이와 따뜻함에  
대해서 어찌 다 표현할수 있으랴.

### 고목에 꽃이 피다

봄이다. 꽃향기 그윽하고 새싹이 파릇이 돌아  
나는 저 언덕우엔 버들피리소리 젖어있는 봄은  
언제나 아름답고나.

흘러가는 세월은 것처럼 신선한 봄을 잠간동안  
만 가져다줄뿐...

과연 이 세상에 생의 활력으로 뚫어넘치는 봄  
을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할 힘이 없단말인가.

우리는 우산장창작실 휴게실의 폭신한 쏘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아있는 소설가 리근영과 첫  
번째로 상봉하였다. 우리는 고향의 나이에 장편  
소설 《어머니와 아들》의 초고를 완성한 리근영  
동무의 손을 힘있게 잡아주었다.

그는 이야기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였다.

《...나는 해방된 이듬해 봄에 어느 한 농촌마을  
앞을 지나다가 구새먹고 비바람에 시달려 죽어버  
린 늙은 느티나무에서 뜻밖에 새싹이 돌아나는것  
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온 동리가 떨쳐나서서 늙은 나무에서  
새싹이 돌아나는것을 구경하였지요.

<고목에 꽃이 피는구나.>

수염발이 허연 그 동네 좌상격의 늙은이가 하

던 말도 지금 기억에 생생합니다.》

리근영동무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의미 있게 바라보았다.

《…나는 종종 새싹이 돌아나기 시작한 그 고목에 나를 비유해봅니다. 왜냐 하면 나도 그 고목처럼 싹트기 시작했으니까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기차안에서 우연히 만난 한 문학통신원의 이야기가 되살아났다.

《…작년 여름 장마철때였습니다.

저는 단편소설을 군중문화지도부에 보내고는 무슨 소식이 올가 하고 속을 조이며 답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며칠째 소식이 없었습니다.

행여나 우편통신원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장마비가 쏟아지는 창밖을 내다보노라니 갑자기 나 자신이 허무해졌습니다. 미숙한 작품을 보내놓고는 속타게 기다린다는 자체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그날 작품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리라고 결심하고 합숙침대우에 쓰러져 잠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흔들어깨우는 손길에 나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에 흠뻑 젖어있고 진흙탕에 범벅이 된채 서있는 작가동지를 보았습니다.

작가동지는 나의 손을 덥석 잡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동무가 쓴 작품에는 귀중한 싹이 있소. 자 어서 나와 같이 고쳐봅시다…>

나는 그만에야 목이 꼭 메였습니다.

한 문학통신원의 미숙한 작품을 위해서 늙은이가 장마비에 질적거리는 고개길을 넘어 70 리를… 편지나 전화로 알려주어도 기쁨에 잠기기에는 너무도 충분할 소식을 들고 온 작가의 열정에 종시 저는 눈물을 흘리고야말았습니다…》

이것은 한 문학통신원이 들려준 평범한 이야기였다.

어째서 이 순간에 우리는 그 평범한 이야기가 가슴뜨겁게 안겨왔던지… 적지 않은 나이를 가진 리근영동무가 하루밤에 70 리길을 걸은 그 왕성한 정력이 놀라왔다.

일흔이 훨씬 넘은 나이에 농촌의 종합적기계화 과정을 그린 장편소설을 쓸수 있었던 정열은 과연 어디서 생겼을까.

그 옛날 식민지노예의 진흙탕속에서 허덕이던 그에게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가장 빛나는 삶을 주었다. 창작적재능을 꽃피울수 있는 위대한 현실을 주고 작품의 종자를 주고 인간으로 누릴수 있는 모든 행복을 안겨주었다.

리근영동무는 열기띤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지금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 봄속에 싸여 살고있습니다.》

이것은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였다. 이 고령의 작가에게 찾아온 봄은 끝없는 창작적열정

에 들끓게 하는 영생의 청춘이었다.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 봄!…얼마나 의미깊은 말인가.

자연의 봄은 한순간이지만 이 고령의 작가에게 찾아온 봄은 언제나 삶의 활력에 충만된 영원한 것이었다.

## 주인공과 함께 《먼길》을…

소설가 정창윤은 이제 멀지 않아 나오게 될 장편소설 《먼길》의 서두를 젊은 기사 중열이가 자기의 애인이었던 처녀에게 보내는 편지로부터 시작하였다.

《…동무의 편지는 협박장과 같은것이였다. 우리의 과거를 청산해버리겠다는 위협의 예고였다. 슬프게도 우리 사랑은 결렬직전에 이르렀음이 확실해졌다. 동무는 나의 심장이 얼도록 놀래웠다. 동무는 쓰고있다.

…우리 서로 다른 사람이였어요. 청춘과 사랑을 두고 희망과 포부를 두고 두사람은 건널수 없는 강의 이편과 저편에 서있어요…

생활과 리상, 래일과 꿈… 물론 이러한 말들은 너무 오래되고 흔해서 새맛을 잃었어요. 그렇다 하여 이러한것들을 낱아버린 노래처럼 취급하는 것은 우리의 과오였어요. 제가 지금 자신을 후회하는것도 이때문이에요…》

중열의 애인은 계속 쓰고있다.

《…저녁이면 자기 집 창문들에 문보를 내리우고 <나의 생활>, <나의 세계>속에 잠기는 그런 생활을 원하고있어요. 저는 청춘을 즐기고싶어요. 한껏 생을 즐기고싶어요.

명절이면 손님들을 맞아들이고 손님들과 둘러앉은 그 식탁우에서 친근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오고가는 그런 생활이 그리워요. 그 무엇보다도 이 <나의 집>, <나의 생활>, <나의 세계>를 바꾸지 않겠어요.

이제는 제가 동무에게 무엇을 원하고있는지 정확히 리해하였으리라 믿어요. 꿈이 서로 다른 우리 두사람이에요. 어느 한사람이 자기의것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영영 건널수 없는 강의 이편과 저편에 서있게 될것이에요…》

젊은 기사 중열의 가슴은 아팠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애인에게 단호하게 말하고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길을 갈것이다. 어느 한 바람세찬 겨울날에 동무의 그 <나의 집> 따뜻한 창문맡을 지나서 가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밤이 몹시 춥다고 동무의 <나의 집> 한 구석에서 몸을 녹이고 가도록 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을것이다.》

생활에 대한 리상과 래일에 대한 꿈이 서로 다른 두 목소리였다. 정의의 목소리는 더 강하게 울려오고있다. 자기를 위한 생활이란 지리하고 곰팡내가 내풍기는 차디찬것이다. 때문에 주인공 최중열은 철개량체 《E-13》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중한것, 청춘이며 심장이며 모든것을 바쳐서 성공으로 간다. 작가의 독특한 체취가 느껴지는 장편소설 《먼길》의 초고를 읽고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정창운동무의 얼굴에는 시험을 치르고난 학생이 선생님의 점수를 기다리는것 같은 그런 초조가 한껏 어려있었다.

단편소설 《정보로 걸어라》로부터 시작하여 중편소설 《포성》, 《빛을 따라》, 《습격》 장편소설 《천산령을 넘어》로 수많은 독자들과 이미 친숙해진 작가가 어째서 이렇게 초조해할까.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정창운동무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이 장편소설에서 우리 시대 청년지식인들이 어떻게 자기앞에 높은 리상을 제기하며 그 리상실현을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를 작중인물의 형상을 통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

《저는 이 사명과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탐구의 순탄치 않은 길을 걷고있는 주인공과 함께 눈물도 흘리며 기쁨도 맛보며 힘겹게 <먼길>을 걷고있습니다.》

이윽하여 우리들은 정창운동무에게 어째서 자기가 쓴 장편소설에 대하여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리유를 물었다.

그는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뒤라고 말할까요. 아마 그것은 작가의 량심때문이겠지요.》

그렇거늘 작가란 자기의 명예나 벌이를 위해서 글을 쓰는것이 아니다. 벽찬 시대와 인민의 위업에 이바지하는 글, 조국의 온 대지를 비옥하고 풍요하게 하려는 간절한 념원이 작가의 량심일 것이다.

때문에 작가의 기쁨이란 그가 자기의 량심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량심이 일치되었다고 느낄때만이 찾아오는것이리라…

## 언제나 현실과 함께

소나무술과 함께 백설을 들 쓴 우산장창작실은 고요했다. 다만 눈갈기를 일으키며 뛰노는 이름모를 새들의 노래소리만이 방안의 고요를 간간히 흔들고있었다.

그러나 그저 고요하게 느껴질뿐이지 《안온함》이라든가 《고요함》이라는 문구는 여기 우산장창작실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었다.

우리는 락원기계공장에서 현지체험을 마치고 우산장에 도착한 소설가 김보행동무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숲속의 설경이 그대로 안겨오는 창가에 앉아 현지에서 완성한 장편소설 《너당원》을 한창 추고중이었다.

《아, 어서 오십시오-》

김보행동무는 반갑게 우리들을 맞아주었다. 오랜 현지체험과정을 통해 다듬어진 그의 얼굴에서는 건강미가 넘쳐흐르고있었다.

그는 중편소설 《끝은 길》, 《영원한 봄》으로부터 장편소설 《로동가정》으로 독자들을 기쁘게 한 작가였다.

《현지에서 장편소설 <너당원>을 완성해가지고 왔는지요?》

《예, …지금 장면들을 보강하는중입니다.》

김보행동무는 한창 열정을 쏟아붓던 원고지를 내밀었다. 우리들의 눈앞에는 30 여년전 전화의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 락원기계공장 주물직장의 한 당세포총회에 참가해주신 영원히 잊을수 없는 그날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힘찬 길을 걸으시는 어버이수령님!… 한평생 걸어오시는 그 길우에 눈물없이 들을수 없는 인간사랑의 세계가 펼쳐지고 이 땅우에는 끝없는 룡성과 번영의 새시대가 솟구친다.

우리들은 장편소설의 장면과 장면들에서 한 평범한 녀성당원이 전쟁이 주는 슬픔과 고통, 죽음과 파괴를 딛고 일어서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신 행복을 지켜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한 녀성당원은 생동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제 심장으로 웨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철석같이 굳어진 신념인것이다. 어느덧 우리의 가슴은 후더워졌다.

그때 김보행동무는 갑자기 생각키운듯 책상서랍속에서 편지 한장을 꺼냈다. 조형작업반에서 일하는 한 청년이 보내온 편지속에는 공장소식이 세세히 적혀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사로청 7 차대회에서 자기 작업반의 리영애가 토론했다는 기쁨의 소식이며 새로 만든 유압식기중기와 유압식엑스까와틀의 성능이며 지어 어느 청년이 장가들던 웃음있는 이야기까지 적혀있었다.

그 편지의 구절들이 어찌나 친근하게 씌여졌던지 마치 김보행동무가 그 작업반의 성원처럼 우리에게 생각되었다.

김보행동무는 힘있는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저는 여기 우산장에 와있지만 항상 락원의 기계소리를 들으며 사색하고 글을 쓰고있습니다.》

옳았다. 여기 우산장은 생활과 멀리 떨어진 외진 숲속의 정각이 아니었다. 우리의 벽찬 시대와 함께 거세차게 호흡하며 웨치며 전진하는 하나의 들끓는 전투장이었다.

## 시인과 나는 이야기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우리 작가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현실속에서 작품을 창작하도록 항상 가르쳐주었다.

현실은 작가들의 지식의 무진장한 원천이며 창

작적재능을 꽃피울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다.

우리는 이속에 담겨있는 진 뜻을 조국땅 각곳을  
편답하고 돌아온 한 시인과 나눈 이야기속에서  
다시 한번 뚜렷이 확증하였다.

우리는 시인 오필천동무와 마주앉았다. 그는  
자기가 현실에서 받은 흥분과 충격에 대해 끓어  
넘치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고있다...

여기는 거칠은 서해의 물결이 끝없이 밀려가고  
밀려오던 간석지!

이 파도사나운 기슭에 밤하늘을 불태우며 우등  
불 타올랐다. 기나긴 제방길이 솟아나고 풍년이  
삭 고개 숙이는 간석지 새별이 끝없이 펼쳐졌다.  
온 벌이 그대로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릴 꽃  
다발인양...

시인은 간석지 첫째 농사에서 풍작을 마련하고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한 과학자를 만났  
다.

시인은 그 과학자의 손을 굳게 잡았다. 순간  
시인의 가슴속에 찌릿한것이 흘러들며 눈앞에는  
번개같은 섬광이 번쩍했다.

온 한해 벌에서 살며 거칠어진 그 손, 바로 이  
손이 풍년을 가져왔다고 어버이수령님께서 뜨겁  
게 잡아주신 손이 아닌가.

시인의 머리속에서 시적환상이 나래를 펼쳤다.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높은 연단에 과학자를  
내세워주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뜨겁게 박수를  
보내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저 질펀한 감탕길을 밟으신  
로고의 자국을 따라 한줄기 두줄기 제방은 높아  
지더니 오늘은 그 사랑의 손길이 한 평범한 인간  
을 저리도 높이 떠받들어주시였구나...

그 사랑의 손길, 그 뜨거운 박수! 이것이 바로  
시였다. 시인은 승업한 사랑의 노래로 가득찬 대  
지를 밟으며 걷고 또 걸었다. 그는 황해의 명산  
장수산에 올랐다.

시인은 미려한 빛갈속에 감싸인 아름다운 장수  
산을 보았다. 온갖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었으며  
사슴들이 무리를 지어 즐겁게 뛰노는 모습을 보  
았다. 어디선가 돌돌거리며 껍도 정답게 들려오  
는 맑은 시내물소리... 시인은 바위불에서 향기  
풍기는 한떨기의 《만리 장수화》속에서도 영광스  
러운 당중앙의 사랑을 보았다. 하여 그는 이렇게  
 썼다.

솟는 해를 마중하여  
서림각을 떠났더니  
열두굽이 못다보고  
팔곡에서 해지웠네...

시인은 그 이상 더 쓸수 없었다. 그는 모대기  
였다. 그 어느때이든지 마음껏 분출할수 있으리  
라고 믿었던 자기의 심장이 영광의 빛갈속에 휩

싸인 그 아름다움을 종이우에 좀처럼 옮겨놓을수  
없음을 두고 안타깝게 모대기였다. ...

시인은 또 걸음을 옮겼다. 이번에 그가 들린곳  
은 자그마한 농촌마을이었다. 그는 해별에 검스  
레하게 탄 소박한 농촌 당세포비서를 만났다. 당  
세포총회에서 비판을 받은 한 당원의 아픔을 자  
기의 것으로 그대로 받아안고 잠들지 못하는 당  
세포비서를 보았다...

시인 오필천동무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이처럼 우리의 위대한 현실은 아름다운 자연  
과 거인적인 인간들을 낳습니다.》

그렇다. 이것은 시인의 말이 아니다. 우리의 장  
엄한 현실은 그대로 아름다운 화폭이며 그대로가  
승업한 노래인것이다.

## 우산장의 밤은 깊어가는데...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숲은 흰눈을  
덮고 깊이 잠들어버린듯 한없는 고요가 깃들었  
다.

그러나 우산장휴양각창문마다에는 불빛이 흘러  
넘치고있다. 지금 저 붉빛은 창가에 안달수영을  
을 원형으로 한 장편소설 《대지의 아침》을 쓰고  
있는 고병삼동무가 앉아있다. 그는 지금 어디선  
가 두엄냄새가 구수프레하게 풍기고 새벽안개가  
포근히 덮인 취야벌의 대지를 걷고있다.

그 다음 창가에는 숨은 영웅 백설희를 원형으  
로 한 장편소설을 쓰고있는 김수경동무가 사색에  
잠겨있다. 그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있는듯...

너류작가 강복례의 얼굴도 보인다. 그는 포연  
서린 고지우에서 사랑하는 전우들과 함께 원쑥격  
멸의 노래부르는 자기의 사랑스런 주인공 간호장  
치녀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전화의 그날  
을 원고지우에 그리고있다.

아동문학작가 원도홍, 그는 지금 소나무와 속  
삭이고있다. 게으름뱅이곰을 타이르는 부지런한  
꼬마토끼의 목소리를 그만은 듣고있다. 그는 지  
금 어린 독자들에게 펼쳐보일 동화의 세계에 너  
무도 깊이 파묻혀있다.

깊어가는 밤, 창작적열정으로 잠들줄 모르는  
우산장의 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방금 완성한 서정시를  
랑독하는 흥분에 젖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불타  
는 고지우에서 《결전의 길로》를 웨치던 시인 석  
광희였다.

눈내리는 이 밤의 선률처럼 조용히 들려오는것  
은 시인 김철의 목소리였다.

...

나라의 큰 휴양소를 통채로 내어주시며  
여기서 수령님께 기쁨드릴 글을 지으라시던  
자애로운 그 모습  
이제 다시 문득  
버들잎을 헤치시며 반길것 같거니

손에 들기에 앞서  
삼가 안아보자, 그이 주신 붓이여!  
꽃이여! 수풀이여! 정각의 기둥이여!  
나도 너희들과 함께 서게 해다오!

...

아, 우산장!  
너는 결코 고요할수 없구나  
이내 심장의 울림으로 가득히 차서  
낮에도 설레이고 밤에도 설레이누나

우리는 후더워오르는 가슴을 안고 우산장휴양  
소의 마당가를 오래동안 거닐었다. 신선하고 깨끗한  
대기를 흠뻑 들이키며 발목이 시도록 걷고  
만설어졌다.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불빛이 넘쳐흐르는 우산  
독자연단

장휴양각의 불빛은 창문을 바라보았다.

밤새도록 꺼질줄 모르는 불빛! 그것은 단순히  
불빛이 아니었다. 심장과 심장들에서 타오르는  
창작적열정의 화광이었다. 저 불빛들을 그대로  
꽃다발처럼 묶어서 영광으로 가득한 2 월의 하늘  
땅에 향기로 가득채우고만싶었다.

함박눈은 여전히 소리없이 내리고있다.

다함없는 은정의 노래처럼, 축복의 꽃보라처럼...

아! 이 땅에 내리는 눈은 어쩌면 저리도 깨끗  
한것일까. 어쩌면 저리도 2 월의 눈은 황홀하고  
아름다운것일까.

우리들은 소복소복 내리는 함박눈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오래도록 한자리에서 움직일줄 몰랐다.

-다음호에 계속-

본사기자 리순우

## 충성의 별을 우러를수록 깊어지는 생각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제 2 부)는 제가  
애독하는 혁명소설들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이  
그리울 때마다 이 혁명소설을 읽고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우리 조국의 력사우에 높이 솟아 충성의 별로  
찬연히 빛나는 김정숙어머님께서 지금 우리곁에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습니다.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  
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  
한 혁명가였습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께서 위대  
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혁명하는것을 가  
장 큰 영광으로 여기시고 언제 어디서나 장군님의  
사상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을 철칙으  
로 삼으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참다운 구  
감입니다.

저는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제 2 부)를  
읽으면서 김정숙어머님께서 장군님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어떤 립장과 자세에서 어떻게 관철하시  
였는가 하는것을 감명깊게 배우고있습니다.

1935년초, 북만원정에서 돌아오신 위대한 장군  
님께서서는 삼도만유격근거지에 들리시여 반《민생  
단》투쟁의 좌경적후과를 가셔주시고 요영구회의  
에서 채택된 유격근거지해산방침을 알려주시면서  
존경하는 김정숙어머님을 처음으로 만나신 자리

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동무는 우리 녀성들의 힘을 키우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까. 이때까지는 아이들 일  
에 힘을 썼지만 이제부터는 녀성문제에 눈을 돌  
려야 하겠습니까. ...녀성들이라고 총 한자루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해 총을 못들겠습니까? 총을  
들고 싸우게도 만들고 조직을 꾸려가지고 적후에  
서 싸우게도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조선녀성  
이 다 들고 일어나 싸움에 참가한다면 우리의 힘  
이 얼마나 커지고 강해지겠습니까? 꼭 이 문제를  
명심해야겠습니까.》

김정숙어머님께서 생활의 매 순간순간을 오  
로지 장군님께서 주신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바쳐가십니다.

상촌근거지인민들을 이끄시고 술기막골에 이르  
신 어머님의 앞에는 말할수 없는 애로와 난관이  
가로막아나섭니다.

반혁명분자 리억겸은 어머님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면서 갖은 모략을 다 꾸미던 끝에 공청책  
임자직과 작식대공작책임자직에서 떼려고 합니다.

게다가 식량사정도 어려워 사람들이 굶주림에  
쓰러지고 왜놈들의 《토벌공세》도 그칠새 없습니  
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그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  
의 혁명사상과 가르치심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으  
시고 부탁치는 난관을 헤쳐나가시면서 녀성들을  
한사람한사람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십니다.

놈들에 의하여 희생된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

면서 맥을 놓고있는 자매 국금이와 영금이를 따 뜻이 돌봐주시고 남편과 시동생이 《민생단》 혐의로 희생되고 그자신도 잡힐번하다가 아들마저 잃고 뛰쳐나온 음전이를 세심히 보살펴주시며 일시적인 난관앞에 주저앉아 동요하는 분임이를 엄격히 비판하시면서도 그가 혁명적계급의식을 높이도록 성심성의 이끌어주시는 김정숙어머님.

때로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적들이 옥실거리는 하동거리에 말파리를 몰고 들어가시여 일시나마 혁명대오를 떠났던 금실이를 적들의 감시로부터 빼내오기 위한 작전을 대담하게 벌리기도

하시고 반일애국정신은 강하지만 봉건사상에 물젖어 여성들의 무장진출을 달가와하지 않는 내도 산골골의 정대환일가를 비롯한 마을사람들을 혁명화하는 어려운 사업도 능숙하게 하십니다.

그렇듯 심혈을 기울여 한사람한사람의 여성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신 어머니께서 마침내 음전이를 적후공작원으로 내보내시고 마안산계선에 이르시여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한 장군님을 두번째로 만나뵙는 자리에서 여성무장대오를 무으셨다는 충성의 보고를 올리시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자신도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올라 자꾸만 북받치는 걱정을 누를길 없었습니다.

《...어쩐지 자꾸 눈물이 글썽거려지기도 하고 가슴이 쿵덕거리며 뛰기도 하시었다. 삼도만에서 그렇게도 간곡히 일러주시던 말씀을 이만치라도 실천에 옮겨 크지 않은 대렬이라도 만들어가지고와서 장군님 앞에 려지어세우고 인사를 올리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술기막골에서, 내도산에서, 하동거리에서 온갖 간난신고를 다 겪으며 과연 그렇게 해서 여성무장대를 꾸려낼수 있을가고 가슴 한귀퉁이엔 실망의 검은 구름조차 끼여들기도 하면서 꾸려낸, 아직은 그 싹에 불과자연단

파한 조선녀성의 앞장에 선 무장대! 그래도 장군님께서 이 작은 대렬을 보시고 그렇게도 대견해하시고 칭찬해주시니 얼마나 뛰던 보람, 애쓴 보람이 있는가!》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실천하고 충성의 보고를 올리는것은 어머니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이며 행복이시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장군님으로부터 며칠사이에 수백벌의 군복을 만들데 대한 명령을 받으시였을 때에도 오빠가 희생되었다는 소식에 접한 슬픔을 누르시면서 그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정확히 집행하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과 지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그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김정숙어머님의 고매한 품성의 하나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어 오신 김정숙어머님의 그 충성심이 력사의 갈피마다에 아로새겨져있기에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행복이 차례진것이 아니겠는가.

아, 우리 여성들이 함께 헤쳐야 할 혁명의 가시덤불길은 혼자서 다 헤쳐주시고 자신께서 응당 누리셔야 할 행복은 뒤로 미루시다가 끝내는 우리들에게 모두 넘겨주신채 떠나가신 김정숙어머님을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그리움으로 사무치기만 합니다.

그렇수록 저는 어머니께서 장군님께 못다올린 그 충성심을 그대로 받아안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고스란히 바침으로써 어머니의 념원을 이 땅우에 계속 활짝 꽃피워나가렵니다.

3월 26일공장 고귀옥

## 영원히 어머니로 부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이며 조선혁명의 참모부입니다.》**

저는 《조선문학》(1981년 10호)에 실린 서정시 《어머니》를 크나큰 감동을 가지고 읽고 또 읽

었습니다.

한명한명 당원의 정치적생명과 육체적생명까지도 책임지고 보람찬 오늘과 희망찬 래일도 담보하고 약속하여주며 이 땅의 수많은 초소의 수천만 아들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으로 안아키우는 그 품에 대한 불멸의 송가입니다.

어머니! 세계 수많은 나라 수억만 대중이 헤아릴 수 없는 수천만 어머니가 있고 그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들을 혈육의 사랑으로 키워 사회에 내보냅니다.

우리는 파사롭기도 다정하기도 정겨웁기도 살뜰하기도 어머니에게 비기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목메여 어머니를 부릅니다.

하나 우리 어머니는 우리 여러 형제들을 모성애 그 하나만으로도 키우지 못했습니다. 말라붙은 젖가슴을 허비며 내동생이 굶어죽었습니다. 실로 지난날 지주, 자본가 사회는 어머니사랑이 아무리 지극해도 자그마한 자애로움도 유정함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잃었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우리 인민대중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한없이 자애로운 품으로 우리모두를 안아 오늘도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십니다. 그 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세련된 령도로 빛나게 이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의 품인것입니다.

실로 어머니라고 칭송하는 그 품이 없이는 천만산악을 뚫고나갈 지해도 없고 힘도 없기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대는 어머니!

피도 숨결도 다 나누어주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말아안아주며

바람도 비도 죽임까지도

다 막아나서주는 우리들의 어머니

준엄한 싸움길에 하나의 전사 뒤편어져도

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

붉은기에 휩싸안아 대오에 세워주는

영원한 삶의 품! 혁명의 어머니!

어머니당은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을 주고 영광을 주며 투쟁의 대오에 영원히 세워주는 손길을 지니고있기에 김진, 리수복, 남포의 영웅선장이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여 한목숨 기꺼이 바칠수 있었던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서정시 《어머니》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감정과 시대적요구를 집약적으로 반영한 깊은 철학성과 높은 서정성이 하나로 일관된 예술성이 풍부한 시입니다.

시대적정서와 사상예술성이 응심깊게 심장속에 스며들어 사람들을 숭고한 세계으로 이끌어가는 이 시를 우리는 일터에서도 읊고 회관무대에서 읊습니다. 읽을수록 더 읽고싶어합니다.

우리의 사업과 생활의 전부인 당, 영광스러운 당을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우리 당은 실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인것입니다.

나는 금나락 설레이는 농장벌에 서서 이 시를 영원한 만풍년의 노래로 부르며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을 충성으로 높이 모셔갈 맹세를 시의 한구절을 인용하여 소리높이 웨칩니다.

아 나의 생명의 시작도 끝도

그 품에만 있는 조선로동당이여

하늘가에 흠어지고 땅에 묻혔다가도

나는 다시 그대 품에 돌아올 그대의 아들!

그대 정겨운 시선, 살뜰한 손길에 몸을 맡기고

나는 영원히 아이적목소리로 부르고 부르리라-

어머니!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

**황해북도 신계군 신흥협동농장  
작업반장 류해창**